자기를 바로 봅시다

금주의 법구
부처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부처는 곧 내 마음이다.
마음을 어찌 멀리서 찾으려 하는가.
이 몸을 떠나 따로 있지 않다.
-보조스님-

현대불교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문의 02-737-0090 www.buddhanews.com | THE HYUNDAE BULKYO | 불기 2544년(서기 2000년) 6월 14일 수요일 (주간) | 제274호

佛事 전념 30年
불교미술전시관
시절불사의 모든 것
책임 상담해 드립니다.
02)733-4800 · http://www.Buddha.co.kr
신흥사 청동대불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서울 도선사 신도인 K씨는 매일 아침 '불교인터넷 텔레비전' 사이트를 방문, 경건한 마음으로 예불을 올린다. 물론 K씨는 인터넷 예불 외에도 중요 정보 사이트를 방문하고, 전자우편을 확인하는 일을 잊지 않는다. 증권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K씨는 하루 장세를 미리 예측하고, 장세 변동에 따른 대응 방안을 미리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K씨가 증권가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마음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는 것은 다양한 불교 교리를 제공하는 사이트와 전문 강좌 사이트를 클릭하는 지혜로 가능하다. 사이버 불교 교육에 관심을 갖자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인터넷에 대한 사부대중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홈페이지를 만들고 직접 운영하는 사이버 포교사들 역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경향을 읽고 충분히 이용하자는 것이다.

현재 개설된 불교 교육사이트 중에서, 최봉수 씨의 인터넷불교대학(buddhistweb.com)은 교계 최초로 동영상과 강의노트를 요약해 보여주는 교육시스템으로 불자 네티즌의 호응을 얻고 있다. 또 이계환 씨의 사이버서당(cybersodang.co.kr)은 딱딱한 한자의 원리를 밝혀 쉽게 가르치고, 능화스님(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의 불교무용(buddhistdancing.or.kr)은 영산재와 불교무용의 모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으며, 불교이야기(galaxy.channeli.net/jb8985)와 불교경전도우미(user.chollian.net/~hgs9292)는 〈반야심경〉 〈법화경〉 등의 경전과 총 427개의 진언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어, 불자 네티즌뿐 아니라 일반 네티즌들까지 자주 방문하고 있다.

이들 사이트와 같이 불교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을 단지 클릭 몇 번으로 방문한다면, 자투리 시간만으로도 수행의 모자람을 채우기에 충분할 것이다. 가상 공간에서 불교 공동체를 찾고 또 개달음의 세계에 다가서는 사이버 불국토 유영을, 불자 네티즌이라면 한번쯤 해봄직하지 않을까.

오종욱 기자(gobaocu@buddhapia.com)

인터넷시대 박차라도 타자
사이버 불국토 만들자

아침마다 사이트 예불
틈틈이 교리공부 '클릭'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buddhanews.com

민족공동체 추진본부 '창립'

조계종 남북불교 교류-통일운동 전담기구로

분단 55년만에 개최되는 남북정상회담에 맞춰 조계종의 남북불교교류와 통일사업을 전담할 민족공동체추진본부(총재 정대 총무원장)가 8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창립됐다.

교육원장 일면, 포교원장 정련, 종회의원 종하스님 등 2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이날 창립식에서 민족공동체추진본부는 창립선언문을 통해 "대자대비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 민족이 새로운 화합과 평화의 공동체로 자리매겨 지기를 기원하고 실천하기 위해 결성되는 단체"라며 "민족의 역사와 동질성을 회복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불자들로 하여금 통일보살로 나서도록 하여 7천만 민족이 바라는 통일조국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민족공동체추진본부는 △통일종책 수립 △북한불교 및 민족문화 복원을 위한 조사·연구 △남북불교교류 △통일기금 설치 △통일보살단 조직 △통일교육 및 홍보 △북한 지원 △타종단 및 통일관련단체와의 연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한다.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총재인 정대스님은 이날 본부장에 정련, 공동집행위원장에 명진(종회부의장) 양신(총무원 사회부장), 정책위원장에 학담(종회의원), 남북교류위원장에 자홍(낙산사 주지), 조사연구위원장에 일철(총무원 문화부장), 사무처장에 도각(사자암 주지) 스님을 임명했다. 또 고은(시인) 이영희(한양대 명예교수) 강만길(민화협 공동대표) 김중배(참여연대 공동대표) 송석구(동국대총장) 장명국(전 YTN 사장) 씨 등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정책위와 남북교류위 조사연구위 등 3개 실행위원회에는 김광식 21세기한국연구소장,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교수, 김근식 아·태재단 책임연구원 등 12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정대스님은 총무부장 원택스님이 대독한 법어를 통해 "분단 반세기의 과거사만을 가지고 분별심을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 민족의 미래는 악순환을 되풀이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민족공동체추진본부는 불자들의 염원을 모아 대립과 갈등, 전쟁의 위협 가득한 분단역사를 끝마감는 쟁기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날 창립식은 경과보고와 송석구 동국대총장과 박지원 문화관광부장관, 강상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의 축사, 창립선언문 낭독, 현관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탄성스님 입적

12일 법주사서 영결식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진공당 탄성(眞空堂 呑性) 대선사가 8일 오후 5시 주석처인 충북 괴산 공림사 감인선원 선실당에서 입적했다. 세수 71세, 법납 47세.

탄성스님의 영결다비식은 12일 오전 11시 법주사에서 원로회의장으로 봉행된다.(다음 주 속보)

탄성스님은 종단이 어려울 때마다 수습의 책임을 맡았으며, 소임을 마친 후에는 공장 수행처인 공림사로 돌아가 수행과 후학지도에 전념하는 참 수행자상을 보여줘 종도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왔다.

80년 10.27 법난 후에는 수습대책위원장, 94년 조계종 개혁회의 총무원장, 98년 조계종 사태 때는 당시 총무원측과 정화개혁회의측의 중재에 나섰으며, 중재가 결렬되자 승려대회장을 맡아 현 종단 출범에 기여했다. 97년 원로의원으로 추대됐으며, 지난해 4월부터는 원로회의 의장직을 맡아왔다.

탄성스님은 1930년 충북 보은에서 태어나 44년 금오스님을 은사로 득도해 이듬해 3월에 사미계를 받았다. 56년 고암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하고 61년 수덕사에서 하안거 이후 17안거를 성만했다. 평소 "법문을 듣고 경전을 읽는다는 것은 불교와의 인연이 필지언정 도를 깨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실천과 참선수행을 강조했다.(행장·어록 5면)

정성운 기자

도난-화재방지시설 의무화

조계종 '방범·방화 규정' 제정 추진

조계종의 모든 사찰은 앞으로 성보문화재 도난 및 화재 방지를 위한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조계종 호법부(부장 종지)는 최근 방범·방화 보안규정을 제정키로 하고 규정안을 만들었다. 규정안에 따르면, 교구본사와 직영사찰, 특별분담사찰, 관람료사찰은 가군, 전통사찰은 나군, 일반사찰은 다군으로 분류하고, 가군의 경우 외부침입 및 화재를 감지할 수 있는 무인자동경보시설 및 장비를 1개 이상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다. 또 교구본사는 방범·방화 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년 1회 이상 소정의 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규정안에는 또 국가 및 시도 지정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사찰은 전각별 또는 문화재에 전기식 자동잠금장치와 폐쇄회로TV나 감지장치를 설치토록 하는 등 설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호법부는 빠르면 이 달중 규정을 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예산 협의, 시범사찰 지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모든 사찰에 방범·방화 시설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정성운 기자

종교청년 평화캠프 '다름이 아름답다'

26~30일…참가자 모집

'2000 종교청년 평화캠프'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우이동 원불교 도봉청소년수련원과 충북제천 천주교 배론성지에서 '다름이 아름답다'라는 주제로 열린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청년분과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강원룡 대화문화아카데미 명예이사장의 '한국 종교간 대화의 역사와 의미' 주제의 강연과 6대 종교의식 체험 등으로 진행된다. 또 기독영화 감독인 김동원씨 부부와 김해성 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집 소장이 '다름과 차이들 속에서 살며 사랑하며' '세계화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주제로 참가자들과 대화를 나눈다.

평화캠프에는 각 종교별 10명씩 참가하며,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KCRP로 연락하면 된다. 02)736-2250, kcrp@chollian.net

KCRP 청년분과는 또 오는 9월 26~30일 '밀레니엄 2000 종교청년 평화축제' 참가자도 모집한다. 홈페이지 제작 경연, 연극, 단편영화 제작 경연, 콘서트 등의 분야이다.

정성운 기자

게놈 프로젝트와 불교생명관 6면





○동국대 본관 앞에 모셔진 석가여래청동입상에 붉은 페인트로 십자가를 그리고 '오직 예수'라고 쓴 훼불사건이 5일 발생했다. 사진=고영배 기자

동국대 석가여래상 훼불

이교도 소행…참회법회-대중공사 열어

36년간 동국대 교정을 지켜온 석가여래 청동입상(이하 성상)이 이교도에 의해 '붉은 십자가'로 더럽혀졌다.

5일 새벽 명진관 앞에 있는 성상 아랫부분에 가로 50cm 세로 80cm 크기의 '붉은 십자가'와 180cm 길이의 '오직 예수'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것을 이곳을 순찰하던 총무과 이병길 씨가 발견했다.

동국대는 중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긴급 교무위원회를 열어 '교정 불상 훼손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석림회도 이날 12시 성상 앞에서의 '규탄 및 참회 법회'를 열고 성상 훼불에 즉각 대응했다. 또 8일 정각원에서는 동국대 학인 스님이 '건학 이념 수호를 위한 대중공사'를 마련했고, 9일에는 성상 앞에서 '전 동국인의 참회 법회'가 봉행됐다.

중부경찰서는 5일 오전 수사에 착수했으나 당시 목격자가 없어 수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국대에서는 92년 이후 12차례의 훼불사건이 발생했으나, 모두 범인을 잡지 못했다.

동국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명진관 앞 성상과 교내 정각원에 CCTV를 설치하고, 순찰요원을 배치했다. 특히 성상 주위에는 경보장치도 추가했다.

성상은 1964년 11월 5일 동국대 한복판에 봉안된 높이 350cm의 청동입상으로, 동국대를 찾아온 내·외국인들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사상을 전해왔다.(관련기사 3면)

오종욱 기자
(gobaocu@buddhapia.com)

조계종 "동국대 훼불 유감"

조계종총무원(원장 정대)은 동국대 캠퍼스 내 불상 훼손 사건과 관련, 5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그간 종교간의 화합을 위해 각 종단 지도자들이 해왔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유감을 표했다.

한편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위원장 자승)는 9일 동국대 훼불사건과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학교당국의 무대책으로 훼불이 발생했다며 책임자 문책과 교직원의 종교 공개를 요청했다.

정성운 기자

경율론(經律論) 삼장(三藏)의 세계를 공부하는

봉행

한국고승 초청 제10회 법왕사 경율론 삼장 백고좌(百高座) 대법회


법왕사 용두관음상

대한불교 조계종 비슬산 법왕사 주지 實相 합장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에서는 부처님 출가일인 지난 3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 1백일간 한국 불교의 큰스님 1백인을 초청, 법문을 듣는 백고좌 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부처님의 팔만사천 법문을 두루 공부하는 「경율론 삼장의 세계」를 주제로 전국의 고승대덕들을 법사로 초청합니다. 불자들께서는 많이 동참하시어 부처님의 무량한 가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 법회기간 중에는 점심공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6월 20일에는 대구실내체육관에서 회향법회를 봉행합니다.
• 법회기간중에는 영가천도 49재와 100일 기도를 동시에 봉행합니다.
• 백고좌법회에 법사로 모시고 싶은 스님 추천을 바랍니다.
• 백고좌법회에 동참하실 전국의 사찰이나 각 신행단체는 미리미리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법 회 일 정

일시 : 불기 2544년 3월 13일 ~ 6월 20일(100일간)
장소 : 법왕사 큰법당(대구 수성구 파동 산 116번지)
시간 : 오전 10시 30분(108배) 11시 30분부터 법문
문의 : 법왕사 종무소(☎ 053-766-3747, 9088)

◈ 동국대 교수초청 야간대법회
· 기간 : 4월 6일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7시
법왕사 큰법당(3개월)

◈ 불교대학 중급반 ≪대승기신론≫강좌
· 일시 : 4월 11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운문사 일진스님
· 장소 : 법왕사 큰법당, 90분간 강의

◈ 법왕합창단 합창발표회
· 일시 : 6월 9일 오후 7시
· 장소 : 대덕문화회관
· 지휘 : 유양환(법왕합창단 지휘자)
· 특별출연 : 시명스님, 정륜스님 모리터국악원 류연경 선생님외 7인

◈ 모이자! 6월 20일 실내체육관 백고좌 회향법회장으로
· 제1부(오후 1시) - 고산스님 초청 불명 및 보살계 수지 대법회
· 제2부(오후 2시) - 제10회 백고좌법회 회향식, 법왕상 시상식
· 제3부(오후 2시 30분) - 공연, 어울마당, 불자연예인 초청

"전쟁 감당하기 힘든 고통"

문명금 할머니, 보상금 4300만원 베트남전 피해자에 보시

일본군 위안부 출신 할머니가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 피해자들을 위해 써달라며 국가로부터 받은 보상금 전액을 보시, 자비를 실천해 진한 감동을 주고있다.

나눔의 집(원장 혜진)에 거주하는 문명금(83) 할머니는 5일 서울 종로구 명륜동 국제연대 사무실에서 정부와 민간단체기금에서 받은 보상금 4300만원을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진실위원회'에 전달했다.

문할머니가 보상금 전액을 보시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혜진스님으로부터 자신과 마찬가지로 전쟁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베트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과 고통을 나누고 싶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나눔의 집과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돈을 내놓고 싶었지만 혜진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바꿨어. 전쟁의 고통은 누구나 감당하기 힘든 아픔이야."

할머니는 현재 위안부생활 후유증으로 뇨독증을 앓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다리가 안좋은 상태. 혜진스님은"건강도 좋지 않고 불행한 삶을 살아온 할머니지만 남은 여생 동안 나누는 삶을 실천하고 싶다는 말을 종종 했었다"고 덧붙였다.

할머니는 요즘 매일 아침에 나눔의 집 법당을 찾아 부처님 전에 기도드리고 밭에 나가 풀을 뽑는 등 밭일로 소일하고 있다. 그리고 대주 수요일이면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10명의 위안부 출신 할머니들과 함께 일본대사관 앞에서 항의집회를 갖는 등 위안부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위안부 추모위령탑 건립

돌아가신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위령탑이 세워진다.

나눔의집, 대한불교연화회, 전국불교장의연합회, 동국대 불교대학원 장례문화학과는 공동으로 오는 8월 15일 나눔의집 입구에 '일본군 위안부 추모 위령탑'을 세운다.

18m의 높이로 세워질 이 위령탑은 지하에 납골시설도 갖춰 돌아가신 위안부 할머니들의 유골을 모실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들 4개 단체는 815명의 후원자로부터 각각 1만원씩 815만원을 후원 받아 8·15 광복절에 맞추어 완공할 예정이다.

나눔의 집 원장 혜진스님은 "그동안 돌아가신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추모공간이 없었다"며 "이름없이 돌아가신 수많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복을 빌고 그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위령탑을 세우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의 나눔의집(0347-768-0064), 연화회(02-732-9618)



◇문명금 할머니가 정부로부터 받은 보상금 전액을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진실위원회' 이래구·강정구 공동대표에게 전달하고 있다.

"일본이 사죄하고 배상하지 않는 한 일본을 용서할 수 없어. 몸이 힘들고 괴롭더라도 그들의 잘못을 세상에 알릴거야."

1917년 전남 광양군의 어려운 가정에서 1남 3녀의 장녀로 태어난 문 할머니는 18살 때 친구들과 경남 하동에 갔다가 공장에 취직시켜 주겠다는 일본인 말에 속아 중국 흑룡강성의 손오현 731부대 위안소로 끌려가 위안부 생활을 했다.

종전 후 할머니는 중국 조선족과 결혼해 위안소 근처에 살다가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지난해 2월 나눔의 집 혜진스님의 도움으로 64년만에 고국의 품으로 돌아왔다.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진실위원회 공동대표 강정구 동국대 교수는 "처음에는 남은 여생동안 평안하게 사시는데 돈을 쓰시라고 했지만 할머니가 기증의사를 굽히지 않아 받기 힘든 돈을 받았다"며 "할머니의 뜻을 기려 이 돈으로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 의해 민간인 학살이 가장 심했던 지역에 역사박물관을 건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1~2년 행자집체교육"

조계종 상설행자교육원 추진위 1차회의서 제기

행자교육이 1년 내지 2년 집체교육으로 실시된다. 조계종 교육원은 8일 상설행자교육원 설립추진위원회 1차 회의를 갖고 위원장에 무관스님(대구 법계사 주지), 간사에 교육부장 계성스님을 선임하고, 이전까지 논의된 방안을 중심으로 건립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행자교육원을 상설로 하여 행자교육원장 운영책임하에 집체교육을 실시한다는 데는 의견접근이 이루어졌으나, 설립과 관련하여 본사활용, 전통사찰 활용, 새로 건립, 4~5개의 도량지정 방안에 대해서는 결말을 짓지 못했다.

추진위는 7월 5일 2차 회의까지 3개 방안을 집약하여 행자교육원의 방향 및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제19기 행자교육원이 직지사에서 8월 16일부터 9월 7일까지 열린다.

조계종 교육원은 8일 회의실에서 행자교육원 운영위원 회의를 열어 19기 행자교육원 개원일정을 확정하고 18기 행자교육원 사업보고 및 개선내용을 토론했다.

운영위원들은 18기 행자교육원 평가결과 현행 입교연령 상한선을 50세에서 40세로 조정할 것과 습의 예참 교수사는 교육장에 상주, 행자의 입교전 기본학습 이수, 율원 졸업생 기준으로 습의사 구성 등의 개선사항을 교육원에 제안했다.

김원우 기자

불교방송 사장 김규칠씨 선임



불교방송 제5대 사장으로 김규칠씨(만해사상실천선양회 공동대표·58세)가 선임됐다. 불교방송은 8일 재단이사회를 열고 대한불교진흥원에서 추천된 김씨를 불교방송 사장에 만장 일치로 인준했다.

김규칠 신임사장은 "불자들의 신심 고취를 위한 종교방송으로 거듭나도록 행정부와 방송 현장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려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규칠씨는 43년 경남 창원생으로 71-87년 외무부에 봉직했으며, 91년 불교방송 해설위원, 93년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97-99년 산업기술정보원장을 역임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사장 후보 추천 분제와 관련, 차기 사장부터는 진흥원에서 1인 이상을 추천키로 결의했다. 김주일 기자

아셈 민간단체 포럼 21일 봉은사서 워크숍

'아셈2000 한국민간단체포럼 종교분과'는 21일 오후2시 서울 삼성동 봉은사 교육관에서 '세계화와 영성(靈性, Spirituality)'을 주제로 워크숍을 갖는다.

오는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삼성동 봉은사에서 개최되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NGO포럼에 대한 사전준비모임의 성격을 띤 이번 워크숍에서는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스님이 '세계화와 종교적 대안'을, 성공회대 권진관교수가 '세계화로 인한 삶의 변화'를, 천주교사회복지위원회 최재선 사무국장이 '종교인들의 사회적 실천'을 주제로 발제한다.

불성으로도 번역되는 '영성'은 종교에 국한된 개념이 아닌 다양한 삶의 철학들, 문화적 가치와 신념들, 지역의 고유한 민중의 얼 등을 모두 포함한다. 김재경 기자

새천년 환경비전 선포

정부는 5일 제28회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환경의 새 천년, 이제는 실천할 때'라는 주제로 제5회 환경의날 행사를 갖고 새천년 국가 환경비전을 선포했다.

4000여명이 참석한 이날 기념식에서 법륜 한국환경사회단체회의 상임공동대표 스님(불교환경교육원 원장)은 '민간환경선언문'을 낭독했다. 또 성타 대자연보전환경연합회장(불국사 주지) 스님은 대통령 포장을 수상했다. 성타스님은 91년 4월 반야환경보존회 결성에 이어 93년 7월 대자연환경보존회를 결성하는 등 불교환경운동을 주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관련 인터뷰 4면〉 김재경 기자



◇국방부 호국원광사를 비롯 전국 3백여 군법당에서는 4일 호국영령과 순국선열 및 군복무중 사망한 군장병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천도재를 봉행했다.

호국 보훈의 달 교계 추모행사 잇달아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는 추모행사가 전국의 사찰과 단체에서 잇따라 개최됐다.

국방부 호국원광사를 비롯한 전국 근법당은 4일 개국 이래 모든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을 비롯 군복무 중 사망한 군장병들의 극락왕생과 극운융창, 군의 무사안전을 기원하는 천도재를 일제히 봉행했다. 국군불교총신도회(회장 이종욱)가 주최하고 군승단(단장 김말환)이 주관한 이날 법회는 전군 각 부대 소속 3백여 군법당에서 현역 불자 장병과 예비역 장병, 공무원, 민간신도 및 유가족 등 15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교 전통의식에 따라 엄숙히 거행됐다.

또 한국석불선양회(회장 이귀인)는 4일 경기도 파주 동파리 민통선 내 사면불을 친견하고 '남북통일기원 및 호국영령·왕생발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왕생발원법회는 보명스님과 최혜명 법사의 청혼재를 시작으로 금강경 봉독, 장엄염불 등으로 진행됐다. 이어 첼로 연주, 구품연지회의 법륜상전 춤 헌공과 조각가 오채현씨와 손창대 박사의 특강 등 영령들의 넋을 기리는 각종 문화공연이 펼쳐졌다.

천태종 서울 관문사(주지 운덕)도 이날 옥불보전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천도대법회를 열었다. 전몰군경유가족 3천여명이 동참한 이날 천도법요에는 해방이후 최근까지 순직한 전몰군경 1천5백여 영가가 봉안됐다.

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회장 박수관)은 6일 현충일을 맞아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UN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묘지의 잡초 제거와 정화활동을 벌였다.

또한 경상남도불교협(회장 보광)과 마산·창원불교연합회(회장 지태)는 11일 도청 도민홀에서 호국기원법회를 가졌다. 도필선 기자

불교전공 교수 초청

26·27일 해인사 홍제암서

일반대학에서 불교학을 전공하고 있는 교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류와 연대의 틀을 모색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련)은 일반대학 불교전공교수들의 불교학 연구가 현실적이고 포교적으로 접근토록 유도하고, 종단과의 관계설정을 모색하기 위해 26일부터 27일까지 해인사 홍제암에서 불교전공교수초청 '산사의 만남' 행사를 개최한다. '산사의 만남' 행사는 '불교학과 신행 하나인가, 별개인가'를 주제로 한 워크숍, 종단의 포교정책 제시 및 의견교환, 새벽예불, 발우공양, 해인사 방장 법전스님 친견, 산내암자 참배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포교원은 17일 1차 회의를 갖고 워크숍 발제자 선정 등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김원우 기자

남북불교 세미나 개최여부 종단협 7월중 결정키로

남북불교 합동 세미나 개최 여부가 7월중 결정된다.

종단협의회(회장 정대 조계종총무원장)는 5일 종단대표자 간담회를 열고 남북불교 합동 세미나와 관련, 진각종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후 북측의 반응을 파악한 후 개최 여부를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진각종 성초 통리원장 등 진각종 대표단은 7월초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다.

남북불교 합동 세미나는 지난 3월 종단협의회와 조선불교도연맹 대표단의 북경회동에서 조불련이 '민족대단결과 통일을 위한 불자들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것을 종단협에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또 남북정상회담 성공 기원 '화해와 평화를 향한 겨레대합창'(10일)과 6.25전쟁 50주년 '온겨레 평화대행진'(25일)에 종단의 대표와 주요 사찰 스님 및 신도들을 적극 참여시키기로 했다.

종단협의회 종단대표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비회원 종단 관련 기사 및 광고 게재 자제를 교계신문과 방송사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진각종 성초 통리원장, 조계종 총무부장 원택스님, 천태종 총무부장 덕수스님,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 등 10개 종단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정성운 기자

현대만평 박구원



조국은 소중한 것이여…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및 사리장엄구 특별전

◈ 감사의 말씀 ◈

통도사성보박물관 개관1주년을 기념하여 마련된 『불사리신앙과 그 장엄』 특별전이 지난 6월 2일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시고 방장스님과 주지스님, 경상남도 지사, 문화재청장 등 내빈 200여명과 신도 500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 성황리에 거행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과 박물관 자원봉사자 여러분을 비롯한 그 밖에 분야별 회원여러분에게 지면으로 나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박물관에서는 앞으로 행해질 행사에서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아무쪼록 불자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통도사성보박물관장 梵河합장

통도사 성보박물관에서는 신축개관 1주년을 기념하여
부처님 진신사리친견 및 사리장엄구 특별전이
지난 2일 개막식 이래 연일 3,000여명이 입장하는 성황리에 전시중입니다.
이번에 부처님 진신사리는 통도사 창건주이신 자장율사께서
중국에서 모셔와 **1400년 만의 처음 공개**되는
것으로 금생(今生)에 두 번 다시 없는
마지막 친견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함께 전시되는 사리장엄구는 가장 성스럽고 아름다운
불교예술품으로 1996년 발견된 후 보존처리를 거쳐 처음 일반에
공개되는 감은사동탑 사리구를 비롯하여 **전국 50여기**
불탑에서 출현한 국보 보물등이 함께 공개됩니다.



1,400여 년 전 자장율사께서 모셔온 부처님 진신사리

※ 사찰이나 신도단체에서 미리 예약하시면 관람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 사리친견 행사기간 동안 부산, 울산에서 통도사까지 순환버스를 수시 운행합니다.

◈ 사리 친견 안내 ◈

▶ 전시기간 : 6월2일(금) - 7월 31일(월)
▶ 친견시간 : 오전8시 -오후7시
(사리친견기간중 휴관 없음)
▶ 입 장 료 : 개인 3,000원 단체 2,000원
(사찰이나 신도단체에서 미리 예약하시면 특별요금 1,000원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 예약안내 : 0523)384-0010 담당자 : 이승현
(연락시 방문일시 및 사찰이름, 예상인원, 인솔스님 법명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버스운행안내 :
부산,울산,경주지역등지에서 친견을 오실 경우 미리 연락을 주시면 저희 박물관 버스(45인승)를 운행해 드립니다.

목어

고급과외와 보약

최근 대법원의 '고급과외의 합법' 판결이 마치 과외의 긍정성을 인정하는 것처럼 오해되어 학부모와 교육 당국 사이에 그에 대한 대책이 성급하게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은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자신의 돈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원칙을 명시했을 뿐 교육상 옳다, 그르다는 사실을 말한 것은 아니다.

인류역사상 최고의 건강법은 절제에 있으며 적절한 운동과 알맞은 식사가 첫째이다. 그러나 한국인은 유달리 보약을 선호하고 산삼이나 명산에서 서식한다는 백사 등에는 거금을 아끼지 않는다. 단숨에 효과를 얻으려는 한국인의 화끈한 심성을 제대로 보여준 일이다. 일명 족집게 선생은 시험 준비에 필요한 지식을 요령 있게 전수할 수 있어도 그것은 다른 가능성의 싹을 없애는 악일 수도 있다. 이웃집 돌쇠는 고추잠자리의 애벌레가 고치 속에서 빠져 나오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데 번번이 실패를 하는 안타까운 광경을 보고 나뭇가지로 고치를 뚫어 애벌레를 밖으로 꺼내주었다. 방과 후 다시 그 자리로 달려온 돌쇠는 시커먼 개미떼에게 뜯어 먹히는 애벌레를 발견했다. 돌쇠의 선생님은 "애벌레가 고치에서 나오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은 그 속에서 빠져 나왔을 때 필요한 힘을 기르는 과정인데, 충분한 힘을 기르기 전에 다른 이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날아갈 힘이 없어서 다른 벌레의 먹이가 되고만 것이다"라는 설명을 했다.

학생은 지식만을 위해 공부하는 것은 아니며 학습을 통해 사회에 나갔을 때 적응할 수 있는 끈기와 지성, 목표의식과 성취의 보람을 길러준다. 보약을 먹고 단숨에 건강해 지기를 바라는 것처럼 아이의 교육도 고급과외나 과다한 교육으로 바람직한 인격을 기대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국인의 원형에는 오랜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리면 단숨에 일을 해치우면서 기른 심성이 있는 것 같다. 그것은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자녀 교육에 관해서 만은 백년의 계획을 세우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해 나가야 함을 강조한다.

김용운(한양대 명예교수·본지 논설위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논설고문 : 고 은
인 쇄 인 : 김규석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구독료 :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교내 종교갈등 표면화 될듯

동국대 석가여래불 십자가 훼불 '파장'



◇ 훼불사건이 발생한 5일 동국대 석림회와 불교대학 학생들은 훼불규탄 및 참회법회를 봉행했다.

동국대 석가모니 청동입상(이하 성상)의 훼불 사건은 범죄 자체를 비판하기보다는 집안 단속에 주력하는 미묘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각원과 초파일 장엄용 코끼리 등이 불에 탔던 과거의 훼불 사건과 비교해, 이번에 이교도에게 유린당한 성상은 그 상징적 의미만을 놓고 보더라도 과거 어느 때보다 더 큰 파장을 낳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동국대 교직원과 학생들 사이에 잠재해 있는 종교간 갈등을 부각시키고, 그것에서 훼불의 이유를 찾고 있는 동국대의 움직임에 대해 교계는 '이례적'이라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교계의 이러한 반응은 그 동안 석림회·불교학생회·교수불자회 등 학내 불교단체들이 동국대에서의 기독교인 교직원과 선교 활동에 우려를 표명해 왔고, 최근에는 기독교학생회가 동아리연합회 공식 단체로 등록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반감이 형성되었다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동국대는 기독교학생회의 활동을 공식적으로 금지해 왔는데, 5월 초 이 같은 관례를 깨고 UBF, YWAM, CCC, JOY 등 4개 기독교학생회들이 연합해 동국대 동아리연합회의 공식인가를 받았다. 이에 대해 석림회 등 학내 불교단체들은 절차상의 이유로 '인가'를 무효화시켰다. 석림회 기획실장 법선(선학과 2년) 스님은 "이 단체들은 '동국대 복음화'를 내세우고 있어, 학생동아리보다는 '선교단'에 가깝다"며 인가를 무효화시킨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계는 "동국대는 이번 사건을, 학내 불교 위상을 다지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동국대의 움직임을 긍정하면서도, "타종교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배타심을 자극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고 있다.

그 동안 학생들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면서도, 교수나 직원 채용과 승진에 있어서 종교성을 따지지 않았던 동국대의 원칙 없는 행정은 바로 잡아야 하지만, 다종교 사회에 역행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동국대 학인스님 40여명은 8일 정각원에서 '건학이념 수호를 위한 대중공사'를 열어 이번 훼불 사건의 책임을 송석구 총장에게 △타종교 인사 보직 반대 △교직원 신행 평가 후 인사 반영 등 7개항을 요구했다.

12일까지 답변을 요구해 놓고 있는 동국대 학인스님들은 "동국대 행정 당국의 실천 의지를 가늠하겠다. 만약 합당한 대답이 없을 경우, '이사장 스님 방문' '총장실 점거' 등의 절차를 밟겠다"고 밝히고 있어, 이번 훼불 사건의 파장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교계는 "종립대학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만, 학내 모든 타종교 교직원과 학생들을 '마녀 재판장'으로 끌고 갈 수는 없는 일"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다종교 사회에서는 타종교를 수용하면서, 불교를 지키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국대는 9일 성상 앞에서 동국대 전 교직원 및 학생들이 참여하는 '전 동국인 참회법회'를 봉행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학인스님들 "기독교 동아리 활동 불허"

"'개신교인의 반불교관' 전통문화교육 부재 때문"

김종명 교수 '종교와 문화'서 지적

"한국 개신교인들이 불교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가지게 된 원인을 정부수립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는 교육과정을 통해 반불교관을 형성하도록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종명 서강대 종교학과 계약교수(사진)는 최근 서울대 종교연구소에서 발행한 〈종교와 문화〉 6집에 실은 '개신교와의 대화-불교적 전제와 대안'이라는 글을 통해 보수적 개신교인들의 반불교관 형성 원인을 진단했다.

이에 따라 진보적 개신교계가 주도해 온 종교간대화운동은 한국의 종교상황 개선에는 별 기여를 하지 못했으며, 이는 개신교 보수교단의 근본주의적 인식과 반불교관에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김 교수 글 가운데 교육과정을 통해 개신교의 반불교관이 형성됐다는 내용의 요지.

당시(1945~48) 교육기관중 조선교육심의회의 역할은 이후 한국교육의 방향을 결정지었다. 특히 제1분과인 교육이념분과에서는 한국교육의 이념과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적 임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이때 편성된 교육과정에는 한국불교학을 포함한 전통문화 관련 과목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지속되어 왔다.

조선교육심의위원들의 개인적 종교성향이 교과과정 편성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은 크다. 교육이념 마련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안재홍과 백낙준을 포함한 4명이 개신교인이었고, 역사적으로 한국 종교인중 개신교신자들의 종교성이 가장 높으며, 또한 타종교에 대한 배타성이 가장 강하기 때문이다. 특히



백낙준은 미국 체류시 장로교 목사가 된 후 미군정하에서 서울대학교 재조직을 비롯한 교육 업무에 깊이 관여한 이래 50년부터 52년까지 이승만 정부의 교육부장관을 역임했다.

결과적으로 현대에 이르기까지 철학적 요소와 종교적 요소의 양면을 가진 불교학은 한국의 제도권 교육과정에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한국인들이 개신교를 근대화, 민주화, 사회경제적 발전이란 개념의 틀 속에서 받아들인 반면, 불교를 퇴보적인 사회관의 한 부분으로 간주하게 된 것도 기존의 교육과정에서 불교 관련 과목이 소외된 결과와 무관하지 않다.

정성운 기자

크리스찬아카데미 새 원장 김경재 교수

인터뷰



"어느 한 종교만이 독불장군식으로 인권, 통일, 환경 등 우리의 삶의 질을 가늠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대화는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보다 더 불교다워지고, 기독교다워지기 위해 대화하고 협력하고 함께 정진해야 합니다."

크리스찬아카데미 새 원장으로 취임한 김경재 한신대 교수는 대화를 무엇보다 강조했다. 성철스님의 〈백일법문〉을 감동깊게 읽었다는 그는 "1600년의 역사를 지닌 불교가 민중들을 어떻게 가르쳤기에 눈파란 선교사의 말에 민중들이 넘어갔느냐"라며 불교에 대한 질타도 숨기지 않았다.

-대화란 무엇인가.

"대화의 첫번째 목적은 갈등과 긴장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있다. 이어 서로가 듣고 배운다는 차원으로 나아가야 한다. 특히 각 종교의 진리체험과 구도정신, 법열의 경지를 서로 들려주고 배워서 삶을 풍요롭게 하자는 것이 두 번째이다.

대화의 긍극적인 목적은 상호 창조적인 변형이다. 대화를 빙자해 자기는 고정시켜놓고 상대를 변형시키고자 하는 것은 대화가 아니다."

-구상하고 계신 종교간 대화·협력 방안은.

"앞으로 한국사회는 불교와 기독교의 협력 없이는 종단의 발전이 없음은 물론 한국사회도 불행해진다. 불교와 기독교의 대화는 한국문화와 역사의 내일을 가늠하는 결정적인 일이 될 것이다. 각 종교 신문과 방송에 타종교 이해를 위한 기획물과 프로그램을 편성해 대화의 매체로 활용하자는 제안을 하려고 한다."

-훼불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훼불 방지는 불가능한가.

"기독교 지도자로서 우선 불교에 사죄한다. 광신자는 불교가 뭔지 모른다. 불교에 대해 교육받고 감화받을 기회가 없었다. 따라서 정죄의 대상이 아닌 치유의 대상으로 봐주길 바란다. 개신교 내의 보수와 진보의 비율은 6:4 정도로 보수가 강하다. 보수적 개신교 중 광신적 개신교는 그 가운데서도 10%밖에 되지 않는다. 이같은 실상을 잘 알면 방법 나온다. 건전한 성직자와 불교인들이 공동으로 지혜를 모아 극복해야 한다."

-대화의 파트너로서 불교가 채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물리학에 빛의 이중성이란 말이 있다. 종교도 유형화한다면, 불교는 파동성이고 기독교는 입자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불교와 기독교는 자기의 유형적 특성을 지니되, 불교는 개체성 구체성을, 기독교는 만물을 회통하는 우주적 전일성을 보완해야 한다."

-동국대에서 발생한 훼불로 그 동안의 대화 노력이 손상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다.

"먼저 기독교 학생들이 동국대를 진리의 전당으로 인정해야 하며, 동국대의 건학이념을 비진리로 선언하고 정복의 대상으로 인식해서는 안된다. 건학이념이 있으니, 그 안에서 '우리 얘기 들어보시오' 해야 한다. 학교측도 학생지도에 소홀한 점이 있었는지 돌아와야 한다. 그러나 불상을 훼손한 것을 용납해선 안된다. 엄정함과 어루만짐이 동시에 필요하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종교간 대화 목적 상호 창조적 변형"

※ 지면사정으로 '선과 21세기' 쉽니다.

삼화불교대학 학생 모집

1. 모집학과 및 안내 ■각과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30%
불교학과	2년	■주간20명 ■야간20명 ■통신50명	· 고등학교 및 수학능력이 있는 동등이상 학력자 · 최종학교졸업증명서 1통 · 본교소정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5매	· 조계종 승려·포교사 (타종단승려, 포교사도 가능) · 30세 이상은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대신 이력서 전형 가능
	4년	■통신50명		
유아교육 (유아포교)과	2년	■통신50명		
불교미술 (문화재)과	2년	■주간20명 ■야간10명		
중국어과	2년	■주간20명 ■통신10명		
신문방송과 (불교보도과)	2년	■통신20명		

2. 학교연혁

1989.7.3 학교설립공고
90.3 불교방송대학 불교학부, 유아교육학부 4년제 개교
90.4 삼화불교대학으로 개명
90.8 본교학생137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증 취득
91.3 전문부 주간, 야간 2년제 개설
91.8 본교학생 148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1.8 교육부인정 고등학교 인수
92.2 제1회 졸업생 배출
92.7 국가인정 보육교사 119명 자격취득
93.3 불교미술과 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93.8 본교학생 142명 조계종 포교사지격 취득
94.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132명 취득
94.119 본교학생 183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5.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149명 취득
95.3 전문부 중국어과 개설
95.8 중국 남경 중의약대학과 문교체결
95.11 본교학생 141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6.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49명취득
96.11 본교학생 186명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7.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 40명 자격취득
98.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 42명 자격취득
99.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22명 자격취득(위탁교육 수료후)
2000.2 제9회 졸업생 배출
국가인정 2급보육교사·조계종 포교사 95% 자격취득

3. 특 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불교 유아포교사 2급 자격증 수여
·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문화재수리 기술자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지도자과정 입학가능
※ 중국남경중의약대학 본과입학가능(9월학기)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2000년 6월 30일까지
· 전형방법: 서류전형(우편은 당일 소인 유효)

5. 원서교부 및 문의처
본교 교학과:TEL.02)511-2026~8 FAX. 511-1080
일본동경분교 TEL 055-233-1848
부 산 분 교 : TEL 051-322-320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바람.
⊙ 인터넷홈페이지:WWW.Buddhapia.Com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대한불교 조계종 삼화불교대학

◈ 교육부 학력 인정 ◈
고등학교과정 학생모집

여러 사정상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하신 분
연령 관계 없음(만 60세까지)
■각 학년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고등학교 과정 각학년 편입가능	3년	주간·야간
중학교 과정	3년	주간·야간

■ 졸업 후 각 대학에 입학 가능함. 정규 고등학교와 교육제도 같음.
■ 특 전 : 성적 우수자 조기졸업 가능
■ 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2000년 6월 30일까지
■ 문의처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TEL : 02)511-2026~8
FAX : 02)511-1080

대한불교 조계종 삼화불교대학

◈ 중국최고 국립한의과 대학 ◈
남경중의약대학 학생모집

1.모집학과
■석사·박사과정 약간명 모집

학 과	학제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 년	◇ 고등학교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여부와 관계없음 ◇ 전문대, 대학 졸업자(전공불문)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통 ◇ 건강 진단서 1통 ◇ 보증서 1통 ◇ 외국인 유학생 신청서 1통 ◇ 여권용 사진 3매
중의외과	5 년	
중약학과	5 년	

2. 학교 소개
▶ 중국 최고 국립 한의과대학
▶ WH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타
▶ 부속병원 5개, 제약공장 3개, 교육병원 12개 제약연구소등 완비
▶ 외국인 기숙사 및 중국어 어학원
주소 : 中國 南京 漢中路 282 南京中醫藥大學
전화 : 25-6798171 팩스 : 25-6798168
※ 군입대 연기가능
⊙ 인터넷홈페이지:WWW.njutcm.edu.cn

3. 한국 상담 안내처
TEL : 02-511-2026~8

대한불교 조계종 삼화불교대학

중국명문 한의대 박사과정 연수

침·기공 연수

■ 연수대학
국립 남경중의약대학(남경한의대)
중국 남경 TEL 6789171
■ 대 상
한의사, 한약사, 스님, 침, 기공에 관심있으신분
■ 기 간 : 6박 7일
■ 주요연수 내용
당뇨병·중풍 비만·좌골신경통 및 관절치료 등의 침치료, 맥진법, 기공 등
■ 연 수 후: 국립 남경중의학대학
고급과정 수료증 수여(高級課程 進修 證明書)
■ 인 연 : 10명 선착순
■ 출 발 일: 2000년 7월 23일 예정
■ 문 의 처: 자매대학 삼화불교대학
■ 전 화: 02)511-2026~8

대한불교 조계종 삼화불교대학

일주문

백혈병환자에 900만원 전달



법장 생명나눔실천회 이사장은 3일 생명나눔실천회 사무실에서 백혈병으로 투병중인 한승수씨의 치료비 지원을 위해 900만원을 한씨의 아버지 한대석 씨에게 전달했다.

법무장관 표창 받아



지홍 조계사 주지는 재소자 교화에 기여한 공로로 13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스님은 그동안 영등포 교도소에서 70여 회의 법회를 갖고 400여 재소자를 불교에 귀의시키는 등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왔다.

5개 명찰 성지순례



우학 영남불교대학 학장은 18일부터 전국 5개 고찰로 순례기도를 떠난다. 대상 사찰은 화순 운주사(18일), 부여 고란사(21일), 하동 쌍계사(22일), 밀양 표충사(23일), 양산 통도사(27일) 등. (053)474-8228

파라미타 남원지회 발대



해운 파라미타 남원지회장(대복사 주지)은 3일 춘향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남원지역 청소년 관계자 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파라미타 남원지회 발대식'을 봉행했다.

정상회담 수행 평양 방문



고은 민족문화작가회의 상임고문(본지 논설고문)은 12~14일 남북정상회담대표단 일원으로 평양을 방문한다.

동산불교대 미얀마 순례



김재일 동산불교대학 이사장은 11일 5박6일 일정으로 동산불교대학 학생들과 함께 미얀마 성지순례를 떠났다. 순례단은 13일 미얀마 순례파고다 사원에서 일일 출가체험을 했다.

'조계사 미학적 가치' 주제 강연



이강근 경주대 교수는 24일 오후 3시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조계사 대웅전의 문화적 미학적 가치'를 주제로 열린강연회를 갖는다.

성초 통리원장·월주스님 국민훈장 동백·모란장 받아

진각종 성초 통리원장과 월주 전 조계종 총무원장이 문화예술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동백장과 모란장을 수여받았다. 박지원 문화관광부장관은 9일 성초 통리원장과 월주 스님에게 훈장을 전달했다. 박 장관은 또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인 지덕 목사와 대한성공회 김성수 주교에게도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여했다.

성초 통리원장은 진각복지법인과 국제불교연구소 설립 및 운영, 종교예술제 참여 등으로 사회복지, 육영, 통일과 국제활동,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했다고 문화관광부는 밝혔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apia.com)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은 성초 진각종 통리원장(오른쪽 끝)과 모란장을 받은 월주 전 조계종 총무원장(왼쪽 끝).

정대스님-교황청 대사 환담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 스님은 7일 오전 총무원을 방문한 주한로마교황청 대사 모란디니 주교의 예방을 받고 환담했다.

정대 스님은 "우리 나라 인권 신장에 가장 크게 기여한 곳이 가톨릭 교회였다"고 치하하고 "중생구제와 인류평화를 위해 서로 협력하자"고 말했다. 모란디니 대사는 "불교의 스님들과 가톨릭 신부들이 자주 만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모란디니 대사의 조계종 총무원 방문은 정대 총무원장에게 인사를 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천주교 주교회의 종교간대화위원회 위원장 김성태 신부가 동행했다. 정성운 기자



◇리영희



◇린 튼



◇오세영



◇신용하



◇신응수



◇법륜스님

리영희·린튼·오세영·신용하·신응수·좋은벗들

제4회 만해상 수상자 선정

만해 한용운 스님의 나라사랑, 평화사랑의 뜻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제4회 만해상 수상자가 결정됐다.

만해사상실천선양회(총재 정대 조계종 총무원장)는 5일 만해상심사위원회(위원장 이수성 전 국무총리)를 열고 실천상에 리영희 한양대 명예교수, 평화상에 스테판 린튼 유진벨재단 이사장, 시문학상에 오세영 서울대 교수(시인)를 선정했다. 또 학술상에는 신용하 서울대 교수, 예술상에는 신응수 중요무형문화재 제74호 대목장, 포교상에는 사단법인 '좋은 벗들(이사장 법륜 스님)'이 각각 수상자로 결정됐다.

리영희 교수는 저서 〈전환시대의 논리〉 〈우상과 이성〉 〈반세기의 신화〉 등으로 분단체제를 옹호하는 권력과 지식인들의 허상을 깨뜨려온 점, 유진벨재단 이사장 스테판 린튼 씨는 북돕기 사업을 국제적으로 전개해 남북한의 평화와 동북아시아의 평화 정착을 통해 인류의 평화를 정착시키려고 노력한 점이, 오세영 교수는 모든 존재에 대한 따뜻한 사랑을 담아 완전한 자유를 향한 우주적 상상력을 통해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들의 마음을 정화한 공로가 각각 인정됐다.

또 신용하 교수는 한국사회를 대표하는 진보적 지식인으로서 한국사회 민족적 정체성을 고양하는데 공헌한 점, 신응수 씨는 한국 고건축의 미를 현대에 복원시킨 최고의 대목장이라는 점, 사단법인 좋은 벗들은 국제 평화 인권 난민지원센터로서 갈등과 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 만들기에 전력해 오고 있는 점이 공적으로 인정받았다.

각 수상자에게는 상금 1천만원과 순금 만해메달이 수여되며 시상식은 오는 8월9일 설악산 백담사(회주 오현)에서 열리는 제2회 만해축전에서 함께 거행된다. 이경숙 기자(gslee@buddhapia.com)

연이은 장기기증 자비심 일깨워

스님이 불자에게, 그 불자의 부인은 또 다른 불자에게 신장을 기증하는 릴레이 신장기증이 이뤄져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릴레이 신장 기증의 첫 주자는 전남 담양군 법천사 진각스님. 스님은 14일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장석규씨에게 신장을 이식해준다.

스님은 몇 년 전 신도의 아들이 이틀에 한번씩 혈액투석을 하는 모습을 보고 신장을 기증하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이식조건이 맞지 않아 기증이 이뤄지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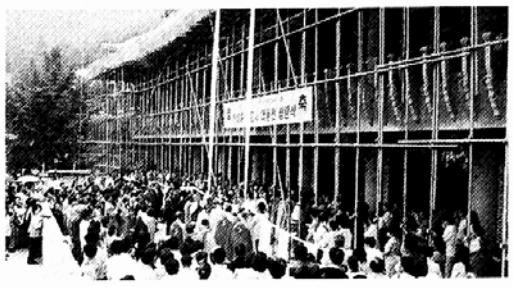
최근 이식조건이 맞는 환자가 나타나 신장기증이 이뤄지게 된 것이다. 스님은 골수 신장기증은 물론 사후 장기기증까지 신청해 놓은 상태.

스님에게 신장을 이식받는 장씨의 부인 안희순씨는 남편이 신장이식수술을 받는 날 서울 중앙병원에서 불자인 김용익씨에게 신장을 이식해준다.

김두식 기자(doobi@buddhapia.com)

인사

경상남도 불교협의회 △회장 : 보광 (합천 해인사 주지) △상임고문 : 신허 (양산 통도사 주지)·통광 (하동 쌍계사 주지) △감사 : 묘유 (남해 보리암 주지)·원공 (김해 혜광사 주지)·정인 (창원 불지사 주지) △부회장 지태 (마산 정법사 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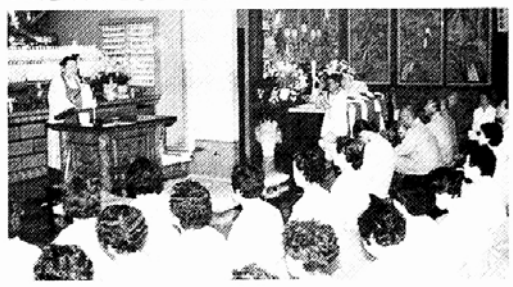
천태종 대전 삼문사 상량식

천태종 대전 삼문사(주지 세운)는 3일 도용 천태종 종정, 운덕 총무원장, 정산 감사원장스님을 비롯 종단 스님들, 대전 관내 기관장, 신도 등 2천 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법당 상량식을 봉행했다.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신축되는 삼문사 새 법당은 오는 2001년 12월 완공 예정이다.



비구니 금련회·화엄회 수륙 법회

부산 비구니 금련회와 화엄회는 6일 해운대 요트경기장에서 '수륙 대법회'를 봉행했다. 제주 약천사 혜인 스님을 법사로 56개 사찰 1천 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진행된 수륙재에서 금련회장 지원 스님은 "수중이나 허공에서 떠도는 영가를 천도하는 것이 진정한 방생이다"고 강조했다.



통일정진연대 백일맞이 다짐법회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위한 1000일 정진 불교연대는 8일 서울 대각사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첫 백일맞이 다짐법회'를 개최했다. 300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는 성태용 상임운영위원장의 진행보고, 수행담 발표(정토법당 윤태임, 우리는선우 김완), 금강선원의 바라춤, 장지현 평불협 상임부회장의 선언문 낭독 등으로 진행됐다.



3대 종교인 친선 축구대회

불교, 천주교, 원불교 등 3대 종교간 화합을 위한 친선 축구대회가 7일 성공회대학교에서 열렸다. 중앙승가대학 승륜회, 성공회 성우회, 성공회대 신학대학원, 원불교 교무회 등 4개 단체가 참가한 이날 체육대회에서 홍법(중앙승가대학 4학년)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이런 기회를 자주 가져 서로의 유대관계를 도모하는 것이 종교화합의 첫 단추"임을 강조했다.

"자연 해치면 자연도 사람 해쳐"

환경의 날 국민포장 받은 성타 스님



"인간과 자연은 둘이 아닙니다. 자연을 훼손하는 것은 곧 인간 스스로를 해치는 결과가 됩니다."

5일 제28회 세종환경의 날을 맞아 서울 세검문화회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국민포장을 받은 (사)대자연보전환경협회장 성타(불국사 주지) 스님.

스님은 지난 91년 반야환경보존회를 설립한 후 재활용 세탁비누쓰기운동을 전개하고 환경정보센터를 운영하는 등 환경보전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 단체는 지난 93년 7월 종교를 초월한 폭넓은 환경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대자연보전환경협회로 명칭을 변경한 후 같은 해 10월 사단법인으로 승격시켰다. 또 지난 95년부터 녹색에너지 가족운동, 녹색조명운동, 녹색모터운동, 녹색에너지 교통운동, 국가에너지 효율10% 높이기 운동에 참여하는 등 환경 친화적 생활패턴으로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오는 7월21에는 창립 10주년 기념으로 환경교육원 건립추진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성타 스님은 "생명을 존중하는 불교적 자연관에 입각해 환경문화운동을 시도하고 나아가 자연친화적인 삶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호 기자(yhlee@buddhapia.com)

한국 최초의 도량

덕룡산 불회사 관음대참회 수련생 모집

죄악은 본래 없어 마음따라 일어나니, 마음을 비울 때 죄악 또한 사라지네.
죄악도 마음도 모두 다 사라지면, 이것을 진실로 참회라 이름하네.

관음대참회 수련은 우리들이 과거에 지은 모든 악업을 마음으로 뉘우치고 몸으로 참회하여 죄업을 소멸하고, 참다운 성품을 발현하여 밝은 지혜를 이루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 일정표 (4박 5일)

차 수	기 간	모집 인원	대 상
1차	7월 8일(토) - 7월 12일(수)	50명	고등학생 이상 60세 이하 (남, 녀)
2차	7월 22일(토) - 7월 26일(수)	50명	
3차	8월 5일(토) - 8월 9일(수)	50명	
4차	8월 19일(토) - 8월 23일(수)	50명	

■ 신청서 작성법

※ 참가신청양식이 없이도 됩니다. 아래의 기재사항(1번-7번)을 A4용지에 기재한 후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하십시오. 단, 전화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1. 주민등록증 복사 2. 주소: 현재 거주지 -
3. 직업: 구체적으로 4. 전화번호: 직장, 자택, 휴대폰 사용 경우 번호기재
5. 수련법회 참가 경험 여부: 있는 경우에는 참가한 수련회 명칭기재
6. 참가하고자 하는 차수 7. 참가하고자 하는 이유

※ 참가비 없음
※ 준비물 : 세면도구, 가름한 속옷 (수련복 및 침구는 일체 지급함)

■ 문의처 전화: 종무소 (0613)337-3440,3446
전송: (0613)337-9400
단, 전송한 후 꼭 전화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처 전남 나주시 다도면 마산리 999번지 우: 520-862
덕룡산 불회사 관음대참회 수련원



태일대사 달마작품.
(대한민국 통일서예대전 입상 및 대한민국 동양미술대전 제11회 특선 작품)



순금골드 99.9 달마 지상

새천년 대운맞이 제58회 眞人道通 庚申大法會
새인류 진인도통에 동참하시여 사명자 도인되소서

후천미륵 달마법도의 경신년 경신법회 새천년의 천지 창조이래 태양의 순년의 빛 하늘의 음성 영혼의 심언을 하늘의 천문도법인 눈과 귀과 있어도 보고듣지 못하는 원방각에 감추어진 대비밀장인 해인도법을 최초로 만 천하에 공개하노라. 만법을 다 슬릴 수 있는 법을, 자성통으로

새천년부터 전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하늘 응조의 대비밀장임을 명심할지어다. 이 기도에 입문하는 자에게는 대인류의 스승이 되는 특별기도를 양력 6월 30일 7월 1일 토요일, 자시와 오시에 360세까지의 증상대운을 공개하오니 도통군자 사명자들에게 다시없는 상통천문 하달지리의 도통군자 잣대를 얻어 중운 180세 하운 120세의 천안통 숙명통에 도전하여 지구촌 일그러진 법도와 효충사상과 도덕이 땅에 떨어진 법도와 종교의 병,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을 제도할 수 있는 도통군자 연기법에 도전하시어 12식의 법장보살 즉 염라대왕을 제도할 수 있는 사명자 도인 되소서.하늘의 근본법도를 알재 못하면서 제멋대로 지끼리는 잡도에 끌리여 눈먼거북의 종행 동타죽음을 알지 못하고 도인족하면 하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이 법의 소식은 象·形·萬有 법의 잣대로 설계 법측, 법척 천공, 만요와 철학, 상수학, 물리학, 포상하, 원규학 각 5대 주문이 없는 것은 하늘의 권능으로 어떠한 도통도 불가하며 다만 잡진에 끌리여 억망진창을 왜 모르며 지각이 번동되었는데 하늘이 아무나 떠들어 대라고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냥있으면 명대로나 살것을 아는채 하다가 천벌 맞지말고 개과 천선하여 몸에 태산같은 중병과 욕심과 명에의 삼독을 벗고 먹지 않아도 살이 찌는 악병과 사람답게 사시는 진인육경신 도통은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지요?

특히 오월 법회는 천문이 열리는 달이므로 몸에 병과, 천병, 잡신, 살이찌는병과 도통군자들과 수명이 늘어나고, 먹는것 자유자재하며 육신을 보도하는 만법을 사사 받을 수 있는 법회에 동참하시여 소원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입 제 : 양력 6월 30일 밤 9시부터 7월 1일 亥時 시까지 양일
●회 비 : 일금 5만원 (1박 2일 간편한 복장)
●온라인 : 농협 029-01-167866 곽태일 선착순
●전 화 : 02) 821-6622/야 923-3110/ 016)239-3110
(1호선 노량진역 하차, 2호선 신림역 7번출구, 버스 85,25,95,26,303,26,142 모자원고개 하차)

雄祖院. 진인경신도통회 대한불교 약사선원 天龍眞人 泰日法師

진인육경신 도통으로 영과 혼을 담아그린 달마상은 언제보아도 눈과 몸이 보는이를 따라 다는는 신줄괴물한 비법은 새태양의 운기로써 흥한일을 당하려면 조용했던 집안이 시끄러 곳과 흉한터, 초상상문, 사업장, 이사 개입 노력해도 안되는 도통과 학업, 진학, 고시등 일체 마장을 소멸할 수 있는달마도상을 집에 소장하시고 지니시여 건강, 부귀영화, 수명장수 및 각종 경쟁에서 승리하시고 삼재소멸하소서

종단안정 헌신한 '참수행인'

입적한 진공당 탄성스님 행장

8일 이승의 몸을 벗은 진공당 탄성(眞空堂 呑星) 대선사.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이기 이전에 투철한 수행자였으며, 뭇 수행자들의 표상이었다.

1930년 10월 1일 충북 보은에서 태어난 스님은 1944년 어머니 손에 이끌려 계룡산 신원사에 갔다가 〈초발심자경문〉에 나오는 "사흘 닦는 마음은 천년을 두고 보배요, 백년동안 물건을 탐낸다 해도 하루 아침에 티끌이다"(三日修心 千載寶 百年貪物 一朝塵) 라는 구절을 듣고 절에 가서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부친이 타계한 후 모친과 형을 모시고 사는 처지라서 출가한다는 말을 감히 꺼낼 수 없었다. 1944년 10월 8일 계룡산 갑사 사자암으로 출가하여 행자생활을 시작했고, 1945년 3월 갑사에서 금오(金烏) 스님을 은사로 모시고 사미계를 받았다.

탄성스님은 수좌들이 '호랑이 스님'이라고 부르는 금오스님을 모시고 선방 수좌들의 뒷바라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참선공부에 몰두하게 되었으며 여러 선지식을 참방하여 절차탁마하였다.

1970년 금오스님을 모시고 청계사 주지를 역임하였으며 1972년 월산스님을 조실로 모시고 법주사 주지를 역임하면서는 법주사 총지선원의 외호와 발전에 매진했다. 1961년 수덕사 선원에서 하안거 이후 송광사 수선사, 현풍 도성암 선원, 문경 봉암사 선원등에서 17하안거를 성만했다.

이후 81년 폐사지나 다름없는 공림사 주지로 부임하여 가장 먼저 한 일이 선원(감인선원)의 재건이었다. 오로지 깨달음을 향한 정진의 도량을 열기 위한 것이었다. 은사인 금오스님의 영향이 컸다. "중이 글 공부하면 신세 망치는 줄 알라고 이르신 금오스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올바른 수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참선수행으로 용맹정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회고하며 "나도 수좌들에게 그대로 전하고 있다"며 언제나 참선수행을 강조했다.

조계종단이 큰 비바람에 흔들리는 돛단배의 지경에 처했을 때는 유능한 선장이었으며 항해사였다. 80년 신군부에 의해 자행된 10.27 법난 직후 정화중흥회의 상임위원장을 맡아 종단 안정의 기틀을 다졌다. 94년 당시 의현 총무원장 퇴진 문제로 불거진 분규 때는 개혁회의 상임위원장 겸 총무원장을 맡아 종단 개혁의 구심점 역할을 했다. 98년 11월 월주 총무원장 3선 시비로 빚어진 조계종사태 때도 수습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나 언제나 사태가 수습되고 새 총무원장이 뽑히면 곧장 수행처인 공림사로 내려가 수행에 전념했다.



◇94년 개혁회의 현판식 때의 탄성스님(현판 오른쪽 첫번째).

종단이 어려울 때마다 산문 밖으로 나온 이유를 묻는 질문에 스님은 "종단에 힘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나를 부르는 청을 외면하지 않았다. 산문 밖을 나갈 때나 지금이나 수행한다는 생각은 다르지 않다"며 수행자의 면모를 보여줬다.

90년대 들어서만 세 차례의 분규를 겪은 조계종과 불교에 대해 희망을 잃지 않았으며, 대중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다. 지난 해 4월 교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10년만 지나면 한국불교는 놀라울 정도로 변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껏 종단을 이끌어왔던 정화세대가 물러나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스님들이 종단 전면에 등장하는 시기가 바로 그 시기다"고 말했다. 오늘의 우리에게 스님의 이 같은 말은 경책의 죽비소리이며, 희망을 잃지 말라는 다독임에 다름 아니다.

출가를 발심케 했던 "사흘 닦는 마음은 천년을 두고 보배요, 백년동안 물건을 탐낸다 해도 하루 아침에 티끌이다"는 옛 스님의 가르침처럼, 소탈하고 검소하게 사셨다. 그 흔한 승용차도 갖지 않았으며, 긴 시간 법문하는 경우가 아니면 법상에 오르기를 사양했다. 겨울에는 털신, 여름에는 흰 고무신이 눈부셨다. 법어집 한 권 남기지 않았음도 말없는 경책이다. 94년 개혁회의 상임위원장 겸 총무원장 소임을 맡으면서 개인 일로 외출할 때는 시자를 물리치고 혼자서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한 일화는 유명하다. "사람들의 소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타인의 희생을 전제하는 것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한시적인 것이고요" 라는 말을 그대로 보여준 삶이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겨울 털신 여름 흰 고무신
평생 소탈·검소한 생활

잇단 종단분규 위기에도
"한국불교 희망있다" 낙관



◇지난해 12월말 대전 태전사에서의 탄성스님. 태전사를 창건하고 포교·정진도량으로 가꾸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임종게

山色人我相
산빛도 인아의 모습이요
流水是非聲
흐르는 물도 시비의 소리로다
山色水聲離
산빛도 물소리도 떠난 곳에
雙趺居平生
귀머거리도 벙어리도 평생을 살리라

약력

- 1930. 10. 1 충북 보은 生
- 44년 갑사에서 금오스님 은사로 득도
- 45년 화엄사 승가대학 졸업
- 55년 범어사에서 고암 스님 계사로 비구계 수지
- 61년 수덕사 하안거 이후 송광사 수선사, 도성암, 봉암사 태고선원 등 제방선원에서 17하안거 성만
- 70년 청계사 주지
- 72~76년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 74년 공림사 주지
- 75년 안심사 주지
- 76~82년 법주사 주지
- 80년 불교정화중흥회의 상임위원장
- 81년 공림사 주지
- 94년 개혁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겸 총무원장
- 97. 3. 10~ 원로회의 의원
- 99. 4. 2~ 원로회의 의장
- 2000. 6. 8 공림사에서 입적

어록으로 본 탄성스님 가르침

법어집 한권 남기시지 않고 훌쩍 우리 곁을 떠나신 탄성스님. 종단이 어려울 때마다 수습에 나섰다가도 안정되면 곧장 공림사로 돌아가 수행에 전념하며 후학들을 이끌었다. 몸소 보임으로써 가르침을 펼쳐 보였던 것이다. 본지의 '큰스님과의 대화'(252호, 2000. 1. 1)와 '수행한담'(176호, 98. 6. 3) '지상법석'(103호, 96. 11. 20) 등을 통해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겨본다.

▶우리 모든 존재는 본래 광명 속에 삽니다. 광명 속에 살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 이대로가 바로 광명입니다. 그런 광명을 보지 못하고 눈감고 헤매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마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극락에 가면 너무 즐겁고 호화스러워 공부할 생각이 나지 않고, 지옥에 가면 너무 고(苦)가 심해 공부할 생각을 낼 수가 없으며, 축생에 떨어지면 어리석기 때문에 도(道)가 무엇인지도 생각할 수조차 없습니다. 수행하기 좋은 인간의 몸일 때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계를 잘 지니면서 참선 염불 등 수행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신심이 납니다. 그 증거가 실제 생활 속에서 나타납니다. 내가 누구에게 얘기 듣지 않아도 또한 책을 보고 찾지도 않았음에도 스스로 느껴지고 알게 되며 항상 마음이 너그러워집니다. 한마디로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출가사문의 뜻은 깨우침에 있습니다. 자기 수행을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출가 때 마음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포교도 해야 하지만 자기 마음을 깨우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각자가 맡은 일을 충실히 하며 자기수행에 전념하길 부탁합니다. 나의 은사인 금오스님은 늘 행주좌와 어묵동정(行住坐臥 語默動靜)이 모두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도 수좌들에게 그대로 전하고 싶습니다.

▶해와 달이 밝아서 우주를 비추는데 친소도 없고 원근도 없이 어느 곳이든지 똑같이 비춥니다. 그런데 해가 뜰 때는 가장 높은 봉우리를 먼저 비춥니다. 우주를 평등하게 비춰주는 해와 달이 차별을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해가 뜨다보니 가장 높은 봉우리를 먼저 비추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특정인만을 제도하려 하지 않지만 제일 먼저 착하고 신심있는 사람을 먼저 제도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법문도 많이 듣고 경전도 많이 읽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법문을 많이 듣고 경전을 많이 읽는다 하더라도 스스로 행하지 않으면 이익이 없는 법이지요. 듣고 읽는다는 것은 불교와의 인연은 될지언정 도를 깨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경을 글로 보면 알음알이를 토대로 언어를 희롱하고 마음을 가식하여 진리를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속된 습성은 경의 가르침을 출세와 명예의 도구로 전락시킬 위험으로 연결되는 것이니 경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엇이냐를 생각하는데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의 쓰임을 온유하게 하고 맺히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은 살아가는 과정에서 늘 해야 하는 수행입니다.

▶삶이 힘들고 허망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무궁한 법이 있고 그 법을 알면 최상의 열락이 있으니 열심히 참선하여 마음자리를 흐트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런 가운데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 마음자리를 편케 하는 것이 참선이고 내 몸을 안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둘 다 중요한 불자들의 실천사항입니다. 누구에게나 성불의 가능성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루 하루 마음자리를 잘 조절하여 편안케 하고 몸을 함부로 하지 아니하여 좋은 인연의 실체를 영위하는 지혜를 가꿔야 합니다.

▶불교를 어렵다고 합니다만 세수하다 코만지기 보다 쉬운 것입니다. 해인사에 있는 팔만대장경이 모두 수행 방법에 대한 기술이지요. 자기 마음을 닦아 그것을 깨치는 것이 불교인데 모르니까 어렵다고 단절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불법에 개혁이란 있을 수 없지요. 다만 시대적 문화적 환경이 변했으니까 그에 알맞는 제도를 보완하고 잘못된 점을 고치는 것이거나, 불법의 정신을 이 시대에 꽃필 수 있도록 사람들의 의식을 전환하는 것이 개혁이라 봅니다.

▶조선시대 이래 한국불교사는 굴곡의 역사입니다. 원인은 스님들의 수행이 부족했던 데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승단의 자기 반성이 절대 부족했던 점도 한 원인이지요. 이제 승단이 교육에 힘쓰고 대중교화에 노력한다면 한국의 역사 속에서 사상적 윤리적 지남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본래 광명속에 사는 존재
법문 듣고 실천 안하면 소용없어

※ 지면사정으로 '일터에서 쓰는 마음의 편지' 쉽니다.

天蓮 토종 오가피의 신비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氏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다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事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줌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延年 不老 仙經藥也(연년 불로 선경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행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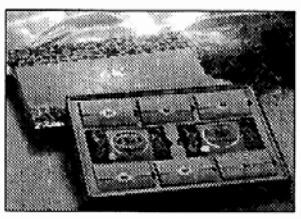
■흉내낼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현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요.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상담 : 02)447-5300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항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악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체험사례

생리통 · 기미

33세된 가정주부입니다. 저의 경우는 약15년동안 허리진통으로 늘 고생해왔고 특히 그 진통으로 인해 저녁엔 깊은 잠이 들지 못하고 깨어있어야만 했습니다. 정형외과, 산부인과, 지압 · 교정등 치료방법을 해보았지만 진통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우연히 향비를 알게 되었고 향비를 착용한 5일째부터 신기하게도 단 한번의 진통없이 아침까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향비의 착용이라는 것은 생각않고 피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며칠을 두고 관찰해 보니 향비사용으로 저는 생리통이 심하고 색은 아주 검고 양이 패드에 묻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향비를 사용한 그달에 생리의 결과는 놀랍게도 생리통이 없어졌으며 색도 아주 맑고 개끗해 짜증이 나지 않았고 물론 허리의 진통도 감소되었고 양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좋은 향비를 개발해 널리 보급한 고려물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포시 금정동 장 영 희)

해당되는 증상에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고려물산·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사 설

민족공동체본부에 바란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가 발족되었다. 이는 조계종단이 눈앞에 다가온 통일 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그동안 최대의 종단이면서도 통일문제 등 민족이 하나되는 미래에 대해 상대적으로 기여도가 부족했던 것이 조계종단의 현실이다. 그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것 중의 하나가 북한과의 교류에 있어 고정된 창구가 없어 지속적인 접촉을 통한 신뢰를 쌓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조계종의 행보에 큰 기대와 환영을 표하면서, 이 기구가 남북 문제에 대한 단일 창구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민족의 밝은 미래를 가꾸어내는 산실이 되기를 희망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불자들의 통일의식을 고양시키고 집약하는 내적인 활동이 우선돼야 하며 일개 단체와 같은 위상으로 조그만 가시적인 성과를 탐하지 말고 진정한 통일운동의 토양을 형성하여 갖가지 통일 운동이 꽃을 피우고 통일 역군들이 배출되도록 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힘들을 결집하여 불교계의 다양한 통일 운동들이 각각 제자리를 찾으면서도 공통된 지향점을 갖도록 하는 지도적 위치를 지닐 필요가 있다.

민족공동체추진본부는 종단의 대표성을 갖는 기구라는 위상이 있기에 다른 통일 운동 단체와 달리 큰 힘을 지닐 수 있다. 우선은 전국의 사찰에 통일운동의 기본 지침을 제공하고, 그 지침을 바탕으로 힘찬 통일의 염원이 움터 나오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 분단 현실이 우리 민족에게 주고 있는 괴로움을 여실하게 드러내고, 그 괴로움을 극복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근본 이념인 '이고득락'의 현실적인 목표임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그 괴로움의 극복을 통해 보다 나은 민족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이 바로 불세계 실현의 과정임을 천명하여야 한다. 우리 개개인 속에 적대적인 의식 등으로 잠재되어 있는 분단의식의 극복없이는 개인적인 해탈도 불가능함을 밝혀, 개인의 수행과 공동체 형성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불교적 이론틀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거시적인 작업 위에서 통일에 대한 불안 의식을 극복하며, 북한돕기 운동 등을 통해 남북한의 신뢰를 쌓고, 그것이 통일 뒤의 빛나는 민족 공동체 형성의 밑거름이 되게 하는 일이 바로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의 긴 여정이다. 온 불자들의 기대가 걸린 만큼 그 책임과 사명도 크다.

훼불, 편협한 종교이기주의

훼불사건이 또 발생했다. 그것도 지성의 전당이라 불리는 대학 내에서 벌어졌다. 대학 내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우선 개신교신자 학생의 소행으로 조심스럽게 추측해 본다. 종교적 신념은 신앙인에게 있어 길이며 희망이며 생명 같은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여러 종교가 있고 사회적 규범도 있으므로 그 신념을 표현하는 데는 절제와 상식이 요구된다. 종교의 자유, 신앙의 표현이라 해 폭력과 몰상식을 통해서라도 무작정 실현시키려 한다면 그런 종교는 이미 세상을 구원하는 종교가 아니라 갈등과 파멸을 초래하는 종교가 되고 말 것이다. 그것은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교관련 전쟁들이 입증하고 있는 터이다.

이번에 동국대에서 벌어진 훼불사건은 우리를 분노하다 못해 서글프게 한다. 최근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이웃종교들이 축하메시지를 보내오는 등 종교간에 일고있는 화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의 몰상식한 행동이 얼마나 우리 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파괴하고 그들이 목적하는 선교에 역행하는 것인지를 깨닫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경찰에서 지금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하나 결과가 명쾌하게 나타날지 의문이다. 경찰은 훼불사건이 있을 때마다 우범자나 정신이상자 소행으로 추측된다는 입장을 밝혀왔는가 하면 종교갈등 문제로 바라보아 폭력이라는 사회적 해악을 발본색원한다는 자세보다는 마치 종교갈등에 깊이 간여하고 싶지 않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신앙의 자유, 선교의 표현을 보장한다는 미명아래 이런 광신적 폭력만행행위를 방조, 용인하려는 경찰당국의 태도가 이런 일을 계속 조장시키고 있다는 점을 각성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동안 동국대에서는 개신교학생들의 동아리연합회 가입을 두고 갈등을 빚어와 이번 일이 이와 관련된 것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는 줄 안다. 따라서 동국대 당국에서도 타대학 경우를 참고 가능한 학생들의 활동을 보장해 주되 훼불사건이 발생할 경우 단호하게 대처하는 방향으로 전향적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안다. 예컨대 이같은 훼불사건이 발생하면 향후 몇 년간 동아리연합회 가입이나 활동을 제한하며 가입이 받아들여져 활동할 때라도 이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하면 향후 몇 년간 가입을 취소하고 활동을 제한시키는 등의 내규조치를 마련하면 좋을 것이다.

게놈 프로젝트와 불교 생명관

① 유전자 조작, 인간존엄 파괴인가

② 불교적 관점에서 본 유전자 조작

③ 현재의 행위(業)가 중요하다

정신적·육체적으로 완벽한 인간을 실현할 목적의 게놈 프로젝트가 인간 유전자(게놈) 지도 공개로 곧 그 모습을 드러낸다. 이 유전자 지도를 근거로 각종 난치병 치료는 물론 생로병사의 비밀도 벗겨지게 된다. 하지만 인간의 생물학적 특성을 바꾼 '맞춤인간' 시대가 도래하는 등 윤리·도적적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과학의 기술이 빚은 인간생명에 대해 불교는 과연 그 존엄성과 자연성을 인정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인간생명의 가치는 궁극적으로 어디에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본지는 세 차례에 걸쳐 전문가의 견해, 교리적 해석 등을 통한 불교적 시각에서 '게놈 프로젝트'를 조명해 본다.

찬성 **"불치병 치료" - "맞춤 인간화"** 반대

●게놈 프로젝트의 목적과 문제점

인체게놈(유전자)이 완벽하게 분석되면 면역체계를 조절하는 우전자 기능을 알아냄으로써 암은 물론 치매나 당뇨, 우울증이나 정신분열증에서부터 에이즈까지도 정복할 수 있다고 과학자들은 말한다. 바이러스성 질환도 해당 바이러스와 반응하는 유전자를 찾아 기능을 조절하거나 교체해 버리면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게 된다. 또 인공 장기를 예비 부품처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게놈 프로젝트는 바로 오래 살고자 하는 인류의 오랜 소망을 이뤄낼 목적으로 시작됐으며, 그런 인류의 꿈은 이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대로라면 가까운 미래에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유전형질이 제거되거나 교체된 아이를 낳는 날이 올 것으로 과학계는 예상하고 있다. 즉, 맞춤인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인공 장기에 인공 자궁, 인공 망막, 전자 코 등 인체 어느 부위든 원하는 대로 갖출 수 있게 되고, 심지어는 뇌의 복제까지도 이뤄지게 된다. 2030년쯤으로 예상되는 두뇌의 상세지도 완성은 이 설계도를 바탕으로 컴퓨터가 인간 지능을 복제하게 되고, 따라서 원할 경우 수백만 배 강화된 '뇌'를 가질 수도 있게 된다. 21세기 인간은 자신과 기술을 섞은 새로운 종(種)이 된다는 의미다.

뿐만 아니다. 유전자 조작을 통해 '우월한 계급'과 '그렇지 않은 계급'으로 나뉘는 이른바 '유전자 계급 사회'가 도래할 수도 있다. 열등 유전자를 몰아내 인간특성을 '개조'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곧 인류가 경제력에 따라 계급이 나뉘는 것을 의미하며, 열등한 인간은 살아남기 어렵게 된다. 또 인간복제술의 상업적 이용이 횡행하고, DNA 컴퓨터와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들이 개발되면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고 첨단기계로만 구성된 기업들도 속속 생겨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게놈 프로젝트가 목적했던 것과는 반대로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가치는 파괴되게 된다.

●윤리·도덕적 문제

유전자 조작은 '자연'과 '사회'의 경계가 무너짐을 의미한다. 과학적 기술이 개입된 사회가 자연의 결정권에 해당됐던 '생명의 탄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유전공학은 생물체에 주어진 유전형질을 인위적으로 변형 개조하여 새로운 형질을 가진 생물체를 만들어 냄으로써 생물의 종(種)과 속(屬)의 차이를 없애게 된다.

유전공학에서는 모든 생명체의 생로병사와 인간의 희비애락은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유전공학이 보다 완전한 인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 존재를 불완전하게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전공학에서는 인간이든 어떤 생명체든 극복과 보완의 대상이며, 인위적인 조작이 가해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이렇게 볼 때 인간의 생명이 존엄하다는 관념은 유전공학에서 볼 때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가설도 성립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유전공학의 생명관은 '유전자 결정론'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불교의 생명관은 이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불교에서는 생명의 탄생과정을 태생(胎生·모태에서 태어나는 것)·난생(卵生·알에서 태어나는 것)·습생(濕生·습기로 태어난 것)·화생(化生·다른 것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 태어나는 것)의 사생(四生)으로 분류하고, 이들 육취중생이 그 생명의 탄생과정과 관계없이 존중받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즉 생명의 기원보다는 생명에 대한 사랑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생명은 그 자체로서 존중되고 존엄성을 인정받기 때문에 계급은 아예 인정되지 않는다. 어떻게 태어나고 어떤 유전자를 받았느냐 보다는 어떻게 사는가의 문제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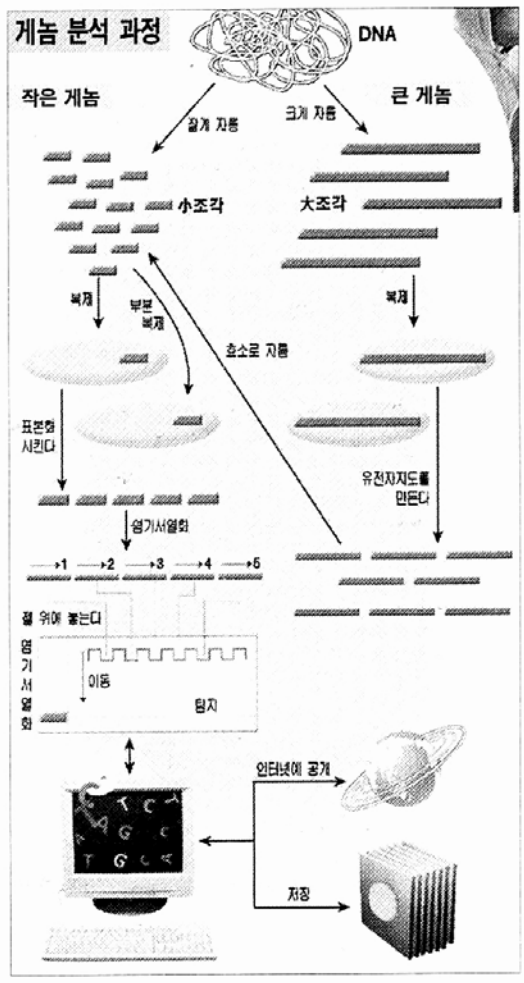
인간 유전자지도 곧 공개
2030년 인간지능 복제
불교적 시각 찬반 양론

그러나 서로 다른 생명관과는 달리 불교적 관점에서의 윤리·도덕적 문제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의견이 서로 맞서고 있다.

우선 탄생과정에 개의치 않고 모든 생명체를 소중히 여기는 불교가 단순히 유전자 조작행위에 윤리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유전자 조작이나 생명복제가 한 생명 속에 만 생명이 깃들어 있다는 불교적 관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유전자 조작이라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느냐는 '정신적 문제'라고 지적한다.

반대로 생명질서를 유지하는 다르마의 원리, 즉 연기와 윤회의 법칙을 파괴하며, 인간의 실체가 부정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또 아직 결과도 모른 채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는 '교리적 해석 유보'의 입장을 취하는 학자들도 있다. 기본교리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만 생명공학을 통해 기대되는 선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게놈이란

DNA 담고있는 염색체 세트

'게놈(Genome)'이란 유전물질인 디옥시리보핵산(DNA)을 담고 있는 그릇에 해당하는 염색체 세트를 의미하는 것으로 유전자(gene)와 염색체(chromosome)를 합성한 용어. 'genome'을 독일식으로 발음한 것으로, '게놈 프로젝트'란 생명체의 DNA 서열을 모두 밝히려는 계획을 말한다.

인간게놈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각각 쌍으로 된 23개, 즉 46개의 염색체로 구성돼 있으며, 인간게놈의 염색체 속에는 약 30억개의 DNA염기쌍이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 키, 피부색, 생김새 등 외형적 특성의에 성격과 소질 등의 유전형질이 결정된다.

남여 정토불교 수강생 모집

▣ 기본과정 (3개월)

불교학교리(반야심경, 불교성전)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 불교예절(교양 상식 계행 언행) 사미율리 초발심 자경의 해설
- 신도5계 득도수계 입실건당 보살계 비구비구니계 해설 및 수계
- 시달림법(망출 위패 작성 독경 염불) 반혼1재~6재 천도 발인 화장 매장
- 49재(시련 대령 관욕 지장청 시식 봉송 소대)
- 법당 불상 탱화 연단 및 불기구 배치법
- 목탁석 종성 예불기도 축원법 좌선법(간화선 묵조선 선학역사)
- 불공 기도 축원법(삼보통청 관음지장신중 산신 칠성 독성 발원)
- 목탁 요령 죽비 징종 사용법 신중작법 구병시식 관음시식 상요영반
- 화엄시식 종사 영반 점안식 삼재풀이 화혼식 원에 따라 수계식 봉행
- 불교교리 및 불교 역사 중요골자 발취 강의 납골 개설 사업 운영등

◈모집인원 : 27명(선착순) ①교리반 9명 ②사물반 9명 ③포교반 9명
◈원서접수 : 현재 접수중
◈개강일시 : 매월 1일 11일 21일 개강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서방정토극락세계 교육도량으로 수료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 제공
※ 초심자, 승니, 재가, 불교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함
◈월 회 비 : 백미한가마(숙식제공)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926-27(나드리프라자 4층)
한국불교 정토종 불교대학
전화 032) 543-2693~5

금선학회 수련회

왕리핑(전진도 용문파 18대 계승자)선생으로 부터 직접 전수받은
"영보통 지능내공법" 한국 최초 공개

"慧命經, 대성첩경의 저자 유화양 禪師를 깨달음에 이르게 한 수행비전"

유화양선사(9대 계승자)께서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는 법을 찾아 중국 전역을 헤매시다 호운 老師와 오충허 眞人(8대 계승자)으로 부터 法을 전수받아 수행하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法輪과 천백억 化神의 실체", 몸과 마음이 허공과 같아 진리와 하나되는 경계를 몸소 이루게 한 최상승 수련비전.

영보필법은 1년을 수행하면 1년의 증험이, 3년을 수행하면 3년의 증험이, 그리고 10년을 수행하여 大成에 이르게 하는 "漸修漸進 수행법"이며, 상근기는 물론이고 중·하근기의 중생이라도 영보필법의 수련체계(몸과 마음을 동시에 닦는 性命雙修 수행법)로 꾸준히 수행하면 반듯이 최상승의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완벽한 修眞體系입니다.

수 련 내 용

1)오장육부의 기운을 조화롭게 이끌어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법
2)북두칠성과 인체의 기운을 상응시켜 천체우주로 我를 확대해가는 법
3)몸과 마음을 동시에 수련(性命雙修)하여 본성품에 이르는 법
4)慧命(法眼, 佛眼, 天眼)수련을 통하여 法界 진리을 깨닫는 법

◆수련의 효과
1)정신적 : 불면증, 우울증, 각종 스트레스, 노이로제, 화병 등
2)육체적 : 만성피로, 변비, 만성위장병, 심장질환, 신장병, 비만, 고혈압, 간경화, 오장의 부조화, 냉병 등
3)수 행 : 참선수행시 졸음방지 및 잡념제거, 삼매체험(字我一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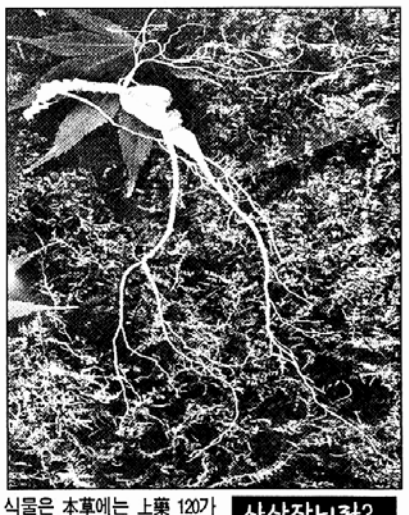
◆수련일정 및 장소
1일 시 : 1차 2000년 6월 3일, 10일, 17일, 24일 (오후 2시 ~ 5시)
2차 2000년 6월 20일(화) ~ 24일(토)
20일 ~ 23일(오후 6시30분 ~ 8시30분), 24일(토) (오후2시)
2장 소 : 세계금선학회 본원(사당역 부근)

세 계 금 선 학 회
서울 서초구 방배2동 441-1 은혜빌딩 6층 (02)5^2-7057, 7233(팩스겸용)
(http://www.myhome.sinbiro.com/~kumsunac)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에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新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쳐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한국생약보존(산삼) 연구협의회
서울「장뇌산삼」사업부

불교 캐릭터 인기 '상한가'

최근 종단을 비롯해 개별 사찰에서까지 캐릭터를 개발, 적극 활용하면서 교계의 새로운 문화현상으로 자리잡고 있다.

봉은사가 새로운 불교이미지 만들기 작업으로 전개한 십이지신, 아기부처, 동자승, 달마 등 불교캐릭터를 개발하고, 진각종이 종단이미지 통일화 작업의 일환으로 종단 심벌과 죽비캐릭터를 선보이는 등 친근한 이미지로 대중에 다가가는 불교 캐릭터 개발이 붐이다. 부산 해동용궁사도 지난해 목탁을 들고 있는 귀여운 용 캐릭터 도리를 만들어, 불자와 지역민에게 호감을 주는 불교사찰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 이제 사찰 홍보비디오에도 캐릭터가 등장하고, 부처님 오신날에도 캐릭터가 주요한 포교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캐릭터를 이용한 이미지 전달과 불교알리기가 본격화된 것이다.

선재동자, 아기부처님, 연꽃 등으로 대표되는 불교캐릭터에 대한 관심은 80년대 후반 어린이·청소년 포교활동의 활발한 움직임에 힘입어, 90년대 중반부터 하나둘 선 보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연꽃이나 만자, 동자 등을 단순히 상품 디자인에 응용한 정도였으나 점차 불교의 이미지를 보다 친근하게 전달할 수 있는 쪽으로 개발되면서 다양화됐다.

종단-사찰 포교방편 활용

버튼·부채등 팬시상품 다양

94년 선재마을이 선재동자 관련 캐릭터 상품을 선보인 이후, 96년에는 조계종 봉축위에서 아기부처와 동자를 모티브로 한 봉축 캐릭터를 도입해 부처님 오신날 홍보에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후 전문 불교캐릭터 개발업체인 불교나라, 와이드스코프, 선우, 씨앗과 바람, 한국불교어린이포교회 등에서 잇따라 독자적인 불교캐릭터와 상품을 선보이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졌다. 불교캐릭터 개발과 더불어 이들 캐릭터를 이용한 다양한 괜시 상품들도 선보이고 있다. 핸드폰 줄에서부터 스티커, 티셔츠, 열쇠고리, 버튼, 부채, 인형, 컴퓨터 마우스 등 신세대불자라면 불교캐릭터 상품 한가지쯤은 갖고 있을 정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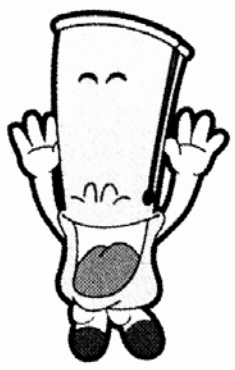
◇지난 부처님 오신날 대구 남구 사회복지관에서 펼쳐졌던 캐릭터를 이용한 아기부처님 협동화 그리기대회.

그러나 이들 대부분의 불교캐릭터와 캐릭터 상품은 부처님 오신날을 전후로 한 반짝 경기 때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홍보하고 판매할 유통경로가 확립돼 있지 않아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큰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단순한 상품으로서가 아닌 문화포교방안으로 불교 캐릭터 상품에 대한 인식전환을 통해 장기적으로 개발하고 투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일부 캐릭터들의 일본 스타일 모방도 창조적인 캐릭터 창작을 위해 지양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캐릭터를 출판만화, 애니메이션, 컴퓨터게임 등에 도입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도 앞으로의 과제다.

이은자 기자(ejlee@buddhapia.com)



◇조계종 봉축위의 '아기부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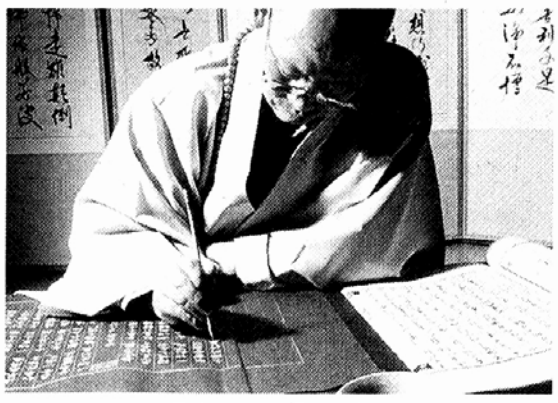
◇진각종의 '죽비' 캐릭터.



◇해동용궁사의 캐릭터 '도리'.



◇와이드스코프의 '제석천'.



◇금니 사경에 몰두한 원응스님.



◇15년간의 결실인 〈화엄경〉금니사경.

한획 한획 묻어나는 '부처님 향기'

원응스님 화엄경 금니사경전

15~24일 부산서 전시
15년동안 60만자 사경

15년 동안 화엄경 60여만자를 금가루로 옮겨 적은 '〈화엄경〉 금니 사경전'이 열려 화제가 되고 있다.

지리산자락에서 평화통일을 기원하며 〈화엄경〉 금니 사경을 해온 주인공은 바로 벽송사의 원응 스님. 스님은 15년 동안 80여권의 화엄경 금니 사경을 회향하고, 15일부터 24일까지 부산 국제신문 문화센터에서 전시회를 갖는다.

〈화엄경〉 금니 사경 80여권 외에도 〈금강경〉, 〈부모은중경〉, 〈아미타경〉, 〈원각경〉 등 일반인들에게 익숙한 경전을 위주로 한 작품 80여 점이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스님이 〈화엄경〉 금니 사경을 한다는 말을 듣고 동참 발원을 해온 불자들과 금니 사경 경전 친견하길 원하는 사람들의 절실한 요청으로 열게 되었다고.

스님은 오자와 탈자를 없애기 위해 봉은사판 〈화엄경〉을 원본으로 고려대장경 화엄부, 신수장경, 중국장경 등을 참조하여 확인 작업부터 시작했다. 그리고 먼저 먹으로 한 질을 사경하고 먹으로 쓴 것을 옆에 두고 1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일심으로 중생들의 평안을 기원하며 금니 사경을 해왔다. 또한 전주에서 금니 사경용 한지를 특별 주문제작, 옛 경전의 모양을 재현하여 가치를 더욱 높였다.

조계종 종정 혜암 스님, 총무원장 정대 스님도 이번 〈화엄경〉 금니사경을 역사적인 일로 평가하고 있으며, 획마다 부처님의 향기가 묻어나는 원응 스님의 작품은 부산전시에 이어 전국 전시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원응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대신하는 경전을 통해 맑은 정신세계와 진리를 찬탄하고 환희심을 맛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천미희 기자(mhcheon@buddhapia.com)

"탑의 모든것 강의해요"

EBS '세상보기' 12·19·26일
정영호 교수 '우리 석조미술…'

'탑은 언제부터 만들어졌을까'.

불자라면 한 번쯤 가져 봤을 석탑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안방에서 칠판식 강의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반평생 석조미술만을 연구해 온 정영호교수(前 한국교원대 박물관장)가 12일부터 EBS-TV '세상보기' 프로그램의 강사로 나서 '우리 석조 미술의 미'를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26일까지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20분에 방영되고 있는 이 프로에서는 한국탑의 기원을 비롯 목탑에서 석탑으로 바뀐 유래, 통일신라시대의 석탑 양식 등이 소개된다.

12일 방영된 '목탑에서 석탑으로'에서는 4세기부터 6세기에 걸쳐 활발하게 조성됐던 목탑의 건립과정과 함께 7세기로 넘어가며 고개를 들기 시작한 석탑 불사 과정을 설명했다. 특히 이 시기에 조성돼 현존하고 있는 '익산 미륵사지석탑'과 '부여 정림사지 석탑'을 예로 들어 이 탑들의 예술과 문화재적인 가치를 알기 쉽게 조명했다.



◇EBS-TV는 '세상보기' 프로그램에 정영호 교수를 초청, 한국 석조미술의 역사를 조명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19일 방영될 '석탑의 융성기, 통일신라' 편에서는 불국사, 석굴암, 실상사 등 독특한 아름다움을 꽃피웠던 통일신라시대 석탑 양식의 특징과 그 예술성을 생생한 자료화면을 통해 소개한다. 이외에도 26일 '석탑의 시대적 개성과 아름다움'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에 이르는 석탑의 특징한 양식을 시대별로 비교해 우리나라 석조미술의 총체적 맥을 짚어본다.

김주일 기자(jikim@buddhapia.com)

전통다도로 한국불교 소개

한마음선원 독일지원

문화적 자긍심이 강한 유럽인들에게 한국의 차가 매력적인 동양의 문화로 인식되는 행사가 독일에서 펼쳐졌다.

한마음선원 독일지원 선다회는 3일 독일 함부르크 성마리아 성당에서 열린 카톨릭인의 날 행사에서 한국 전통다도를 선보여 한국문화에 대한 큰 호응을 불러 일으켰다.

이날 행사에서 선다회 회원들은 섬세한 손동작과 몸짓으로 다도의 기본법인 행다, 사찰에서 예불중에 올리는 헌다, 혼례식에서 신랑신부가 정성으로 차를 올리는 헌례다도, 차와 명상을 하나로 이끌어 내는 선다 등을 선보였다. 또한 한마음선원 독일지원장 혜진 스님이 차의 효능과 유래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독일인들의 이해를 도왔으며, 차 시음 시간에는 한국의 차 맛을 음미하려는 독일인들이 한꺼번에 무대로 몰려들어 한국 차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였다.

다도 시연에 참석한 함부르크 대학의 크레프트 교수는 "한국의 차가 이런 깊이와 매력을 갖고 있는지 몰랐었다"면서 "한국의 전통문화는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깊은 뿌리가 있는 것 같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종소기업청 선정 최우수 아이디어 제품

COOL BAG 물병가방

휴대용 냉장고로 한여름을 시원하게!!

▶ COOL BAG 물병 가방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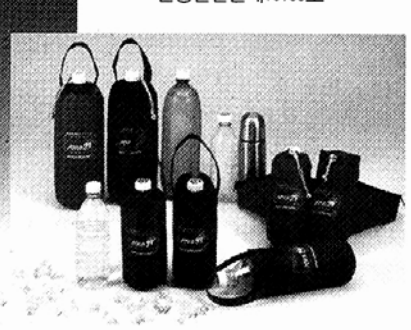
섬유를 이용하여 반영구적으로 사용할수 있으며 얼린 물병과 외부온도차이에서 줄줄 흐르는 물방울. 즉, 이슬현상(결로현상)을 방지하여, 학생은 물병을 책가방에 넣어 다녀도 책이 젖지 않고, 자가운전자 및 야외활동이 많은 사람은 하루종일(최대15시간) 시원하게 물을 마실 수 있어 좋다. 또한 부피도 작고, PET병을 사용하므로 자원을 재활용하는 시너지 효과도 매우 높다.

▶ 사용법

· PET 병에 물을 2/3 정도 채운다.
- 전체를 얼릴 경우 얼음이 빨리 녹지 않아 마실 수 없습니다.
· 냉동실에 넣어 얼린다. (24시간 정도)
- PET병 2개를 교대로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얼리는 물의 양은 야외에서 활동하는 시간에 따라 조절
· 사용할 때 나머지 1/3정도 물을 채운다.
· 물병가방에 넣는다.
- 물을 마실 때 편리 하도록 마개 부분은 완전히 들어가지 않도록 제작.

▶ 이슬 맺힘 없이 최대 15시간 보냉!!





▶ 특허
실용신안원제10795호

▶ 제품의 종류
· 0.5L용: 8,000원(PET 병 포함)
· 1.5L용: 12,000원
· 벨트쌕: 20,000원
· 색 상: 자주색, 청색, 검정색, 카키색

▶ 제품문의
☎ : 0351)874-2160/2352
E-mail : joia21@hanmail.net

▶ 계좌번호
· 농 협: 201016-52-070562
· 우체국: 100735-0068893
예금주 : 정연길

WOOJUNG 우정산업

스님께서 직접 만든 명가의 명향

釋氏香方 五分香·生氣香

석씨향방은 순수한 향약재료로만 만듭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최고의 공양인 오분향과
어떠한 장소와 행사에도 쓰이며, 특히 건강을 지켜주는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五分香 …

- 효능: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열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 용도
  - 불보살께 예불 기도할 때(향공양을 올려놓고 오분향게를 한다)
  - 제사 지낼 때(천신·지신·조상)
  - 불결한 장소를 깨끗이하고 싶을 때(악취가 나는 곳)
  - 공포를 느낄 때(사기·요마·귀신·도깨비 등)
  - 조상의 명복을 빌때(상갓집, 영안실)



生氣香 …

- 효능
  -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집중이 잘 되며, - 마음이 안정되고
  - 수면이 순조롭고 피로하지 않습니다. -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 당뇨·중풍·폐·간·심장을 다스리는 대표적인 한약재를 첨가하여 더욱 향의 질을 높이고 향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 용도 - 공부할 때, 집안에 악취가 날 때, 건강을 원할 때
  ※ 관불의식, 관욕의식 (목욕 재개향) 있습니다.

계좌번호 : 국민은행 059-24-0341-970
농 협 071-02-257470 예 금 주: 김정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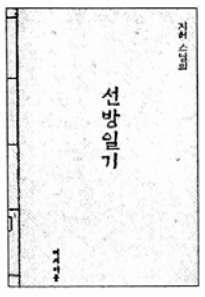
▶ 전화주문도 가능
▶ 대리점 및 주부 판매사원 모집

☎ 02)3446-8148, (02)3446-5889 공급자: 석씨향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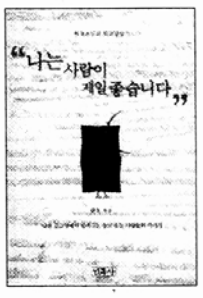
일기로 보는 절집생활 '감동과 재미'

체험담 중심 글맛나는 서술
행간엔 계행과 청정심

지허스님 '선방일기'



원욱스님 '나는 사람이…'



영담스님 '동승일기'



지묵스님 '산승일기'



일기체의 불서가 불교 출판가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들어 동자와 선방, 그리고 포교당의 시시콜콜한 일상부터 수행자로서의 고뇌와 열정을 일기체로 적은 스님들의 이야기가 속속 출판되면서 현대인들의 고단한 삶에 위안이 되고 있다. 내용들은 대부분 순수와 청정심이 깃든 스님들의 사생활로, 수행자 또한 한 인간으로서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살갑게 파고든다.

도서출판 여시아문이 내놓은 〈선방일기〉가 대표적 사례. 이 책은 70년대 상원사 선방에서 동안거를 지낸 지허 스님이 쓴 일기로, 뒷방의 야사, 소임, 선방의 일과, 선객의 고독, 별식에 얽힌 이야기 등 3개월 동안의 선방 생태와 풍속을 솔직 담백하게 적고 있다. 이로 인해 속세의 삶과 무관하게 사는 듯한 스님들의 선방생활에 궁금했던 독자들에게 '아하! 선방생활 이렇구나' 하는 공감대를 형성, '스님일기' 붐에 불을 지폈다. 값 5천원.

이러한 바람은 철부지 동자승의 행자생활을 담은 영담 스님의 〈동승일기〉(들녘), 원욱 스님의 포교당 일기 〈나는 사람이 제일 좋습니다〉(민족사), 지묵 스님의 〈산승일기〉(우리)로 이어지고 있다.

영담(부천 석왕사 주지) 스님의 행자생활을 적은 〈동승일기〉는 제목부터 눈길을 끈다. 편지 한통 들고 김천 청암사를 찾은 13살의 철부지 소년, 행자생활을 시작하지만 어느 것 하나 녹록하지 않다.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화들은 때론 가슴 뭉클하게, 때론 폭소를 터뜨리게 한다.

화장실 벽에 잠깐 기대어 졸다가 새벽예불에 늦기도 하고, 꿀을 훔쳐먹다가 큰스님께 혼이 나면서 절집 생활에 익숙해져 간다. 특히 추운 겨울날 대중 스님들의 꼬임에 빠져 비구니 스님들의 신발에 물을 부어 꽁꽁 얼린 일이나, 처음 본 라면을 어떻게 끓이는지 몰라 면발이 손가락만해지도록 푹 삶아 내놓은 일 등은 코끝이 찡해오는 아릿한 웃음을 동반한다.

이처럼 이 책은 60년대에나 있었을 법한 해프닝을 소재로 하고 있어, 30대 이상의 독자들에게는 곤궁했던 한 시절에 대한 향수에 젖어들게 한다. 값 8천5백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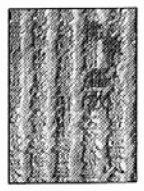
〈나는 사람이 제일 좋습니다〉는 원욱 스님이 도심에서 처음으로 포교당을 열때의 일기로,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세상사를 비구니 스님 특유의 정갈한 문장으로 그려내고 있다. 책의 첫 부분을 펼치면 포교당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스님의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진다. 이른 아침 서울 방화동의 어느 골목, 포교당 마련을 위해 온종일 복덕방을 찾는다. 하지만 비싼 임대료 때문에 뒤돌아서기를 반복한다. 결국 한 달만에 월세 계약을 하지만 마음이 내키지 않아 마을을 서성이다 한 아이를 만난다. "정말로 스님이 맞나요." "왜 스님을 처음 보니." "예, 저는 옛날 이야기 속에서만 나오는 줄 알았어요." 이 순간 원욱 스님은 자신이 가야할 길을 발견한다. 그리고 적어도 내가 사는 세상에서 부처님을, 스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도록하겠다고 다짐한다. 이처럼 이 책은 포교의 최일선에서 일어나는 울고 웃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하다. 값 7천5백원.

일기를 '자신의 인생에서 남에게 얼굴을 붉히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만을 매일 기록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면, 지묵 스님의 〈산승일기〉는 내밀한 기록이 아닌 공개를 염두에 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스님이 일상에서 겪은 일들을 적고 있지만, 그 속에는 절이란 어떤 곳인가, 스님을 대할 때는… 등 불자들이 알아야 할 것들을 전하는 데 많은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값 8천원.

스님들이 쓴 일기체의 불서는 절간 생활과 체험담을 주로 다루고 있지만, 철저한 계행과 청정심, 그리고 원력으로 깨달음을 찾아가는 구도과정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이런 점에서 그 의미는 더욱 각별해 보인다.

김중근 기자(gamja@buddhapia.com)

새로나온 책



▲불교와 유교(아라키 겐고 지음, 심경호 옮김, 예문서원)= 유교와 불교 공통의 토양을 찾아 사상 이행의 본질을 해명한 연구서. 글쓴이는 중국 철학을 낳을 수 있었던 공통의 토양을 본래성이라 한다.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을 지니고 있음을 외치는 선불교, 모두가 성인임을 주창하는 양명학, 그리고 주자학. 이 모든 교학의 성립이 본래성의 긍정을 통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값 1만8천원.



▲열린 종교와 평화공동체(크리스챤아카데미, 대화)= 열린 종교를 지향하는 종교간의 대화운동 35년과 새로운 문명시대의 종교 방향을 제시한 책. 1965년 이후 종교간 대화운동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국 내의 종교간 대화의 사회적 기능과 전망은 어떠한지를 다룬 테마대담을 비롯 각 종교가들이 격론을 통해 들려주는 사회와 종교의 신랄한 비판이 담겨있다. 부록으로 '종교간 대화 관련 단체 목록', '종교간 대화 관련 도서목록'도 수록돼 있다. 값 8천5백원.



▲삼일신고(최동환 지음, 지혜의나무)= '삼일신고'는 인간의 중앙에 내려와 있는 일신에게로 돌아가면 성통광명, 재세이화, 홍익인간을 이루고, 다시 일신으로 돌아가는 이치를 담고 있는 경전. 즉 이 책은 우주 전체와 인간의 모든 혼돈을 366자로 정리하여 설명하고 있는 우리 민족의 고전이다. 글쓴이는 현대의 철학, 과학, 고고학, 인류학 등 여러 방면으로 설명하고 있다. 값 2만원.



▲자기 중심이 아이를 망친다(마치자와 시즈오 지음, 이송은 옮김, 청림)= 우리 아이, 이대로 좋은가. 우리 사회의 속 앓는 부모, 위협받는 교사를 위한 한 정신과 의사의 긴급처방. 자기 중심적 성향이 어떤 양상을 띠고 사회문제로 나타나는지 여러 예를 통해 보여 준다. 특히 부모들의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으로 인한 자녀교육의 문제점을 상세히 밝히고, 아이에 대한 지나친 애정과 과잉보호는 결국 '학대'나 다름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값 7천5백원.



▲약 안 쓰고 수술 않고 심장병 고치는 법(딘 오니시 지음, 장현갑 옮김, 석필)= 생활습관을 바꾸면 심장병을 고칠 수 있다. 미국의 심장전문의 딘 오니시 박사는 환자의 심리적, 감정적 측면과 식사, 흡연, 운동 등 잘못된 생활습관을 바꾸면 심장병을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그가 창안한 '심장병 반전 프로그램'은 약물이나 수술 없이도 심장병을 호전시키는 임상결과를 얻어냈다. 값 1만원.

마하르쉬 시리즈 출간
생애-가르침 담은 두권





"나는 누구인가"라는 자기 탐구의 수행법으로 알려진 라마나 마하르쉬(1879~1950)의 생애와 가르침을 담은 아루나 총서 시리즈 가운데 두 권이 나왔다.

첫 권 〈마하르쉬의 복음〉은 어록으로 비교적 적은 분량이지만 그의 가르침의 핵심을 담고 있다. 그는 이 책에서 깨달음이란 새롭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고 선언한다. 다만 자신이 아직 깨닫지 못했다는 무지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 '나는 누구인가' 하는 탐구법을 권장한다. 값 6천원.

두 번째 권 〈바가반의 말씀을 따른 삶〉은 마하르쉬의 제자 안나말라이 스와미의 회상록으로, 그가 기록한 스승의 가르침, 그리고 진아(眞我)를 깨달은 뒤에 수행자들과 주고받은 자신의 가르침을 담고 있다. 값 1만5천원.

도서출판 탐구사는 〈라마나 마하르쉬와 진아지의 길〉, 〈무심(無心)-나는 진아다〉, 〈빠빠지 면담록〉, 〈추억의 마하르쉬〉 등도 펴낼 계획이다.

김중근 기자

아하! 그런 깊은 뜻이 있었네
김영애씨 '절 안의 생활, 절 속의 문화재'



사찰은 불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찾는 역사와 문화의 공간이다. 하지만 사찰을 찾아서 그 속에 깃든 우리 문화의 향기와 역사를 제대로 느끼는 사람은 그리 많은 것 같지않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찰에 가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느껴야 할까. 이런 궁금증을 갖고 있던 불교미술학자 김영애(용인대 회화과) 씨가 절 안의 생활과 문화재를 해설한 〈절 안의 생활, 절 속의 문화재〉(다할미디어)를 내놓았다.

이 책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절 안의 생활'에서는 절의 의미에서부터 스님들의 생활, 사찰 의식에 대하여 설명하고, 전국의 사찰 현황 및 북한의 유명사찰을 소개하고 있다. '절 속의 문화재'에서는 사찰 경내의 전각을 비롯하여 불상, 불화, 범종, 석탑 등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불교미술과 종교적인 시각에서 설명하고 있다. 또 '역사 속의 큰스님'에서는 역사적으로 큰 업적을 쌓은 고승들의 일화를 통하여 우리 나라 불교의 흐름을 살피고 있으며, 부록 격인 '절에서 많이 읽히는 불경'에서는 모든 불교의식에서 필수적으로 독송되는 예불문, 〈반야심경〉, 〈천수경〉의 원문과 해석을 함께 소개함으로써 그 뜻을 이해하면서 불경을 독송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은 불교를 몰라도 술술 읽을 수 있도록 쉽고 간결하게 구성했다는 점이다. 값 8천원.

김중근 기자

정토신앙 대표경전 한권으로 묶었다



도서출판 시공사는 최근 정토부의 대표적 경전을 한권으로 묶은 시공불교경전시리즈 일곱번째 권 〈아미타경·무량수경·관무량수경〉을 내놓았다.

이 경전들은 보살들이 깨달음을 얻어 만든 청정한 세계인 극락 정토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수행자들을 위한 가르침을 담고 있다.

〈아미타경〉은 부처님이 장로 사리불에게 극락의 모습과 극락왕생을 위한 수행법을 개괄적으로 설하는 내용으로, 염불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경전이다. 반면 〈무량수경〉은 아미타불이 출현하게 된 인연을 밝히고 있고, 〈관무량수경〉은 극락세계를 보는 16관법과 서방에 태어나는 구품구생의 사람, 그리고 아미타불의 이름을 소리내어 부르는 칭명 염불에 대해 설하고 있다.

정토의 세계를 다룬 대표적인 경전을 모아엮은 이 책은, 우리말 풀이와 장마다 덧붙여진 해설, 그리고 각 단락을 요약한 대의를 통해 보살의 서원이나 극락세계를 보는 관법을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값 1만4천원.

김중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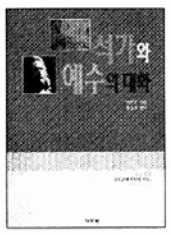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선방일기	지 허	여시아문
2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같이	전 재 성	선 재
3	마음을 비우면 세상이 보인다	달라이 라마	문 이 당
4	만행-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	현 각	열 림 원
5	집착을 버리면 행복이 보인다	일 타	불교시대사
6	지장보살본원경	김 현 준	효 림
7	위빠싸나 성자 아짠 둔	김 열 권	불 광
8	적멸의 즐거움	정 휴	우 리
9	티벳 해탈의 서	파드마 삼바바	정신세계사
10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도서 안내:(02)737-0695

석가와 예수의 만남
인생사 묻고 답하고



석가모니 부처님과 예수가 만난다면 어떤 대화를 나눌까. 신간 〈석가와 예수의 대화〉(다미원)는 석가모니 부처님과 예수가 가상적인 만남을 통해 대화를 나눈다. 두 사람의 대화는 그들이 시작해 놓은 전통들이다. 즉 동일한 종교적 여행을 떠난 '친구'사이의 대화라 할 수 있겠다.

여섯 토막으로 이루어진 이 대화들은 고통, 죄악, 구원 같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토론한다. 그러나 자신의 종교에 대한 옹호나 변론을 펴지는 않는다. 값 8천원.

김중근 기자

처절한 영욕이 교차하는 피와 땀의 역사!

한국불교 100년
1900~1999

편자 : 김광식 / 사진 : 윤창화

도전과 좌절, 회고와 반성 그리고 냉엄한 평가!
한국불교, 지난 100년간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나?

100년, 그 사이 우리 불교는 일제치하에서 갖가지 수모를 겪었고
해방 후에는 비구 대처간의 싸움으로, 70년대 이후에는 문중간의 싸움으로,
90년대에는 폭력과 각목이 난무하는 종권 다툼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새로운 불교 건설에 대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 책 속에는 총 1,100여 점의 각종 기념사진과, 신문기사, 인물, 문화재 등이
실려있습니다. 특히 개화기에서 해방기까지의 사진들은 우리가 거의 볼 수 없었던
희귀 사진들입니다.



민족사 서울 종로구 청진동 208-1
전화 732-2403~4 팩스 739-7565

국배판 460쪽 아트지 / 값 58,000원

불교 속의 문화, 문화 속의 불교
불교와 문화
Buddhism & Culture



2000년 5·6월호

우리 절의 편액 바로보기 ❷
- 추사 김정희가 쓴 영천 은해사 '보화루(寶華樓)'에 대한 역사적 의미와 멋을 감상한다

2000년 특별기획
디지털 시대의 육바라밀(六波羅蜜) - ❷ 지계(持戒)
불자라면 당연히 지켜야 하고 우리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실천지침인 오계(五戒)의 의미를 알아보고, 사이버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사이버 공간에서는 어떻게 오계를 실천해야 하는 지를 살펴본다.

불교특강 - 21세기의 화두를 불교에 묻는다
- 최초로 접근해보는 가상현실에 대한 불교 철학적 조명!

컬러화보 ❶. 이호신 화백의 생태그림기행 - 그림 속에서 찾는 山水와 기람의 숨결 - 花心의 도량, 相生의 도량, 청도 호거산 운문사

컬러화보 ❷. 사진으로 보는 기람의 어제와 오늘 - 범어사, 은해사의 변천사를 사진으로 비교해본다

특별기고
김용옥 선생을 옹호하는 신규탁 교수의 반론에 대한 재반론
- 지난 호 집중서평 '김용옥 선생의 선불교 이해는 정확하다'는 제하의 신규탁 교수의 글에 대한 변상섭 거사와 효산 스님의 반론

인터넷으로 만나는 세계의 불교, 불교문화
평화와 비폭력의 상징, 티베트 불교여행
- 최근 방한을 추진하고 있는 달라이라마 사이트 소개 및 티베트 불교의 모든 것을 알아본다.

집중서평 - 『종교와 과학』(정진홍 외 지음, 아카넷 간)

인물포커스 근·현대 한국불교의 거목을 찾아서(언론/출판편)
불교잡지문화 창달과 在家禪의 개척자, 이희익 거사

최초 발굴 일본 속의 신라불교와 문화 탐방
- 일본 스진왕조를 식민지로 인정한 신라왕자 천일창의 발자취

중국 속의 한국불적 구산선문의 원류를 찾아서
- 달마 대사와 혜능 대사의 연고지 광동성 답사기

현대인을 위한 알기쉬운 불교신행
지장신앙, 어떻게 믿고 실천할 것인가(지장신앙의 특징, 지장기도법, 지장기도도량 소개)

우리시대의 匠人
지불(紙佛)을 만드는 전통한지공예 장인 상기호 씨

격월간 불교와문화 전화: 02-719-2606, 전송: 02-719-5052 E-mail:kbpf@chollian.net

"종교연구, 神-敎 탈피 사회-문화 지향"

종교학회 학술대회 '21세기 세계종교학-과거 현재 미래'

다원주의 사회에 어울리는 종교학 연구 방법론은 무엇일까. 한국종교학회(회장 황필호)는 3일 강남대에서 '21세기 세계 종교학 :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이 질문에 해답을 제시해 주목된다.

윤이흠(서울대) · 리카르트 프리드리(프리브르대 · 스위스) · 도날드 위브(토론토대 · 캐나다) 교수 등이 아시아 · 미주 · 유럽 종교학을 분석하고, 21세기 종교학계의 방향을 제시한 이 학술대회에서 찾은 해답은, "신(神)과 교(敎)에 집중되었던 종교학 연구 방법론에서 탈피해, 이제 인문 · 사회과학적 연구 방법론 즉, 사회와 문화 그리고 다른 학문과의 관계 속에서 종교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동양의 종교학'을 발표, 한국 · 중국 · 일본의 종교학 연구 현황을 살핀 윤 교수는 "전통적 연구 방법론을 지금의 종교학 연구에 답습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삼국의 종교학자들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화 · 사회적 환경에 개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에 따르면 전통적 가치관에 젖어 있는 동양의 종교학계는 '모든 길이 하나로 통한다'는 타성에 젖어 있다는 것이다. 귀일주의(歸一主義)는 이질적인 것과 쉽게 손을 잡고 아무리 어려운 문제에도 통합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전통적 세계관을 맹신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윤 교수는 "동양의 종교학계는 문화 · 사회적 변화를 정확히 인식해, 동 · 서 문화의 차별성과 동질성 그리고 역동적인 변화를 이해해야 한다"며 "동 · 서양의 모든 종교를 동일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객관적인 분석작업을 통해 새로운 연구 방법론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종교학'에서 "지금까지 연구 · 축적한 종교학 관련 지식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할 때"라고 전제한 위브 교수는 "AAR(미국종교학회)의 경우 인지과학을 토대로 종교를 연구하는 그룹이 있는데, 종교학 연구 방법론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다"고 말해, 과학분야의 연구 방법론 수용을 강조했다.

위브 교수에 따르면 현대 철학의 초점은 '이해와 설명'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에 있는데, 종교학계 역시 내부적인 것(종교)과 외부적인 것(문화 · 사회적 환경) 사이의 제3의 관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종교학회가 3일 개최한 국제학술대회는 타 학문과의 관계에서 종교를 이해했던 지리로 평가되고 있다.



프리드리 교수는 '유럽의 종교학'에서 종교와 무관한 학자들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는 종교 연구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는 다종교 상황에서 선입견 없이 다른 종교에 접근할 수 있고, 나아가 서로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의 평화도 모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프리드리 교수는, 사회 · 평화 운동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종교학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종교학은 이 방면에서 새롭게 공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여주 신륵사 극락보전의 회벽이 떨어져 내려 벽면에 그려진 심우도가 훼손된 채로 방치되고 있다.

신륵사 극락보전 벽화 훼손

심우도 그려진 회벽 군데군데 떨어져

고려말 나옹선사가 입적한 것으로 유명한 경기도 여주 신륵사 극락보전(경기도지정 유형문화재 제128호)의 벽화가 심하게 훼손된 채로 방치되고 있다.

사찰의 중심 건물인 극락보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인데, 현재 회벽으로 된 표면이 떨어져 내리면서 벽면에 둘러 그려진 심우도(尋牛圖)가 훼손되고 있다. 훼손 정도가 가장 심한 곳은 출입문이 있는 옆벽. 출입문 바로 옆 그림은 표면이 절반 가량 떨어져 내려 무슨 그림인지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다. 다른 곳도 군데군데 흙벽이 그대로 드러나 보일 정도여서 계속 방치될 경우 벽화가 원형을 잃을 위험도 안고 있다.

하지만 일차적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여주군에서는 "한뼘 정도 떨어져 내린 상태다. 이 정도는 다른 공사할 때 흙 한 줌 바르면 될 일"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문화재 관계자는 "해당 군에 다시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벽면 훼손 상태를 정밀조사한 뒤 문화적 가치를 고려하여 보수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지정 문화재의 경우 해당 시 · 군이 문화재를 점검, 보고하면 도에서 종합적인 상태를 조사하여 보수여부를 결정한다.

전형적인 조선후기 건축양식을 보여주는 극락보전은 화려한 다포양식의 겹처마 팔작지붕 건물이다. 특히 운치있는 합각벽 무늬로 연중 관람객이 끊이지 않는 명소이기도 하다. 지금의 건물은 1800년에 완공된 것으로 1978년에 마지막으로 중수했다.

신륵사는 현재 보물 제180호인 조사당을 비롯해 국가지정 문화재만 7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6월중 경기도와 공동으로 9억원의 예산을 들여 성보박물관 건립에 들어갈 예정이다.

권형진 기자(jinny@buddhapia.com)

'문화재 길잡이' 신설

문화재청이 어려운 문화재 용어에 대한 해설자료를 제공하고, '도난문화재' 코너를 강화하는 등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했다.

6월부터 새롭게 선보인 홈페이지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새로 개설한 '문화재 길잡이' 사이트. 문화재청은 문화재 용어가 대부분 한자어이거나 전문용어라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고 △풀어쓰는 문화재 용어 △문화재의 각 부분 명칭 △학교에서 배우는 문화재 해설 코너를 추가해 '문화재 길잡이'를 신설했다.

문화재청 홈페이지 새단장

또 기존의 '도난문화재' 코너도 최근 도난된 자료를 새롭게 올려 도난문화재 회수에 도움을 주도록 했다. 이번에 추가된 37건의 자료 가운데는 국보 제282호인 흑석사 목조아미타불좌상을 비롯해 모두 18건의 불교문화재가 포함되어 있다. 현재 총 113건의 자료가 올라 있다. www.ocp.go.kr 권형진 기자

"주인되는 삶 체험하며 살자"

보광스님, 정토학회 세미나서 주장

"현대 사회의 병리현상 치유는 믿음의 대상을 삼보 · 자성 · 인과 · 아미타불로 구체화할 때 가능하다"

현대의 고(苦)를 끊는 방법으로 염불 수행을 강조한 한국정토학회 세미나가 6일 경기도 청계산 정토사에서 열렸다. 이날 '현대사회에 있어서 염불행자의 믿음'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보광(동국대 교수) 스님은 현대사회를 불신 · 불안 · 불만 · 불확실 시대로 규정하고, 그 원인을 삼보 · 자성 · 인과 · 아미타불에 대한 불신에서 찾았다.

"자아를 성찰하고 주인되는 삶을 살 때 불안을 치유할 수 있다"고 전제한 보광 스님은 불안심리란 자성이 청정함을 알지 못한 데서 시작된다고 지적하고, "인과의 도리를 믿고 실천할 때 불교는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으며, 현대인들은 욕심을 버리고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보광 스님은 "신앙은 이론적 체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믿음의 세계관을 갖기 위한 것"이라며 "정토 염불행자들의 신앙 생활은 머리로서 이해하는 이론적인 정토가 아닌 가슴으로 느끼는 체험적인 신앙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정토학회가 '염불신앙 결사의 역사적 조명'을 주제로 마련한 이번 학술세미나에서는 중국초기 정토신앙(중앙승가대 태원 스님), 신라시대 염불결사(이화여대 김영미 교수)고려시대 원묘요세의 염불결사(부산대 채상식 교수) 일본의 염불신앙의 전개와 그 의의(동아대 강동균 교수) 등이 발표됐다. 오종욱 기자



◇중국 산동반도 법화원에 세워진 '일주문'.

中법화원에 일주문

해상왕 장보고의 유적지인 중국 산동반도 적산 법화원에 일주문이 세워졌다. 법화원 일주문 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이길녀)는 5월 22일 중국 산동성 영성시 정부와 공동으로 1년만에 일주문을 건립했다. 높이 6m, 길이 5m 규모로 조성된 법화원 일주문은 중국의 대표적인 서예가 조박초前 중국불교협회장이 편액을 썼으며 공사비는 1천5백만원이 소요됐다. 이번에 일주문이 세워진 적산 법화원은 장보고가 창건한 3대 법화원 중 하나다.

김주일 기자(jikim@buddhapia.com)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마하돌대 컴퓨터센터

남전대장경 전산화 '주목'

마하돌대학 컴퓨터 센터는 세계 최초로 남전대장경의 전산화를 성공해 주목받고 있는 태국의 대표적인 불전 연구소다. 이 연구소에서 개설한 사이트에서는 빨리어 경전의 전산화 과정과 전산본 경전 그리고 CD롬 경전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컴퓨터 센터'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CD롬 '불교 경전 정보 검색(Buddhist Scriptures Information Retreival)'. 여기에는 남전대장경 45권, 주석서 55권 기타 경전 15권 등 115권 빨리어 불교문헌이 입력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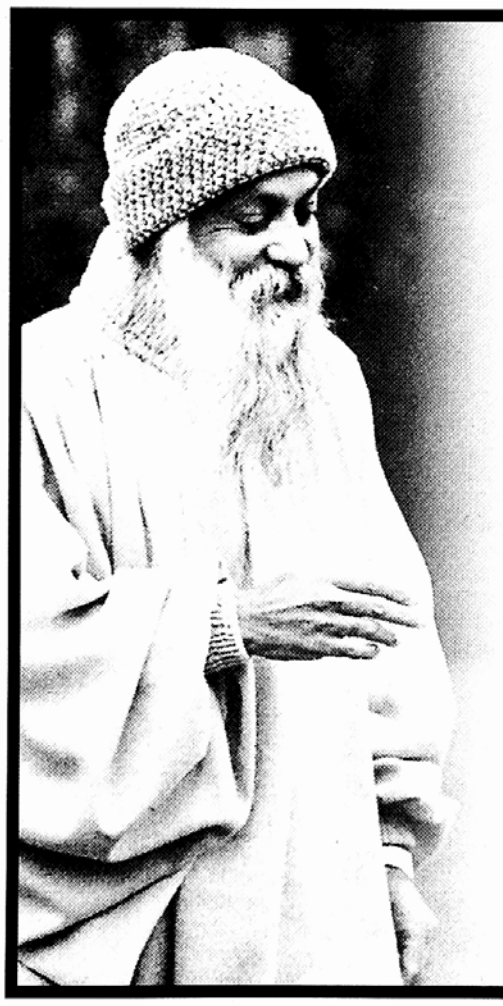
또 태국어와 빨리어-영어 음역어로 기록된 이 CD롬은 멀티미디어 기능까지 제공한다. 이 기능은 모니터에 나타난 경전 내용중 일부분을 선택하면 컴퓨터 스피커를 통해 원음을 들을 수 있게 하는 서비스.

따라서 불자 네티즌이 이 사이트를 방문하면 30여 개의 경전 문구를 사용해 멀티미디어 기능 등 CD롬 경전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또 빨리어 색인 검색 기능을 이용해 인터넷에서 전자사전 기능도 만끽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이 사이트는 태국 유적지에서 발굴된 불상 30여 개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감상할 수 있다. 태국의 불상은 대부분 결가부좌한 자세에 뾰족한 머리 모양과 완만한 곡선 형태의 흉상이 주류를 이룬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http://www.mahidol.ac.th/





벼락처럼 단번에 자르는 지혜의 완성!

The Book of The Books
법구경 I·II
오쇼 라즈니쉬 강의 손민규 옮김 전2권 각권 값 10,000원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니,
우리는 마음을 통해 세상을 만든다.
오쇼의 법구경 강의는 방금 건져 올린 물고기처럼 생동감이 넘친다. 불교의 경전을 넘어서서 참다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소중하기 이를 데 없는 진리의 선물이다.

The Diamond Sutra
금강경
오쇼 라즈니쉬 강의 손민규 옮김 값 10,000원

그대는 오직 의식하는 만큼만 존재하리라.
의식은 그대를 깨어 있게 한다.
이 진언은 '그대 안에 잠들어 있는 붓다'를 흔들어 '깨달음의 땅'에 이르게 한다. 우리는 여기 금강에서 가장 높고 옳으며 완벽한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The Heart Sutra
반야심경
오쇼 라즈니쉬 강의 손민규 옮김 값 10,000원

그냥 존재하라. 삶이 춤추도록 놓아두라!
이것이 진리가 찾아 오는 유일한 길이다.
집착과 소유를 버려라! 삶의 덧없음에 명상하라!
그대가 무(無) 안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날, 모든 붓다들이 그대를 환영하고, 열반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21세기를 사는 지혜의 서

01. 탄트라 秘典 I
02. 탄트라 秘典 II
03. 탄트라 秘典 III
04. 탄트라 秘典 IV
05. 법구경 I
06. 법구경 II
07. 금강경
08. 반야심경
09. 탄트라 더없는 깨달음
10. 심우도
11. 신심명
12. 하얀 연꽃(달마대사 강론)
13. 그대 가슴속의 꽃을 피워라 I
14. 그대 가슴속의 꽃을 피워라 II
15. 禪, 빈 거울에 담긴 노래 | 마조
16. 마음을 버려라 | 임제
17. 오직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을 뿐 | 조주
18. 텅 빈 가슴을 넘어서 | 남전
19. 법의 연꽃 | 이규
20. 禪의 최고봉 | 백장과 대주
21. 내 사랑 인디아
22. 소중한 비밀 | 까비르 강론
23. 명상, 처음이자 마지막 자유
24. 서양의 붓다 | 헤라클레이토스 강론

★ 색의 책은 현간 준비중입니다
★ 책 제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mail_taeilpub@chollian.net
tel_927-2831~4 fax_924-3236
태일출판사

거짓말하면 미혹에 빠진다

혜능스님의 '재가자 위한 계율' 〈21〉

오계상경-15

험담·폭언은 대립·불화 낳고 따뜻한 말은 평화·화해 가져와

오계의 네번째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인데, 우리 삶에 있어서 언어 생활의 진실성과 신뢰를 강조한 가르침이다.

〈숫다니파타〉에는 다음과 같은 계상이 전해진다. "돌이 있을 때도, 여럿이 같이 있을 때도, 어느 누구에게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또 다른 사람을 시켜 거짓말을 해도 안 되며, 다른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을 묵인해도 안 된다." 또 〈오계상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나는 가지가지로 거짓말하는 것을 꾸짖고, 거짓말하지 않는 이를 칭찬했다. 장난으로라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거늘, 하물며 일부러 거짓말을 하겠는가?"

말이란 진실과 믿음이 생명력이다. 거짓말에는 옳은 것을 그르다 하고, 그른 것을 옳다고 하고, 본 것을 못 보았다 하고, 못 본 것을 보았다고 말하는 망어(妄語)와 꾸며대는 말(綺語), 험담과 욕설(惡口), 이간질하는 말(兩舌)의 네 가지가 있다. 우리는 진실을 말하기보다 다른 사람이 듣기 원하는 것을 말하거나, 우리가 듣고 싶고 믿고 싶은 것을 말하게 된다. 그러나 깨어 있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능력이 있는 불자는 아무것도 모르면 '아는 것이 없다' 하고, 알고 있다면, '안다'고 대답한다. 아무것도 본 것이 없다면, '아무것도 보지 않았다' 하고, 보았다면 '보았다'고 대답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그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도 고의로 거짓말하지 않는다.

십대 제자의 한 분인 밀행제일 라훌라 존자는 열 살쯤의 어린 나이에 머리를 깎고 사미가 되었다. 어릴 때 라훌라는 장난이 심해 때때로 사람들이 찾아와 부처님이 계시냐 물으면, 계실 때는 안 계시다 하고, 계시지 않을 때는 계시다 하며, 곧잘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기뻐하였다. 부처님은 이 사실을 전해 듣고 라훌라에게 물을 떠오게 하여 자신의 발을 씻긴 다음 말하였다.

"너는 이 물을 마실 수 있느냐?"

"없습니다."

"왜 그러하냐?"

"발을 씻어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라훌라야, 너도 이 그릇과 같다. 사문이면서 거짓말을 하고 마음 속에 도를 닦을 뜻이 없으므로 더러운 물을 담았던 그릇과 같은 것이다. 마음의 양식이 될 것을 담을 수는 없느니라."

부처님은 라훌라가 일찍이 보지 못했던 준엄한 얼굴로 꾸짖었다.

"너는 사문이면서 행동을 조심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사람을 괴롭혔다. 그 결과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할 것이다. 지혜로운 자로부터 아낌을 받지 못한 채 목숨이 다하도록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미혹에 헤매이기를 이 물그릇과 같이 할 것이다."

이후 라훌라는 부처님이 아버지이고, 사리불은 스승, 목건련은 아사리(軌範師)임을 내세워 자랑하거나 교만심을 일으키지 않았으며, 학처를 잘 지켜 밀행제일의 제자가 되었다.

아주 작은 거짓말이라도 마침내는 엄청나게 큰 거짓말을 만들어낸다. 상처를 주거나 혼란을 일으키는 말, 빈정대는 말, 모략중상하는 말은 대립과 불화를 유발하지만, 섬세하고 부드럽고 사랑과 친절이 담긴 따뜻한 말은 우리에게 평화와 화해를 가져오게 한다.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에서 '바르게 말하기'를 배우며 다시 이렇게 서원하며 자신을 살펴야 한다.

"부주의한 말과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것 때문에 야기되는 고통을 인지하고, 사랑스런 말을 하고 남의 말을 새겨들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 다른 이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고, 다른 이의 고통을 없애 줄 것을 서원한다. 말이 행복과 고통을 만든다는 것을 알고 진실하게 말하기를 배우고 자신감과 기쁨, 희망을 일으키는 말을 쓸 것을 서원한다.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면 퍼뜨리지 않을 것이며, 잘 모르는 일을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분열과 불화를 야기하는 말을 삼갈 것이며, 가족과 지역공동체가 분열하고 깨질 말도 하지 않을 것을 서원한다. 아무리 작은 갈등이라 할지라도 모든 갈등을 다 해결하고 화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서원한다."

〈해인총림 율원장〉

"자기 마음의 등불 밝혀 악과 죄 짓지 마세요"

법회중계

경국사 거사림회

〈2000년 5월 21일〉



종본스님
〈경국사 주지〉

늘 허물 반성·참회하고 의지·정성으로 정진하면 믿음과 인격완성에 도달

인간의 인격은 육체와 정신 그리고 생리와 심리라는 이중적 구조를 가졌다 하겠습니다. 이 이중적 구조를 집합하여 하나로 통일시키는 부단한 노력으로 분명한 자기 중심을 세우는 일이 바로 믿음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운용하여야 육체에 대한 욕망과 집착을 다스릴 수 있는가 구체적 방법론이 갖가지로 대두되는 까닭도 이 때문입니다. 불교 신앙적 차원에서 보면 육신이 아무리 유한한 보잘 것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 육신이 없는 상황에서는 거기에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육신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라 불리고, 사람이라 불리기 때문에 사람다운 의무와 책임이 따르는 것이지요.

이교도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보잘 것 없는 듯 느낄지 몰라도, 만고광명(萬古光明)인 부처님의 법을 따르기 때문에 불자라 불리워지고 불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부여되는 것 아닐까요? 누가 당신이 가진 종교가 무엇이요 하고 물으면 마지 못해서 내가 가진 종교는 불교요 하는 게 낫겠다 싶어 대답이나 하고 마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진실된 도리로서 믿음에 들어가 자신의 마음 등불을 밝힘은 물론 그 빛이 이웃에게도 아낌없이 미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때 비로소 불자로서 떳떳하게 나는 불교인이요 하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녀노소와 빈부귀천을 따질 것 없이 이 믿음으로 들어가는 길은 자기 스스로의 굳은 의지와 실천으로 익어가는 열매이지 왕도와 같은 것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유한한 오늘보다 무한한 내일을 겨냥하는 것으로 인간 노력의 한 형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인간 생활의 궁극적 의미를 분명히 하여 그 문제를 풀어 해방을 얻자는 종교적 믿음은 인간의 육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음 속에 형성되는 빛 밝은 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종교적인 일체행동의 원천이며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엄연히 느낄 수 있는 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상상적 손이 가 미칠 수 없을 만큼 깊게 들어갈수록 더욱 깊어지며 오묘해지는 것을 같은 날 같은 시에 발심(發心)하여 불법을 따른다 하여도 그 깊이와 넓이의 차원은 각각 다릅니다. 어떤 특정인이나 절대자가 하나의 교과서적 문제를 들고 교과서적으로 주입시키는 교육방법이 아니라 자기의 열과 성 그리고 의지와 정성이 굳게 뭉쳐져 쌓아가는 거대한 마음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교리에 해박하고 강의술이 뛰어나 남을 설득하는 힘이 우세하다고 해서 신앙의 깊이가 그만큼 깊고 또 강한 것은 아닙니다. 지식은 그가 가진 사상의 보조 역할은 충분하지만 지혜를 밝히는 불심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성(內省)이나 반성(反省)을 들먹거리곤 하는데 이것은 누구에게라도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불교에서 참회(懺悔)라고 일컫는 이것은 인격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믿음으로 가는 안내역이라 하겠습니다. 갖가지 유형의 악순환이 거듭됨은 누구에게는 책임소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공업소감(共業所感, 공동책임)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반성(反省)이라 이를 수 있는 참회입니다. 항상 자기를 돌아보아 부끄러움의 티가 끼어들지 않고 불안한 마음의 그림자가 일렁거리지 않게 하는 일, 이것은 참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참회에서 한발짝 나아간 정진인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 안에 굳건한 믿음의 기치를 세워, 더욱 좋은 마음에 광명세계를 안팎으로 비치게 하여 악을 두려워하며 죄를 피하고 더 나은 자기 인격 완성을 위한 믿음을 다져 나간다면, 그것이 곧 우리가 거룩한 부처님께로 나아가는 초석이고 불성을 찾아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정리=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돈황 옛문서 현대인에 맞게 재해석

세계의 불교학 〈21〉 프랑스 ④

경전 3천여장 번역·색인 마쳐 이공계 학자도 고서연구 동참



◇몽골지역 17번 동굴에서 발견된 고대 경전과 그림의 데이타베이스 구축에 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모인 프랑스·영국·중국인 학자들.

프랑스 불교학계는 몽골 지역의 17번 동굴에서 나온 고대 경전을 연구하면서 돈황학의 기초를 다지고 있다. 이 동굴에서는 약 5천여 장의 중국어, 티베트어, 산스크리트어 경전과 수 백여 장의 그림이 발굴되었고, 현재 이들 경전과 그림은 프랑스를 비롯해 영국, 베이징, 페테스브르크, 교토 등지에서 연구되고 있다.

프랑스는 1944년 디미에비르(Demieville) 박사가 파리대에서 경전이 담겨 있는 종교성과 문학성에 대한 강의를 시작한 것이 돈황학의 시작이 되었는데, 이후 장 피에르 드레그(Jean Pierre Drège) 박사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경전에 대한 번역과 연구가 진행되면서 독자적인 역량을 쌓을 수 있었다. 1980년에는 마리에 로스(Marie Rose) 박사에 의해 이미 3천여 장에 달하는 경전의 번역과 색인 작업을 마쳤고, 현재 주석서 번역과 8천여 점의 도자기 파편에 대한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돈황 문서'를 원전에 가깝게 번역할 수 있는 학자는 15명 안팎이라고 한다. 고(古) 문자를 읽을 줄 아는 것과 번역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프랑스 돈황학의 성과는 놀라움 그 자체다.

프랑스 돈황학계는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이 같은 학문 성과와 그것의 토대가 되었던 두루마리 경전과 도자기 파편을 보존하고 알리는 데 열의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 같은 변화의 중심에는 불교예술을 연구하고 있는 제라튜어 아디율(Zelateure Aieul) 박사의 '보존 사업'이 있다. 이 사업에는 프랑스 돈황학계 관련 학자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으며, 아디율 박사가 이 프로젝트를 도맡아 운영하고 있다.

보존 사업은 독일은 스타인(Stein, 1862~1943) 박사가 몽골 지역 17번 동굴에서 발견, 현재 프랑스에서 소장하고 있는 두루마리 경전과 도자기 파편에 대한 연구 외에도 슬라이드 작업을 병행하는 사업이다.

'보존 사업'은 프랑스에서 소장하고 있는 이들 유물 관련 연구 성과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보존하는 것을 중점 과제로 삼고 있다. 프랑스 불교학자들은 특히 이 사업에 힘입어 관본간 차이를 표준화해 후학들의 학문적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또 고문헌의 현대적 해석과 출판을 시도해 프랑스 불자들에게 대중적 지지를 끌어내고 있다.

이외에도 보존 사업에는 화학·미생물과 같은 이공계열 학자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것은 두루마리 원전을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과학적 방법을 찾기 위해서다.

제라튜어 아디율 박사는 "보존 사업은 19세기 초에 수집된 불완전하고 부정확한 자료들을, 연구의 주제로서만이 아니라 인간의 삶에 대한 사상적 관심으로 선회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이것이 완결되면 누구나 쉽게 불교를 접할 수 있고 또 불교 경전을 읽을 수 있게 되어 대중 속의 불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불교학의 특징은 불교학 주제를 세분화하고 또 전문화함으로써 중복연구에 따른 학문적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것인데, 바로 프랑스 불교학계의 '돈황 유물 보존 사업'은 이 같은 유럽 불교학풍을 활용해 자료를 수집하고 번역하는 문헌 작업 이외에도 연관 학문 분야와의 끊임없는 교류로 경전 연구의 깊이를 더하면서 불교의 대중화와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몸을 다스리는(治身)
자/연/건/강/식/품

몸이 없으면 사람 아닌 귀신(神)이고 몸이 있으면 사람이다. 사람의 몸은 부모로부터 받아 태어났으므로 사람의 근본이 부모가 된다. 그러므로 효(孝)가 백행(百行)의 근본, 천하의 대본(大本)이 되며 효, 그 다음이 충성, 의리, 신의가 된다. 몸이 음식을 먹고 소화와 배설을 잘하는 것이 바로 몸을 잘 다스리는 것(治身)이다. 몸을 잘 다스리면 피로도 없고 병도 없으니 신진대사가 원활하여 몸이 건강해진다. 몸을 다스리는 치신(治身)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治世)과 똑같다. 몸이 있어야 수신(修身:몸을 닦는 것)을 할 수 있고 수신을 잘하여 도(道)를 깨달은 분이 성인(聖人)이니 성인이라야 제가(齊家:집을 다스림)·치국(治國:나라를 다스림)·평천하(平天下:세계를 평화롭게 함)를 할 수 있다.

성인이 되어야 오복(五福) [첫째 수(壽:건강과 장수)·둘째 부(富:부와 귀)·셋째 강녕(康寧:편안함)·넷째 유호덕(攸好德:덕을 좋아함)·다섯째 고종명(考終命:잘 죽음)]을 다 이룬다. 사람은 잘 살고 죽어야 하기 때문에 오복의 첫째가 건강하게 오래 잘 사는 수(壽)가 되고 마지막이 편안하게 잘 죽는 고종명(考終命)이 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몸을 잘 치신(治身)하여 몸을 잘 닦아 도(道)를 깨닫지 않으면 안된다. 세상 사람이 모두 좋아하는 권력, 재산, 명예, 무병장수를 얻으려면 질이 좋은 자연건강종합식품을 먹고 몸을 잘 다스려 몸을 잘 닦아서 도를 깨달아야 된다.

「불로화정(不老化精)」·「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솔선식(松仙食)」 등 「치신(治身)자연건강종합식품」은 삼신산(三神山) 중 방장산(方丈山)인 지리산에 있는 본사 식품제조공장에서 만든 것이다.

불로화정본포

불로화정(不老化精)



산중 사찰의 스님을 위한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은 시연스님이 40여년전 은사 큰 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비법으로 흑염자(검은 깨)와 감식초 외 10여종의 첨가물 [전부 우리 농산물]을 3년간 발효시켜 만든 것이다.

「불로화정」은 노소(老少), 체질에 상관없이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여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건강이 호전되어 노화가 억제되며 위염·소화불량·설사 등 위장질환이 치료되며 2개월만 복용해도 다이어트 없이 배불리 먹어도 비만이 안되고 복부의 주름살이 펴지며 다량의 음주에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고 피로를 모르는 건강을 만들어 준다.

가격 정가 70만원(2개월분)을 회원에 가입하신 분에게 50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 구입문의 : 053)655-2227 (011)808-8880
■ 입금구좌 : 대구은행 161-07-412768-001
예금주 : 대구여래원

효성양방·한방병원 무료치료안내

말기 암환자도 치료하는 기적의 치료술!!

천하의 명산, 울산 가지산(경남도립공원) 자연공원안에 의료법인 태영재단은 9만평의 대지위에 노인복지 시설인 효성노인병원, 양방·한방병원 300병실과 104실의 실버타운, 1천명 수용의 식당, 900명의 환자를 볼 수 있는 시설과 영안예식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효성양방·한방병원 부분전경

말기 암환자도 치료하는 기적의 치료술!!

진보덕화 보살은 하루에 밤낮으로 중생의 고난을 구해주시는 천수관세음보살의 공덕을 찬탄하고 온갖 죄업이 소멸하는 대비주(大悲呪 : 천수천안관세음보살광대원만무애대비심다라니의 준말)을 천번 읽고 무릎이 썩고 고름이 나도 하루3천배를 하면서 3년간 기도정진 하니,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시어 침과 약초를 받은 후에 인연이 있으면 어떤 어려운 병도 낫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말기 암환자도 이틀을 치료하니 본인이 알 정도로 진통도 없어지고 음식도 먹고 잠도 자게 되어 일주일 치료한 후에 완치된 기적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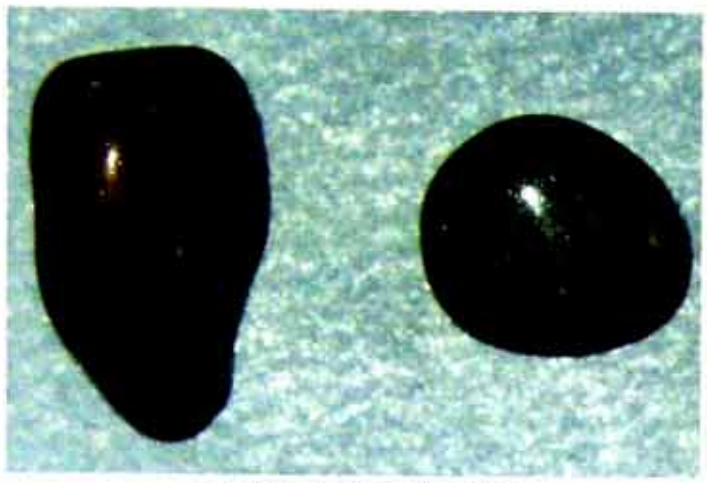
이번에 본 병원에서 말기 암환자를 무료치료 하오니, 전국의 불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단, 완치된 분은 앞으로 본 의료법인의 시설확장과 대작불사에 거금보시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어야 합니다.)

의법인 효성양방한방병원
이사장 김시연

(이사장 직통) 대구 ☎(053)655-2227 (011)808-8880 병원비서실 ☎(052)254-26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 산 8-4

시방세계

장엄도량을 이루는 모든것 태영산업이 함께 하겠습니다.
TEL : 02)433-9544
FAX : 02)433-9543
H.P : 019)278-1119
♣ 사찰 이정표
전설교통부 지침 규격으로 제작
♣ 사찰 안내 게시판
■전주용 간판 ■게시판 ■옥간판
♣ 회계관리 모액스
사찰회계 방지용 포맥스를 제작하여
본사 작업 사찰은 무료로 드립니다
(규격 40cm×30cm)



◇일반에 최초로 공개되는 황룡사 불사리.

1400년전 자장율사가 모셔온 부처님 진신사리 일반 첫 공개



◇통도사 성보박물관 1층 특별전시실에서 사리와 사리장엄구를 둘러보는 불자들.



◇경주 감은사지 동삼층석탑 사리기. 높이 16.5cm

통도사 성보박물관 7월31일까지 '불사리 신앙과 그 장엄' 특별전

50여 불탑의 사리장엄구 '한자리'

'바람은 천년 전의 일을 되풀이한다'는 박재삼 시인의 말을 생각해 보게 하는 특별한 전시회가 통도사(주지 신허)에서 열리고 있다. 1400여년 전 자장율사가 모셔온 부처님 진신사리가 일반인들 속으로 다가와 천년을 넘나드는 바람이 되어 불고 있기 때문이다.

'불사리 신앙과 그 장엄'을 주제로 2일~7월 31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전시회는 전국의 불탑에서 모셔온 진신사리와 사리장엄구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귀중한 기회이다. 이번 특별전은 통도사 성보박물관 개관 1주년을 기념하여 기획됐다. 황룡사, 분황사,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부처님 진신사리를 비롯하여 익산 왕궁리 석탑 사리구, 불국사 석가탑 사리구를 비롯한 국보 4점과 보물 4점 등 총 60여건 2백 여점에 달하는 유물이 박물관과 사찰, 학교의 협조를 받아 선보이는 대규모 전시다.

특히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봉안하여 한국불교사에 불보사찰의 전통을 이어온 통도사에서 사리와 사리장엄구들을 직접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국보4점등 2백여점 전시

통도사 성보박물관 1층 특별전시실에 들어서면 깨달음의 상징이었던 사리와 사리를 화려하게 장엄했던 사리장엄구들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기고 만다. 순금에 불보살들의 옷자락이 가늘고 세밀한 선으로 새겨지고, 수정과 유리들이 영롱한 빛을 발하며 퇴색되지 않는 진리의 광채를 그 안에 품고 오랜 세월을 간직해 왔음을 보여준다.

이번 전시에는 지난 1996년 4월에 발견돼 우리 나라 금속공예의 신기원을 연 것으로 크게 보도된 바 있는 감은사 동탑 사리장엄구가 보존처리를 마치고 최초로 일반에 공개된다. 사천왕상이 부착된 금동사리 외함, 화려한 장식의 전각형 사리기, 사리병과 금동사천왕상, 금동 승려상을 비롯 섬세하고 수려한 고대 금속 세공의 미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전국의 사찰에 비장되어 일반인들이 접할 수 없었던 사리장엄구들까지 총 망라되어 관련 학계와 문화계에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물관장 법하 스님은 "8개월 여 동안의 준비 과정 중 힘든 점도 많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전한다는 기쁨이 더욱 컸다"며 "많은 이들이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을 통해 자신의 본 성품을 만나는 인연공덕 짓길 바란다"고 말했다.

석가모니 입멸 후부터 신앙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리는 무엇인가? 사리는 사람이 죽은 후에 남겨지는 육신이나 뼈를 뜻하는 범어의 사리라(Sarira)에서 온 말이다. 그러나 불교에서의 사리는 일반인이 죽은 후에 남기는 유골과는 달리 참된 수행의 결과로 얻어지는 구슬 모양의 결정체로 주로 탑 속에 봉안되어 불상과 더불어 가장 핵심적인 예배 대상으로 숭상되었다. 특히 부처님의 몸에서 나온 사리를 진신사리라고 하며, 불교경전에는 석가모니가 열반한 후 화장한 결과 8말 4되의 사리가 나와 8개 나라에 분배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석존의 입멸 후 5-6세기까지 부처님을 형상화하지 못한 이른바 무불(無佛)시대에 불교신앙은 불탑을 중심으로 하는 사리신앙이 주가 되었다. 그러므로 청정무구한 불국정토의 상징이기도 한 사리는 온갖 정성을 다하여 아름답게 만든 사리구에 보관되어 탑 속에 안치되었다. 사리구란 탑에 봉안되는 사리장엄구를 지칭하는 말로 사리용기와 함께 봉안되는 공양물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사리구는 사리용기, 공양소탑, 탑지 등 셋으로 분류되는데, 사리용기는 직접 사리를 봉안했고, 공양소탑은 법사리를 납입하며 탑지는 건탑 연유를 기록한다. 사리장엄의 방법은 일정한 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여러 겹의 용기 속에 사리를 봉안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때 가장 중심에 사리를 직접 넣어두는 용기는 주로 수정이나 유리병이 사용되며 그 다음 안에서부터 금·은·동·철 혹은 돌로 만든 용기로 겹겹이 사리를 장엄한다. 이러한 사리봉안 방식은 (대열반경)에 부처님의 장례식에 사용되었던 관이 금·은·동·철의 4중으로 된 보관이었다는 기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물 전시 현황

유 물 명	소 장	제작추정연대
익산 왕궁리 오층 석탑 사리구 국보 123호	국립전주박물관	통일신라-고려(8C-10C)
불국사 석가탑사리구 국보 126호	국립경주박물관	통일신라8C(중엽/751년)
산산 도리사 세존부도사리구 국보 208호	직지사성보박물관	통일신라유일한 목각의 사리함으로 제작 법천과 사구의 사천왕상이 신각되어 있음
신월 석남사지 비로자나불대좌사리기 국보 233호	부산시립박물관	통일신라(766년)
은문사 동호 보물 260호	은문사	비장
군수사리지 목함지 사리구 보물 329호	국립부여박물관	백제 6C 후반
대구 동화사 비로암 삼층석탑 납석제 사리 호보물 741호	동국대박물관	통일신라8C 후반
부여 군수리 목함지 출토 불상 보물 330호	국립부여박물관	백지 6C 후반
감은사 동탑 발견 사리구	국립문화재연구소	통일신라 682년
경주 나원리 오층석탑 사리구	국립 중앙박물관	통일신라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사리구	월정사성보박물	고려
안성 장명사경 사리구	국립중앙박물관	고려 997년
금동합형 사리기	부산시립박물관	신라말-고려초 9C
월일 표충사 삼층석탑 금동여래 입상	표충사	통일신라-고려

사리용기는 불탑 건립과 불사리 신앙이 인도에서 최고조에 이른 마우리아 왕조 제3대시대인 B.C 2~3세기까지 기본형식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본다. 우리 나라에서는 인도의 옛 방식에다 우리 전통과 관습을 더하여 독자적인 사리용기를 고안하여 탑에 안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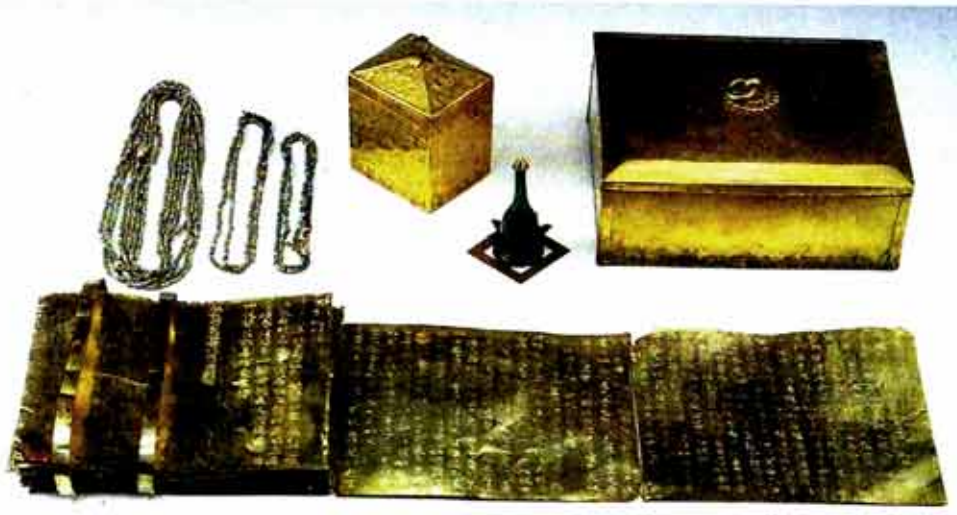
4중의 사리장엄구에 싸여서 탑 안에 봉안되어 장구한 세월을 이어온 사리들, 그 영롱한 사리와 탑은 불자들에게는 최고의 신앙 대상이다.

16일 '불사리 신앙' 학술회의

한편 통도사박물관은 16일 10시 '불사리 신앙과 그 장엄'을 주제로 한·중·일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회의에는 장충식(동국대박물관장)교수의 '한국의 사리 신앙', 강우방(경주박물관장)교수의 '삼국의 불사리 장엄', 조유전(국립문화재연구소장)박사의 '삼리구의 조사와 보존처리' 등과 중국 양홍(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교수의 '한·중 사리장엄구 영향과 관계', 일본의 가오다 사다무(제총산대)교수의 '한·일 사리장엄구 영향과 관계' 등이 발표된다.

천미희 기자(mhcheon@buddhapia.com)

◇경주 나원리오층석탑 사리함. 높이 15.2cm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국보 제123호)에서 발굴된 사리장엄구들.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몸 가꾸기, 마음 가꾸기 무공해 복합한방 미용비누

천연, 한방원료를 사용하여 피부의 노폐물 및 메이커 업 잔여물까지도 깨끗이 한불의 투명 미용비누는 키토산, 죽염, 홍삼 황토, 프로 폴리스 등 천연원료를 과학적으로 배합하여 세정 마사지 효과, 피부노화방지 효과, 잔주름예방 효과, 미백효과 등 평상시 피부관리에 많은 도움을 주는 무공해 미용비누 입니다.

투명한 비누 속에 귀여운 동자승의 모습은 마음이 맑으면 몸도 맑아진다는 선조들의 임상을 증명해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가격?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것 입니다!





선체조 동 자



비쓰는 동 자



좌선 동자



연꽃

제품가격
■1개 당 : 3,000 원(구입가격 50,000원 이하 시 발송료 별도)
■4개 1세트 : 10,000원 (구입가격 50,000원 이하 시 발송료 별도)옵션가격
■200개 이상 : 주문자 디자인 투명비누 속에 삽입 개당 : 2,500원
■500개 이상 : 주문자 디자인 투명비누 속에 삽입 개당 : 2,000원

▶금비누 (특별상품)



순금은 피부에 접촉하면 윤이온을 띰으로 피부의 산성도를 높여 보호력 강화 및 피부층에 화장품 성분 침투가 쉽게 되도록 피부의 혈액순환을 도우고 독소를 제거해 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천연 순 식물성 한방 투명 비누에 순금 가루를 삽입하여 미용 효과를 더해 줍니다.

제품가격
▶1 개 당 : 15,000원
▶100개이상 : 14,000원
각각의 금비누 포장 상자에 주문자 디자인 스티커 또는 인쇄

쇼핑몰 주문방법 •전화:02-732-1522 / 737-8881 •팩스:02-737-0697 •인터넷:http://www.mahamall.co.kr

다시 푸는 경서

달마 관심론(觀心論) ②

淨心恒樂善因 染心常思惡業
정심항락선인 염심상사악업
若眞如自覺 覺不受所染則稱之爲聖
약진여자각 각불수소염즉칭지위성
遂能遠離諸苦 證涅槃樂 若隨染造惡
수능원리제고 증열반락 약수염조악
受其纏覆則名之爲凡 於是
수기전부즉명지위범 어시
沈淪三界 受種種苦 何以故
침륜삼계 수종종고 하이고
由彼染心 障眞如體故 十地經云
유피염심 장진여체고 십지경운
衆生身中 有金剛佛性 猶如日輪
중생신중 유금강불성 유여일륜
體明圓滿 廣大無邊 只爲五陰
체명원만 광대무변 지위오음
黑雲所覆 猶如甁內燈光 不能顯現
흑운소부 유여병내등광 불능현현
又涅槃經 一切衆生 皆有佛性
우열반경 일체중생 개유불성
無明覆故 不得解脫 佛性自覺也
무명부고 부득해탈 불성자각야
但能自覺 覺智明了 離其所覆
단능자각 각지명료 이기소부
則名解脫 故知一切諸善
즉명해탈 고지일체제선
以覺爲根 因其覺根
이각위근 인기각근
遂能顯現諸功德樹 涅槃之菓
수능현현제공덕수 열반지과
由此而成 如是觀心 可名爲了
유차이성 여시관심 가명위료

성이란 깨침이다. 스스로 깨치고 그 깨친 지혜가 밝아서 덮였던 것에서 벗어나면 이것이 곧 해탈이다. 그러므로 모든 선(善)은 깨침으로 뿌리를 삼고, 그 깨침의 뿌리로 인해 모든 공덕의 나무가 무성하여 열반의 열매가 여문다. 이와 같이 마음을 관하는 것을 마음을 알았다고 한다."

又問曰 上說眞如佛性
우문왈 상설진여불성
一切功德 因覺爲根
일체공덕 인각위근
未審無明之心 一切諸惡 以何爲根
미심무명지심 일체제악 이하위근

또 물었다. "위에서 말씀하신 진여불성(眞如佛性)의 모든 공덕은 깨침이 뿌리가 됨은 알았으나 무명의 마음과 모든 악은 무엇을 뿌리로 삼는 것입니까."

答曰 無明之心
답왈 무명지심
雖有八萬四千煩惱情欲
수유팔만사천번뇌욕정
恒沙衆惡 無量無邊 取要言之
항사중악 무량무변 취요언지
皆因三毒 以爲根本 其三毒者
개인삼독 이위근본 기삼독자
卽貪嗔癡也 此三毒心
즉탐진치야 차삼독심
自然本來具有一切諸惡
자연본래구유일체제악
猶如大樹根 雖是一
유여대수근 수시일
所生枝葉 其數無邊
소생지엽 기수무변
彼三毒根 一一根中 生諸惡業
피삼독근 일일근중 생제악업
百千萬億 倍過於前 不可爲喩
백천만억 배과어전 불가위유

대답했다. "무명의 마음에는 팔만사천의 번뇌와 정욕이 있어 갠지스강의 모래 수효만큼이나 악한 것들이 한량없으나 요약해서 말한다면 삼독이 근본이다. 삼독이란 탐욕, 성냄, 어리석음인데 이 삼독심에는 저절로 모든 악이 들어 있다. 마치 큰 나무의 뿌리는 하나이지만 가지나 잎은 수없이 많은 것처럼 삼독의 뿌리는 하나이지만 그 속에는 나무의 비유보다 백천만배나 더하여 비유할 수가 없을 정도이다.

김원각〈시인 · 역경위원〉

깨끗한 마음은 착한 인연 즐기고
물든 마음은 항상 악한 업 생각

큰스님과의 대화

고봉스님

해인사 선덕

국가가 누란의 위기에 처할 때마다 우리나라에는 호국불교의 전통이 되살아나곤 했다. 불교가 국교였던 신라, 고려시대에는 말할 것도 없고 억불숭유의 조선시대에도 서산 · 사명 대사 같은 스님들이 승군을 조직해 나라를 도탄에서 구하는데 앞장섰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다시한번 나라를 위해 스러져간 호국영령들을 추모하면서 호국불교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 본다. 12~14일 분단 50년만의 역사적인 남북정상의 만남으로 통일의 기운이 새롭게 싹트는 이때 호국불교의 의미와 정신에 대해 큰스님의 말씀을 청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고봉스님이 주석하시는 해인사는 세계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이 있는 곳. 호국불교의 표상과도 같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면서 오늘도 화엄법문을 토해내고 있는 팔만대장경은 '호국불교란 바로 이런것이야' 라고 말하는 듯하다. 방밖에서는 까치들이 싱그럽게 지저귀고 있는 가운데 기자를 따뜻하게 맞아 주신 고봉스님은 동안(童顔)의 미소를 띠시며 "마음을 비우고 민족성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호국불교로 가는 바른 길임을 강조하셨다.

"내 주장부터 먼저 버리자"



· 1931년 충주 生
· 18세때 해인사 입산
· 영월스님을 은사로 득도
· 인곡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수지
· 해인사 선원장 역임
· 조계종 교무부장 · 중앙종회 의원 역임
· 현재 해인사 극락전에 주석

―우리나라에는 호국불교의 전통이 면면히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불교는 우리나라의 국가형성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무학대사는 이성계를 도와 조선을 건국했고 도선스님은 왕건을 도와 고려를 건국하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역사의 대전환기에 이러한 스님들이 계셨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라고 할 수만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같은 독특한 현상의 원인 내지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경전이나 〈한단고기(=환단고기)〉와 같은 우리나라의 고대사서를 보면 그에 관한 힌트를 얻을수 있습니다. 경전에 보면 제석천에 석제환인이라는 임금이 있어 불교를 수호하고 널리 전파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단고기〉에 보면 7명의 환인과 18명의 환웅 그리고 47명의 단군이 있어 대를 이어 고조선을 다스렸다고 나오는데 7명의 환인 중에 석제임환인이 있어 불경에 나오는 석제환인과 일치함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건국에서부터 불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환웅이 중생들을 다스리기 위해 하늘에서 가져왔다는 삼부인(三符印)에 보면 교화이제로 성통광명(性通光明)과 홍익인간(弘益人間)을 들고 있습니다. 이는 불교의 견성성불(見性成佛)과 요익중생(饒益衆生)과 같은 의미입니다. 단군의 단(檀)이란 말에는 베풀고 산다는 의미가 있으며 보시바라밀을 원음으로 단바라밀이라고 합니다.

단군시대의 수련법을 국선도라고 하는데 신라시대에는 불교와 접목되어 화랑도로 거듭나게 됩니다. 국선도의 단전호흡법은 불교의 수식관과 일맥상통하는 바가 많습니다. 불교에서는 수식관에 부정관 인연관 자비관 계분별관을 더해 오정심관(五停心觀)이라 합니다.

―12일 분단50년만에 첫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렸습니다. 그동안 수차례나 무산되었던 남북정상회담이 새천년에 들어서자마자 성사됨으로써 통일조국의 여명이 밝아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통일조국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우리 불교가 지향해야 할 방향과 불자의 역할은 무엇인지요.

▲반야사상, 공(空)사상으로 되돌아 가야합니다. 우리 앞에 5개의 찻잔이 있다고 합시다. 가운데 있는 것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하나씩 있는데 가운데 것이 서쪽 것에 대해서는 동쪽에 위치하지만 동쪽 것에 대해서는 서쪽에 위치합니다. 자기 위치란 것은 모두 상대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자기 위치나 주장을 내세우지 않는 것이 불교입니다. 남쪽이다 북쪽이다 경상도다 전라도다 내세우지 말고 무아(無我)의 사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남더러 버려라 하기전에 내가 먼저 내 주장을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민족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어떤 새는 자기가 낳은 알을 직접 부화하지 않고 다른 새의 둥지에 몰래 갖다 놓는다고 해요 그 알이 부화하면서 다른 새의 알을 밀어내어 죽이는 경우가 허다해요. 주객이 전도되는 셈이지요. 지금 우리 국민이 그 지경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는 우리 조상을 부정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합니다.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단군신화를 가짜로 매도하면서 교정에 모셔놓은 단군성상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비록 동상에 불과하지만 자기 조상의 목을 베는 후손이 어디 있습니까? 환부역조(換父逆祖)하는데 나라가 잘될 리 있겠습니까? 민족성과 역사를 되찾는 것이야말로 호국불교입니다.

―임진왜란때에는 스님들도 창과 칼을 들고 분연히 일어서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러한 행위가 불살생의 계를 범했다는 비판도 없지 않습니다. 이같은 논의는 오늘날 참여 對 순수불교의 논쟁과도 관련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스님들은 수행에만 전념해야 하는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 사회참여를 해야하는지 그 경계점이 자못 궁금합니다.

▲〈초발심자경문〉에 보면 계는 개차법(開遮法)으로 지켜야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냥꾼에게 쫓기는 사슴 한 마리가 나룻꾼을 지나쳐 갔습니다. 잠시후 사냥꾼이 나타나서 나룻꾼에게 사슴이 도망친곳을 묻자 나룻꾼은 엉뚱한 방향을 가리켜 주었습니다. 나룻꾼은 비록 불망어계를 범했지만 살생계를 지켰으니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한 경우라 하겠습니다. 하나는 얻고 다른 하나는 막은 것이라서 개차법이라 합니다.

이러한 개차법으로 스님들이 창과 칼을 들고 일어선 것입니다. 의로운 다수의 생명과 나라를 구하기 위해 의롭지 못한 자들을 징벌하는데 나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호국불교외에 화두선(간화선)과 대승불교의 전통이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간에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앞에서 개차법을 얘기했습니다만 불교는 엄격하면서도 폭이 넓습니다. 스님들이 창과 칼을 든 것은 대승불교 차원에서 가능합니다.

부처님 재세시에 두명의 수행자가 있었는데 한 여인이 시봉을 했습니다. 어느날 한 수행자가 출타하자 여인은 다른 수행자를 유혹해서 파계시켰습니다. 수행자가 돌아와보니 도반이 여인때문에 파계한지라 홧김에 칼로 그 여인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음행과 살인을 저지른 두 수행자는 곧 후회하며 통곡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두 수행자는 부처님 제자중 계율제일로 소문난 우바리존자를 찾아가 참회할 길을 물었으나 우바리존자는 "참회가 불

문경새재 내 영혼을 시로잠는 집 전화:0344)917-9224 팩스 0344)918-9224 전자우편 mbook@netsgo.com

고산 큰스님은 어디로 가셨을까

당신, 이 아름다운 삶을 마주한 적 있는가!



다시 산중(山中)으로 돌아가며

가을이 한창 산문을 둘들이던 어느날, 우리나라 조계종 총무원장이셨던 고산 큰스님은 노구를 탁마하며 남은 여생을 보내겠다는 짧은 기자회견만으로 조계사를 떠나셨습니다. 고산 큰스님은 어디로 가셨을까? 피할수 없었던 종단분규로 인해 또 한 분의 큰 어른을 잃었다는 슬픔도 슬픔이지만 우리는 또 어느 세월, 어떤 스승을 만나 이 풍진 세상의 화두를 찾아낼 수 있을런지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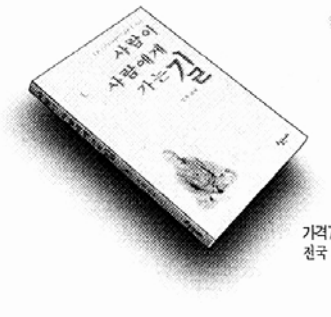
산 , 그보다 푸르고 깊은 마음을 담아

당신은 버리고 떠남으로서 찾게 되는 것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산중으로 돌아가시던 그날, 유난히 커보이던 대웅전 부처님과 환송식에 모인 사람들은 더이상 당신의 안부를 물지 않았습니다. 때마침 지나가던 가을비가 당신의 발걸음만 가볍게 적셔줄 뿐, 그날 이후로 당신을 마주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새로운 천년을 나는 무엇으로 준비해야 하나

이 책에는 오로지 수행자라는 외길로 일생을 살아온 고산 큰스님의 질박한 삶과 부처님 이야기를 통한 잔잔한 가르침이 지혜롭고 재미있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누구나 쉽게 큰스님과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새 천년, 새로운 삶을 위해 서라면 더욱 큰스님이 육필로 남기신 이 고마운 법문을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가는 길



가격7,500원 /국판/260쪽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전국 사찰의 뜻 있는 주지스님들과 불자분들의 많은 법보시를 기다립니다.

● 도서판매의 수익금 중 일부는 자비의 손길을 기다리는 가난한 이웃을 위해 쓰여집니다. ● 도서주문 문경새재로 연락을 주시면, 이 땅 방방곡곡 엄원하시는 큰스님의 뜻에 따라 한입형사를 감행합니다

"한 마음 돌이키면 치우침 없어 불교 매개로 민족 동질성 회복"

가능하며 아무리 수행해도 성불하지 못할것"이라고 했어요. 마침 유마거사가 지나가다가 이 사실을 듣고는 "한마음 돌이켜 참회하고 수행하면 성불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수행자는 진심으로 참회하고 정진을 거듭하여 훗날 아라한과를 증득했어요. 이것이 대승불교입니다. 일체유심(一切唯心)이요, 만법유식(萬法唯識)이라는 관점에서 한마음 돌이킬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나라의 간화선(화두선)도 불립문자요 교외별전이며 직지인심하여 견성성불할 것을 주장합니다. 곧 바로 마음을 가리켜 부처 이룰 것을 강조하니 호국불교와 대승불교, 간화선이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로 통하여 돌아간다고 할 수 있겠지요.

ㅡ해인사 팔만대장경은 호국불교의 얼과 전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대표적인 문화재입니다. 팔만대장경이 조성된 배경에 알려지지 않은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장경판전에는 대장경판을 봉안하고 있는 수다라전과 법보전외에 동서사간전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사간판이 팔만대장경판 보다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그 사간판에 보면 팔만대장경이 만들어진 경위에 관한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해인사 아래 합천에 이거인(李居仁)이라는 거사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날 길을 가다가 눈이 셋 달린 개 한 마리를 만났는데 집까지 따라와서는 나갈려고 하질 않아요. 3년을 키우면서 정이 들었는지 주인이 출타할 때는 10리까지 따라나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그 개가 갑자기 죽어버렸는데 이거사는 마치 가족이 죽은 것처럼 관에 넣어 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1년후에 이거사도 죽게 되었습니다. 염라국의 어느 궁궐에 도달하니 가운데에 우두머리인듯한 자가 앉아 있는데 눈이 3개였어요. 그 우두머리가 버선발로 내려오면서 "주인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제가 원래 염라국 사람으로 죄를 지어 3년동안 개로 태어나게 되었는데 주인님을 만나 잘 대접받으며 살다 왔습니다."고 말해요. 이 우두머리가 바로 3목구왕(三目狗王)입니다.

"그런데 왜 이리 일찍 오셨습니까? 내일 염라대왕님을 만나게 되면 하계에서 팔만대장경을 만들다가 왔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다시 돌아가실수 있을 겁니다"

염라대왕을 만난 이거사가 삼목구왕이 시키는대로 하자 염라대왕이 "어서 돌아가셔서 경판을 완성하고 오십시오."

이거사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 엄청난 일을 내가 어떻게 해낸단 말인가?" 삼목구왕은 "아무 걱정마시고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십시오. 내려 가시거든 권선문을 만들어서 합천군수한테 도장을 받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길이 보일 것입니다."

깨어보니 꿈이었지요. 꿈이 괴이했으나 하도 생생한지라 이거사는 권선문을 만들어서 합천군수를 찾아갔어요. 합천군수도 염부에서 시키는 일이라고 하는 말에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그때 고려국의 공주가 병이 나서 미친 듯이 소리지르며 대장경 화주만 찾는 것이었습니다. 합천까지 소문이 퍼져 이거사가 궁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거사를 보자마자 공주의 병은 거짓말처럼 나았어요. 공주의 강력한 건의로 사간판의 제작이 시작되었고 후일 외적의 침입을 물리칠 팔만대장경판을 제작하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합니다.

즉 부처님의 법력으로 나라를 구하겠다는 굳센 발원과 믿음이 호국불교의 발로인 것입니다. 나라 전체가 한마음이 되어 불법과 부처님의 위신력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컸으면 경판으로 외적을 물리칠 생각을 하겠습니까? 불법에 대한 믿음과 부처님가피에 대한 믿음이 이처럼 철두철미해야 불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팔만대장경은 호국불교의 결정체입니다.

ㅡ최근 경제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과소비 풍조는 늘고 있고 사회기강은 점점 해이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불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지요?

▲사람이 몸 관리를 잘못하면 병이 들 듯이 우리 민족은 현재 병들어 있는 상태란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남북이 분단되고 국론이 분열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치료방법이 따로 없습니다. 몸이 극도로 쇠약할때는 수혈을 해야합니다. 혈액형에 따라서 수혈되는 것이 있고 안되는 것이 있듯이 우리 민족이 다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해야 하는데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할려면 불교가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의 피속에는 불교의 정신과 사상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불교가 흥할 때는 나라가 융성했고 불교가 쇠퇴할 때는 나라가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모든것이 새롭게 변화하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에는 비울수 있는 종교, 자리이타(自利利他)할 수 있는 수행법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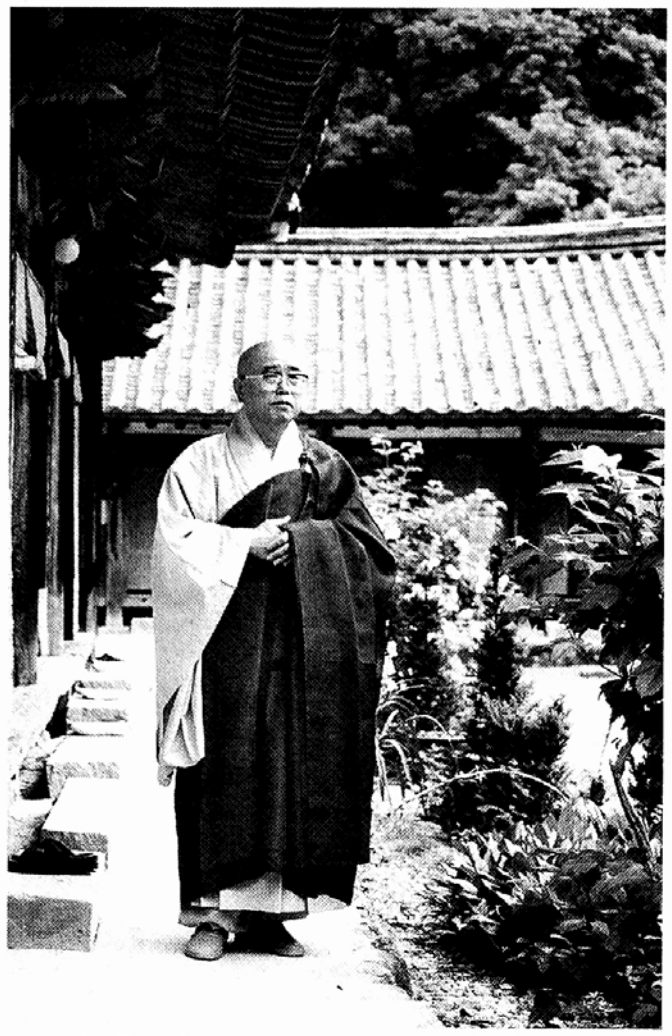
'불야타 조야타'라, 부처도 버리고 조사도 버리며 살불살조(殺佛殺祖)하는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방편이라야 합니다. 남을 지배하고 나를 따르도록 해서는 조화와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이제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습니다. 마음비우고 욕심을 버리면 욕심낸 것 보다 더 잘됩니다. 욕심내면 잘될 것 같지만 안됩니다.

진실로 참회하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열심히 하다보면 묘하게 이뤄집니다. 하다말다 하면 안되고 성실하게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남한테 베풀어 주는 것을 잘하되 가진대로 분수껏 하면 됩니다. 불교적 처세법으로는 사섭법을 들수 있는데 보시 애어 이행 동사섭, 이것만이라도 생활에서 열심히 실천해 보세요.

ㅡ재가불자들이 생활속에서 수련할 수 있는 방편을 일러주십시오.

▲중도(中道)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음을 여유롭게, 어느 한곳에 치우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자신을 가두는 틀을 만들지 말고 순리에 따르는 생활이 필요해요. 욕심을 놓고 근심걱정도 다 놓으세요. 나는 아침 예불을 올리고 나서 금강경을 1독하고 좌선시간을 가진 다음 하루일과를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고 수련을 규칙적으로 하기만 해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생활에 중심을 세울수 있다고 봅니다. 저녁 늦도록 술마시고 들어와서 아침에 일어나자 마자 허겁지겁 출근해서야 늘 쫓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지요. 수행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담=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통일조국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불자들을 비롯 우리 국민들이 지환해야 할 것은 '공(空)사상' '무아(無我)사상'이라며 불교정신만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시는 고봉스님.



◇ 고봉스님은 수행을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매일 규칙적으로 수련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신다.

고·침 지난호 12·13면의 '목우산방'을 '방우산방(放牛山房)'으로, 용학스님이 돌아가신 해를 1908년으로 정정합니다.

지묵스님의 스님이야기

■법정스님 ④

茶禪一味 (茶禪一味 頭印 落款 광)
빛과 향기와 맛을 온전히 할지어다.
지묵 아사리를 위해
불일암 佛日 (佛日 落款 광)

어느 해 단오 무렵, 합죽선 부채에 스님이 먹물 글씨로 이런 말씀을 써서 주신 적이 있다.

스님의 낙관은 석정 스님, 무용 거사, 수안 스님, 여기에 내가 판 것까지 합해서 백여 과(顆)가 된다. 나는 초기에 20여 과 정도를 파 드린 것이 있는데 여기에 찍힌 '불일'도 그 중의 하나이다. '불일' 낙관의 글씨 도안은 스님이 하시고 나는 칼질만을 하였다. 스님의 미적 감각이랄까 보시는 눈은 가히 전문가의 수준을 넘는다. 새 낙관을 보여드리면,

"이건 약간 힘이 빠졌어. 다시 해와."

"좋군. 균형이 잡혔어. 약간 옆으로 삐쳐 나와서 멋이 있지 않아?"

"날일(日) 자는 그냥 해를 그려봐. 원안에 점만 찍고…"

나는 스님의 칭찬에 신이 나서 일에 피곤을 모르고 하였다.

이야기꾼으로 키워주신 엄하고도 냉정하신 스님

불일암에서 모시고 지낼 때에 스님은 목공 일을 맡으시고 나는 석공 일을 맡았다. 일이 생기면 자기 취미에 따라 일을 하였다. 스님은 세속에서 직업을 택하였다면, '목수'나 '청소부'를 택하였을 것이라고 술회하신 바가 있다.

"내가 만약 시끄러운 세상에 살면서 직업을 선택하게 됐다면, 청소차를 몰거나 가구를 만드는 목수 일을 하게 됐을 것이다."

목공 도구가 한 살림을 해도 좋을 만큼 많다. 이런 것 저런 것 여러 가지다. 웬만한 목수 연장을 다 갖추고 있는 셈이다.

살어리
살어리 랏다
청산애
살어리 랏다
멀위랑
ᄃᆞ래랑 먹고
청산애
살어리 랏다

지금도 이 청산별곡이 새겨진 목각 현판은 불일암 부엌 입구쯤에 걸려있다. 물론 스님의 초기 솜씨이다. 서울 봉은사 시절에는 '다래헌(茶來軒)', 조계산 불일암 시절 이후에는 '수류화개실(水流花開室)' '수류산방(水流山房)'으로 거처를 나타내시는데, 낙관도 여기 이름에 따라 바뀐다.

"지묵 수좌한테는 세 가지가 안 되겠어. 낙관도 못 따라가고 수제비도 못 따라가고 이야기에도 못 따라가."

이이 야야, 차암, 지묵 수좌가 오래 이야기를 하는 데는 손을 들었어. 장장 일곱시간이야.

학교 다닐 적에 선생님 말씀에 귀 기울인 이후로는 처음이야, 남의 이야기에 경청하고 오래 듣기는."

스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한나절 하고 저녁 먹고 하고 해서 일곱시간 가까이 흘렀다. 스님이 이야기가 끝나면,

"그래? 뒷 이야기가 궁금한데…"

"재밌어. 또 해 봐."

이렇게 추켜 주시는데 그만둘 재간이 없었다. 이야기는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큰 마을 작은 마을, 이 마을 저 마을에 들어가고 천하 덮기를 계속한다. 참 신바람 나서 며칠을 해도 끝이 없어 보였을 때에 "아, 재밌다. 낼 법회로 일찍 떠나지만 않는다면… 아깝네, 자야 하니까."

이래서 이야기가 증막을 내렸다. 진지하면서 재미있어 하시는 얼굴 표정과 모습을 나는 두고두고 잊지 못한다. 나를 작은 이야기꾼으로 키워주신 이는 다른 분이 아닌 법정스님이시다. 나는 멀리 떠나



그림 · 문병성

있는 시간에 아침으로는 예불 후에 절을 올린다. 여러 스승에게 차례차례 올린다. 물론 스님께도 큰 절을 올린다. 외국생활이 6년, 그동안 좌절하지 않고 매일 국내에서처럼 지낼 수 있는 힘은 곁에서 지켜봐 주신 스승이 계셨기 때문이 아닌가 여겨진다.

미국 LA 고려사 시절, 1985년, 86년 그 무렵이었다. 운전 면허증을 필기시험 100점 만점으로 땄을 때에 스님이 "어떻게 땄어?" 하시기에 문제집을 보고 공부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몇 말씀 드렸을 때에 스님도 100점 만점 합격이셨다. 그 뒤로 차 뒷자리에 앉으시면,

"어, 속도 줄여. 좀 천천히."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가만히 계시질 않으신다. 엄한 운전 교사이시다. 정면 주차를 잘못해도 "차를 바로 세워. 비틀어졌지 않아?"하신다. 들을 때에는 별로 좋지 않지만 뒷날 회고해 볼 때에는 가슴 뭉클해지는 무엇이 있다. 갑자기 "회초리 매를 좀 때려주시지 않으시고…" 하는 간절한 정이 솟곤 한다. 스님의 손때가 묻은 〈신채호 전집〉 상 하 권을 건네주시면서,

"외국에 나가 있으면, 모국에 대한 생각을 잊지 말아요."

하시는데 이럴 때에는 엄하고 냉정한 스님은 어디 가고 자애로우신 스승의 모습으로 붉게 각인(刻印)되어 남는다.

새천년
신비람 100인 부채 그림전 (출품 요강)

▶ 취지
전법의 손길이 닿지 않는 교도소, 구치소, 양노원, 병원 사회복지시설에 「현대불교신문 보내기 운동」 일환으로 개최



※ 부채는 道를 전수하는 전법의 도구로 불가에서는 널리 이용되었음.

▶ 전시기간: 2000. 7. 21 ~ 8. 20 (한달간)
▶ 전시장소: 대림당화랑 (대구 봉산동 문화의 거리)
▶ 주 최: 현대불교신문 대구지사
▶ 작품소재: 선화, 달마, 반야심경, 사경, 불화등
▶ 접수기간: 2000. 6. 19 ~ 6. 24 까지
▶ 접 수 처: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 1013-1(2F) 우 : 701-250 현대불교신문 대구지사
▶ 전화상담: 053)983-9222 FAX 053)983-9223 H.P 011)813-3679

※ 스님 · 불자 · 예술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아리랑의 고장 강원도 정선
高養山 야생참인진쑥 엑기스

고양산 야생참인진쑥 엑기스는?



야생참 인진쑥 자연산(茵陳蒿)는 깊은 산속에서 수년~수십년간 자라면서 한겨울 눈덩이 속에서도 파란잎과 줄기를 그대로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철쑥을 말합니다. 구생복지원 임챙스님은 아리랑의 고장 강원도 정선 고양산속에서 자라는 야생 참인진쑥(茵陳蒿)을 3년동안 채취하고 고양산 자락에서 5년이상 자란 황기, 당귀, 자연산 북분자(산딸기)등 8종의 약초를 가미해 보사부에서 정식 허가(정선 제1-3호)를 받아서 현대식시설을 이용 위생적으로 추출 가공한 건강식품이므로 승려로서 자신있게 권해드리오니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다함께성불하십시다.

지금까지 시중에 유통된 일반적인 인진쑥과는 다릅니다.



구생복지원 강암행스님

공급가격 - 2개월분 ₩175,000
우체국 010108-0179782 강종무
은행신용카드 18개월 분할 가능

각종 암과 불치병 예방이나 치료에 특효라는 자연산 상황버섯, 기간지전식 · 홍억기첨에 특효라는 가래엿, 관절 · 골다공증 · 골절에 쓰이는 토종홍화씨 등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십시요

순수익이금은 (전액) 복지사업에 쓰여집니다.

체질에 관계없이 남자, 여자, 노인분들, 임산부, 노약자, 입원환자 등 모두에게 좋습니다.

1. 간이 나쁜사람.
2. 항상 피로한 사람.
3. 위장이 나쁜사람.
4. 변비가 있는 사람.
5. 고혈압, 저혈압.
6. 정력 회춘에 좋습니다.
7. 생리통, 생리불순.
8. 냉대하, 신경통.
9. 당뇨, 황달.
10. 불멸증 입원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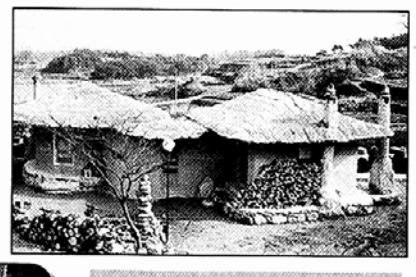
※ 남은 여생을 산과 물좋은 곳에서 황토방 생활을 하고 싶은 분은 연락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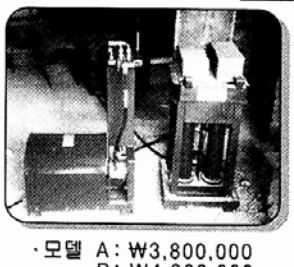
☎주 문 처 080-988-4774 ☎소비자상담실 0398-563-4778
인 터 넷 http: //www.yasenginjinssook.co.kr

황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 에
반죽 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 벽돌 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 모델 A : ₩3,800,000
B : ₩4,300,000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 30×14×14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037300 봉송황토마을

황토관련 전문회사
황토마을에서는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71)634-0223
팩스 : 0671)34-1237

세속 떠나지 않은 山…백두대간의 중추

백두대간 속으로 〈16〉



속리산 (1)

사는 일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 혹은 너무 무료한 삶이 존재의 의미를 위협할 때, 흔히 사람들은 미지의 세계를 꿈꾼다.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이라곤 아무도 없는 곳, 지금껏 보아 왔던 것들과는 전혀 다른 낯선 풍경 속에서, 새로운 삶의 명아가 싹트기를 꿈꾸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길을 떠난다. 그리고 그 길은, 일상으로의 귀환이 예약된 하루 이틀의 짧은 여행일 수도 있고, 무작정 떠도는 부랑의 길일 수도 있고, 천야만야한 낭떠러지에 서서 홀연히 자신의 본래면목과 마주치게 될 구도의 길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길 떠남'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으니, 바로 '탈속(脫俗) 지향'이다.

세속을 떠난다는 것, 어쩌면 그것은 모든 인간의 잠재 본능과 같은 '자유 의지'의 발현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불행히도 '현실'이라는 인과의 그물은 참으로 정교한 것이어서, 모든 '길 떠남'을 궁극의 자리에 닿게 하지는 않는다. 저지른 바 만큼은 어떤 식으로든 갈무리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또한 삶인 까닭이다. 그래도 '탈속의 꿈'마저 접을 수는 없다. 그것을 포기하는 순간, 삶을 가능케 하는 모든 조건들은 새의 비상을 가로막는 물 타리 같은 것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속리산(俗離山)으로 간다. 세속을 떠난 산으로 가는 것이다.

일찍이 조선 선조 때의 시인 백호 임제(白湖 林悌, 1549~1587))는 다음과 같이 속리산을 노래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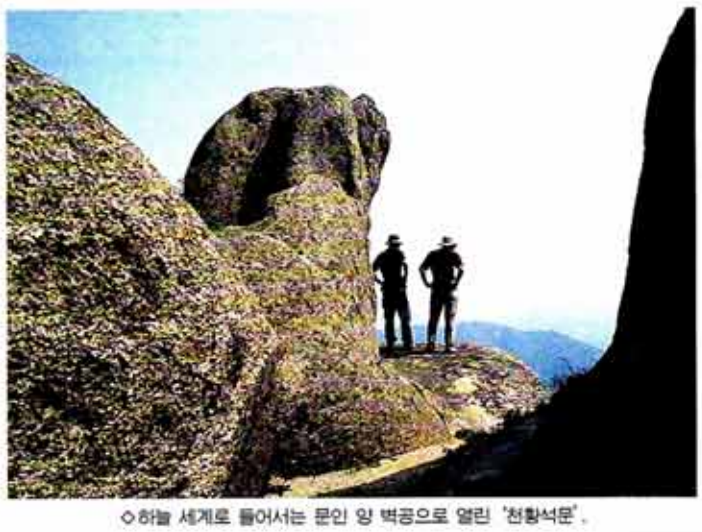
도는 사람을 멀리 않건만 사람은 도를 멀리하고,
산은 세속을 떠나지 않건만 사람은 산을 떠나네.
道不遠人人遠道, 山非離俗俗離山

분방이 지나쳐 스무 살이 넘도록 따로 스승이 없던 임제는, 스물두 살 되던 겨울 어느 날, 벼슬을 멀리하고 속리산에 숨어 살고 있던 성운(成運, 1497~1579)을 만나 그로부터 3년간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다. 이 때 〈중용〉을 800번이나 읽었다는 일화가 전하는데, 위의 시 또한 '도불원인(道不遠人)'이라는 중용의 한 구절에서 얻은 듯하다.

도가 사람을 떠나 있지 않듯이 산 또한 사람을 떠나는 법이 없다. 따라서 속리산은, '세속을 떠난 산'이 아니라 '세속이 떠난 산'이다. 실제로 속리산은 속된 것들의 범접을 쉬 허락할 것 같지 않은 풍모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속리산은 세속을 떠나 있는 게 아니라 세속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다. 굳이 풍수가의 말을 귀동냥하지 않더라도, 지도만 펼치면 누구라도 그곳이 한반도의 심장에 해당하는 곳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속리산의 깊지는, 백두산에서부터 남으로 내리뻗어 이 땅의 등뼈를 이루는 백두대간이 줄곧 달려 남해로 향하지 않고 왜 태백산에서부터 남서쪽으로 허리를 틀어 지리산으로 이어지는가 하는 의문을 풀어 주는 단서이기도 하다. 또한 우리는 이를 통해, 일제에 의해 왜곡된 산맥 체계에 따라 낭림산맥과 함께 이 땅의 등뼈로 불리웠던 '태백산맥'이 '낙동정맥'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하는 이유도 확인할 수도 있다. 백두대간이 지리산으로 향해야만 비로소 한남정맥에서부터 낙남정맥에 이르는 7개의 정맥을 아우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등뼈로서의 백두대간의 구실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초록 비다와 같은 녹음을 이룬 천황봉 오름길.


◇하늘 세계로 들어서는 문인 양 벽공으로 열린 '천황석문'.


◇형제봉에서 바라본 속리산. 화면 위쪽 가운데 부분의 바위 능선이 속리산의 으뜸 줄기다.

조선 묵객 임제 한때 입산 수도
천왕봉~문장대 바위능선 절묘

사실 배봉산에서 백두대간과 낙동정맥이 갈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옛 문헌에서도 고심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산경표를 권찬한 것으로 알려진 신경준(1712~1781)보다 앞선 인물인 이중환(1690~1752)도 〈택리지〉에서 우리 산수의 전체 형세를 말하며, "남쪽으로 수천 리를 내려가 경상도 태백산까지 한 줄기 마루로 통한다. … 태백산에서 산줄기가 좌우로 갈라져서 왼쪽 지맥은 동해를 따라갔고, 오른편 지맥은 소백산에서 남쪽으로 내려갔는데, 태백산 쪽으로 내려간 것과 비교할 바가 못 된다…"고 적고 있다. 이 땅의 산수를 1대간, 1정간, 13정맥으로 파악한 〈산경표〉의 지리인식 체계가 정립되기 전에는 단연히 그러한 생각을 했을 법하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백두대간을 으뜸 산줄기로 파악한 〈산경표〉의 지리인식 체계야말로 이 땅에 대한 가장 합리적이고도 정교한 사고의 결과물이라 하지 않을 수 없겠다.

이처럼 속리산은 백두대간의 중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떠남이란 멀리 달아나는 일이 아니라, 한복판 즉 참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길이라는 것을 말없이 일깨워 준다.

실제로 속리산의 품에 안겨 보면, 멀리서 바라볼 때의 모습이나 이름과는 달리 아주 편안하다. 법주사에서 오르는 길은 물론이거니와 천황봉에서 문장대에 이르는 등성마루 또한 누구에게나 즐거운 산행을 허락한다. 오는 사람 마다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는 태도로 모든 발길을 속가슴으로 안아 주는 그런 산이다.

백두대간 종주를 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속리산을 온전히 바라보기 위해서는 먼저 천황봉의 동남쪽에 위치한 형제봉(803.3m)에 올라야 한다. 그곳에서 바라보는 속리산은, 하나의 정수리만 도드라진 그런 산이 아니라 천황봉(1057.7m)에서 문장대에 이르는 기묘한 바위 능선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봉우리를 이루는 산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옛 사람들도 속리산에 대해서 만큼은 제1봉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봉우리 아홉이 뾰족하게 일어섰기 때문에 구봉산(九峰山)이라고도 한다"고 똑똑히 적혀 있다.

속리산의 연이어진 봉우리 전체를 산의 장수리로 파악한 흔적은 속리산의 제1봉인 천황봉의 이름에서도 찾을 수 있다. 언제부터 천황봉으로 불렸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1861년에 제작된 대동여지도에는 분명히 〈천왕봉(天王峯)〉이라 적혀 있다. 이 때의 천왕이란 가람을 수호하는 천왕과 같은 존재로 봐도 좋다. 천왕(황)봉 다음 봉우리의 이름이 법신불을 일컫는 〈비로〉인 것만으로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또 속리산 마루에 '대자재천왕사(大自在天王祠)'가 있었다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도 지금의 '천황봉'이 잘못된 이름임을 방증한다. 더 면밀한 문헌 고증을 해야 할 일이지만, 만약 일제가 한반도를 강점한 상태에서 자신들의 천황을 염두에 두고 왜곡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속리산은 그 이름과 달리 세속 가장 깊숙한 곳에서, 가장 세속적인 얘깃거리(세조와 얽힌 얘기만도 한둘이 아니다)를 만들며 우리 민족과 함께한 산이다. 다음 차례에는 주룡 종주와 함께 세속과 탈속을 오간 갖가지 흔적들을 더듬어 보기로 한다.

글=윤제학 기자
사진=손재식(사진작가)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 — 생활불교 202

여시아문 여시아문은 붓은 비, 귿 처럼 아래쪽도 같이 건너갔다는 정신으로 석가의 말씀 한 마디 한 마디를 받들겠습니다. 주소 종로구 견지동 19-21 전화 (02)737-0005 팩스 (02)737-0006

'계율'의 참된 의미와 가르침을 제대로 배우고 지키며,
참된 불자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일깨워 준다.



혜능 스님 위음
B6 변형 330쪽/ 값 6,500원

일반적으로 계율이라고 하면 '계'보다도 '율'의 의미로 이해하고,
우리의 일상과는 요원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계율에 있어서는 오히려 율보다 계가 더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계'는 외부에 우리를 속박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자발적인 정신'이다.
'율'은 국가의 법률과 같은 것이다.
불교 교단뿐만 아니라 어떤 교단이라도 반드시 규칙이 있기 마련인데, 이 교단 규칙이 바로 율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계의 입장에서 율을 지키려고 하는 데 '지계'의 진정한 의미가 생겨난다.
불교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계의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불자로서의 자각은 '믿음'에서부터 일어난다고 해도 좋지만, 불자로서의 행동은 '계'를 근본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 십귀의계(三歸依戒) — 사불괴정경, 염삼보경, 일체사경
- 오계(五戒) — 우바새경
- 팔관재계(八關齋戒) — 지재경, 불설우바이타사가경, 불설팔관재경
- 십선계(十善戒) — 십선경, 순타경, 사경, 가람경, 가미니경
- 재가 불자의 윤리 — 자비, 담미까경, 더없는 행복, 파멸, 천한 사람, 대부호, 마닷탓다, 효자, 사랑스런 이, 교계심갈라경, 옥야경
- 대승불교의 계율 — 범망경 보살계, 재가보살계본, 대방광불화엄경 정행품, 대방광불화엄경 십지품, 불유교경
- 맑고 향기로운 삶을 위한 수행의 지침 — 보살의 서른일곱 가지 수행법, 보살의 보석 염주, '마음의 훈련'을 위한 열여덟 가지 공약, 더불어 살기 위한 열네 가지 계율, 서른여덟 가지 행복의 길, 발심수행장, 대승육정참회

재가 불자를 위한 계율 강좌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 FAX: (0343)470-3116

맡기는 이도 해결하는 이도 바로 자기

믿고 맡김도 망상 아닌지요

문 스님께서는 믿고 맡기라고 자주 말씀하시는데, 믿고 맡기는 주체는 결국 마음이잖아요. 마음은 고정된 실체도 없이 뜬구름 같은 건데 도대체 실체도 없는 마음을 맡긴다는 게 성립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결국은 믿고 맡긴다는 것도 하나의 분별 망상이지 않나요? 실제로는 분별 망상도 없는데 말입니다.

답 하나하나 탑을 쌓아 올라가는 걸 점수(漸修)라 하고, 다 쌓고 마지막에 봉우리까지 올려놓는 걸 돈오(頓悟)라고 합니다. 돈오와 점수가 둘이 아닐 뿐만 아니라 마음자리는 돈오, 점수라는 언어도 붙지 않는 자리입니다. '모든 걸 지켜보면서 관하라'고 하면, '뭐 지켜볼 게 있느냐' '그 지켜보는 놈은 누구냐'고 반문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유를 달지 말고 그대로 자기 근본을 믿고 거기서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맡겨 놓으세요.

맡기는 것도 자기요, 해결하는 장본인도 바로 자기이니 지켜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감응이 되고 체험을 하게 됩니다. 닥쳐오는 대로 맡겨 놓고 체험을 하고…, 그게 바로 돌 하나하나 올려서 탑 쌓는 거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로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본인이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실험을 해 보세요.

잠자면서도 맡기는 방법

문 요새 스님의 법어집을 읽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좋은 글이 많아서 읽고 있으면 시간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방하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현실생활에서는 의식이 있어 믿고 내려놓지만 잠을 잘 때는 어떻게 주인공을 믿고 내려놓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수행이 높아지면 몽중일여다 숙면일여다 해서 꿈속에서도 깨어있는 경지가 있다 하는데, 꿈속에서는 의식이 없어 주인공을 찾지 못해 무기에 빠지는 건 아닌지요? 우매한 대답인 걸 알지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 자면서 꾸는 것도 꿈이요, 생시에 사는 것도 꿈입니다. 그러니 꿈 아닌 게 하나도 없지요. 그래서 무슨 일을 잘되라고 할 때도 '꿈 잘 꿔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꿈을 잘 꾸고 못 꾸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이 문제입니다. 언짢은 꿈을 꾸었다고 해서 나쁘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됩니다. 나쁜 꿈이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 생각을 바꿔서 '나를 가르치는 꿈이요, 나를 이끌어주는 꿈이구나'하고 돌려서 주인공에 맡겨 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꿈이 그냥 밤에 잘 때 꾼 꿈이 아니라 바로 공부요, 그대로 실천인 것입니다. 그것이 24시간 참선인 것입니다.

또 생시에도 그렇습니다. 생시에도 무슨 생각이 들면, 이것도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건데, 사방을 딱 둘러보고 이것이 해야 할 자리인가 아닌가 한번 검토해 보고 결단을 내리는 것도 법입니다. 그것도 꿈이구요. 말에만 끄달려서는 절대 안되고 하나를 한다 하더라도 실천을 하는 데에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평상시의 생활이 그대로 참선이 됩니다. 생활이 그대로 도라고 하는 도리를 반드시 증득하기 바랍니다.

어머니 위해 어떻게 마음 낼지…

문 저희 어머님은 한마음 선원 신도인데 7년 전 췌장암 수술을 받으시고 곧 돌아가실 거라고 의사들이 준비하라고까지 하였으나 지금까지 근근이 살아오셨는데 최근 들어서 복수가 차고 심한 통증이 오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마음으로는 몸 바꾸실 준비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조상님께 천도재도 올리고 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계시나 저는 딸된 입장이라 어떻게 관해 드려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어서 몸 바꾸시라고 마음을 내야할 텐데 아직도 어머니가 안 계신 세상은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스님의 가르치심 부탁드립니다

답 사람이 죽으면 육체가 죽는다고 모두 생각을 하는데 육체가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죽는 게 진짜 문제죠.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마음이 건강하시니 죽고 살고를 떠나서 정말 자유스럽게 살아가고 있군요.

우리 육신은 차와 같습니다. 운전수가 한 철 잘 끌고 다니면서 일을 하다가 더 좋은 걸로 바꿔서 또 다시 끌고 다니는 차와 같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 겉껍데기가 나라는 생각 속에서 살아가겠습니까? 어머니의 보이는 모습은 사라진다 할지라도 어머니는 언제나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편안하게 남은 여생을 준비하실 수 있게 착을 놓으세요.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진정 어머님을 사랑하거든 본인이 마음공부를 하도록 하세요. 그래야 어머니께서 왜 그렇게 여여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고 또 참된 효도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될 테니까요.



그림 · 최주현

닥쳐오는대로 맡겨놓고 체험하며
나쁜생각도 근본자리 돌려놓아
24시간 생활이 참선되게 하세요

사랑하던 사람 잊혀지지 않아…

문 누군가를 향한 마음을 털어내 버리려면 어떡해야 합니까? 이룰 수 없는데 보고 싶고, 그립고, 외롭고, 너무 괴롭습니다. 어차피 불가능한 일인데 이제 그만 툴툴 털어내고 편해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에 놓으려고 해도 잘 되지를 않는군요. 자꾸 집착하게 됩니다. 어떻게 허서든 이루어지게 할 수 없을까 하고 자꾸 집착을 하게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주인공에게 놓아야 할까요? 정말 너무나 힘든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큰스님, 제발 저를 이끌어 주세요.

답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좋다고 하고 싫다고 하는 게 그냥 뜬금없이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수많은 생을 살아오면서 엮어온 그 인연줄에 의해서, 그 인연에 따라 형성된 업식에 의해서 생기는 감정들이에요. 그 관습에 매달려서, 그 인연줄에 매달려서 그냥 생각이 꼼짝을 못 하고 있다가 적당한 때가 되어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이루, 하고 눈에 불이 번쩍나게 되는 거죠. 그 업식때문인 걸 모르고서 그것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원수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좋은 놈 싫은 놈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만약에 부부, 자식지간이라 할지라도 그 자식들의 몸을 붙들지 말고 부부의 몸을 붙들고 매달리지 말고 그 마음을 둘 아니게 놓고 슬기롭게 굴린다면 몸은 저절로 붙들어지고, 사랑은 저절로 화(化)해서 자비가 되고, 그렇게 더불어 하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묘법이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을 하거든 놔줘라, 부부지간에도 싫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진짜 사랑한다면 보내줘라, 붙들고 있는 게 사랑이 아니다' 그리고 진짜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육신을 붙들고 함께 해서만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마음으로부터 자유스러워질 수 있게 이끌어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좋아하는 마음도 싫어하는 마음도 알고 보면 근본에서 나온 환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좋다 나쁘다 하고 분별하는 생각을 그 자리에 되돌려놓아야만 합니다. 나쁜 인(因)뿐만 아니라 좋은 인도 놓으라고 했는데 내 곁에, 내 소유로 하려고 하는 마음은 더욱 가당치도 않지요. 그러니 상대방이, 좋은 인연을 만나서 정말 후회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크게 한 생각을 내줄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사랑을 넘어선 자비임을 알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돌아가신 친척 꿈속에 나타나

문 존경하는 큰스님, 좀 도와주십시오. 불교에서는 영가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돌아가신 친척분이 눈만 감으면 생각나고, 생각을 안 하려 해도 꿈에 나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영가천도를 할 수 있을까요?

답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어느 신도분이 흉가집이라고 남들이 다 꺼려하는 집을 싸게 사서 들어갔습니다. 그건 이 도리를 공부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맡기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둘이 아닌 도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싸게 사가지고 들어가서 그냥 삼켜버린 겁니다. 얼른 쉽게 말해서 영에다 영을 넣으니까 영이 된 겁니다. 그대로, 수만 개의 영을 영에다 집어넣어도 둘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도 그렇지만 산 사람도 마음이 있으니까 전부 결부되는 겁니다.

영가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는다기 보다는 무(無)의 법이 따로 있고 유(有)의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들이고 내는 자유로운, 자재로운 생각이 그대로 공법입니다. 그러니 걱정할 것 없이 생각나는 대로 내 안의 용광로인 나의 근본, 주인공에 다 넣어버리세요. '주인공, 조상의 마음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닌데 저렇게 체가 있는 줄 알고 매여있는 저분의 마음이 자유로울 수 있게, 그 의식의 차원을 넘어서게 하는 것도 당신만이 이끌어 줄 수 있잖아.' 하고 진실하게 관한다면 하나가 되어서 흔적도 없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거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적게 했다고 안되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알건 모르건 정말로 그렇게 믿고, 진실하게 돌려놓기만 한다면 둘이 아니기에 넣어도 넣어도 늘어나지 않고, 꺼내도 꺼내도 줄지 않고, 또 꺼내는 사이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영령을 용광로에 집어 넣어서 공심, 공생, 공체가 된다면 오히려 더하고 덜함도 없이 따뜻하고, 자기를 자기가 죽이는 법이 없으니 평화스러워 집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스님이 거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자기로서는 무척 다급해서 마음 내주기를 바라는데, 마음과 마음은 체가 없으니까 한 사이 없이 하고 오고 간 사이 없이 오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의심하지 말고, 보이고 들리는 대로 내 안의 근본에 전부 밀어 넣으세요. 그렇게 해 나가면서 시간이 나면 선원에 와서 법회도 참석하고 스님들과도 얘기를 나누다 보면 보다 더 쉽게 해낼 수 있으니 자주 나오면서 열심히 정진하세요.

부드러운 사람 되고 싶어요

문 저는 불교에 적을 둔지 7년 가량 되었으며 교직에 있습니다. 나름대로 수행을 한다고 생각되다가도 어떤 경계에 부딪치면 화가 오르고 성내는 말을 뱉아야 합니다. 구업으로 짓는 죄를 알기에 대인관계나 학생을 대할 때 좀 더 부드러운 사람으로 다시 나고자 합니다.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수행법이 필요할까요?

답 내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잘 못 나오든지 잘 나오든지 두 가지로 요약해서, 잘 나오는 거는 '부드러운 말과 행과 뜻으로 애들을 대할 수 있게 이끌어 줘서 감사해!' 하고 또 잘 못 나오는 거는 '당신만이 부드러운 말과 행과 뜻으로 애들을 이끌어 가게 할 수 있잖아!' 하고 놓으라구요.

그리고 업이니 죄니 하는 말들을 흔히 하는데, 업을 지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업을 짓는 겁니다. 내가 함이 없이 하는데 업이 어떻게 지어집니까?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데도 그 지혜가 안 돌아가는 게 바로 업이에요. 알고도 또 그렇게 되풀이를 하니 말이에요. 그러니 업이 있다 없다를 따지기 전에 그 생각마저 근본에 몰락 내려놓고 훨훨 털고 자유스럽게 살아가세요.

관할 때 내 의지와 상관 없는지

문 제가 관을 할 때 '이렇게 오는 모든 것이 당신으로부터 왔고 당신 것

☞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제 1기 達摩禪法
자감(自感) 영통법사 교육 (전국지역지부지회 모집)

道理는 相生이며 道術은 弘益이니
達磨禪法으로 도를 覺하고 五行變化로 도리를 究하며
千手觀音으로 도술을 得함이 三尊修行이라
古往今來 병을 물리치고 마귀를 쫓으며 화를 피하고
복을 부르는 治方을 수행의 요체라 하니
靈動神氣와 神明自感이라. -白常 禪師-

【특 전】
· 연수 및 분기별 교육예정 · 본연합 연대사업 적극 지원
· 각 과정 수료시 지도법사 자격증 수여 · 장묘문화(화장, 납골) 사업
· 사찰 및 포교원 개원시 적극 지원함 · 민박-세계관광 연대 사업
· 해외 법사 위촉 및 해외 활동지원 · 각종 사찰 불사사업 지원
· 각 지역 지부장 위촉 교육지도 할수 있음

【해외지원】
CIOI 중국(장백, 연길) JIOI 일본(도쿄, 하까다)CAIOI카나다(알브타)

【국내지부지회 (대모집)】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인천, 춘천, 진주, 울산, 마산, 포항, 경주, 청주, 대도시 및 소도시

◆접 수 방 법: 이력서(사진첨부), 간단한 자기소개서 우편접수 및 팩스로 접수 하여야함
◆ 기 간 : 2000 수시 접수 가능함 (1차 2000.6.20까지)
◆1차교육수련회비: 30만원
◆계 좌 번 호 : 농협 150042-52-200478 예금주 이 민택
※ 이력서 : 자기소개서,교육 수련회비, 입금표 접수한 분에 한하여 면접 상담 후 지역 지부장으로 추대코져함

세계 상생운동연합 ioi 달마선원 세계원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 1013-1(2층)
전화 053)982-4976 팩스 053)983-9223

3개월 특별속성반 — 한국불교법사대학
불교전통의식 수련생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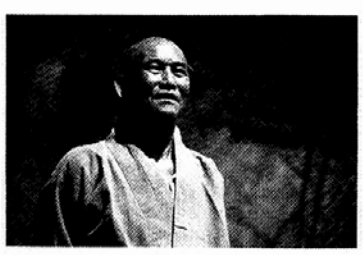
본 대학에서는 다음과 같이 불교전통의식을
3개월 속성으로 수련하실 분을 특별 모집합니다.

●수련과정 : 특별속성반 3개월 과정
●교육방법 : ① 출강 …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오후 6시~8시(2시간)
② 통신 … 교재 및 테이프 우송
●교육내용
① 송주편(도량석 · 조석종성 등)
② 예경편(상단예불 · 조석예불 · 각단예불 · 향수해례 · 사성례 · 신중단 등)
③ 헌공편(삼보통청 · 중단퇴공 · 불공시식 · 관음 · 지장 · 신중청 등)
④ 재의식편(천도재 · 49재 · 시다림 · 기제사 · 명절제사 · 방생의식 등)
⑤ 시식편(관음시식 · 화엄시식 · 구병시식 등)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사진 3매, 주민등록등본 1통
●접수마감 : 2000년 6월 30일까지(현재 접수중)
●접수방법 : 전화 접수 후 서류 제출
●개강일시 : 2000년 7월 3일 월요일 오후 6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대학은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 부설 법사양성 교육도량으로서 불교전통의식을 여법히 교수함
• 초심자라도 의식 집전을 할 수 있도록 상세히 지도함
• 속성 3개월 과정으로 특별 모집함

한국불교법사대학
전통의식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1 (견지빌딩 3층)
☎ (02) 720-1836 · 733-1959
Fax. (02) 737-5305
http://pubsa.buddhism.org

각종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력이 있는
설악산 신흥사 거룡 범주스님의
선식 검정콩 '金단花화'





"왜 콩을 통째로 삼키느냐, 한번 보세요. 염소 배설물처럼 자그마하죠? 그런데 이게 항문을 통해 나오는 것을 보면, 4~5배 불어나 어른 손톱만큼 불어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분석해본 것은 아니지만, 위 대장 소장을 거치는 동안 각종 노폐물과 세균을 흡착하는 것 같아요. 내가 대변으로 배출된 콩을 씻어서 씹어보았더니 아이고! 소태보다 더 쓰더라니까"

옻나무와 소나무의 옻진과 송진을 채취하여 두어달 발효시킨 뒤 마늘, 토종꿀, 감식초, 부추, 대파, 생강의 생즙을 낸 다음 옻진 송진 발효된 것과 잘 혼합하여 검정콩을 액체에 담궜다가 건져내 따뜻한 온돌방에서 10일간 말려내면 30세 이하가 복용하는 초벌용 금단화가 완성되고, 이 과정이 두번, 내지 세번 반복되며 액체에 담그는 횟수에 따라 약효가 달라지는데 40세가 넘는 성인용의 경우 숙성 기간이 족히 2개월을 넘는다는 설명이다. 하면 일반에서도 금단화를 제조하여 먹으면 좋겠지만 옻진이 한되에 기천만원을 호가하며 그마저도 국산 옻진을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 여성동아 1월호 인터뷰 내용 중 -

"선식 검정콩은 특히 변비, 다이어트에는 빠른 효과를 보이며"
3개월 복용한 "분당"의 한 주부는 4kg이 빠지고
더부룩하던 증세가 1달만에 깨끗이 없어졌다고 자랑이 대단하다.
7월 29일 MBC TV 「고향은 지금」 오전 8시 30분 방영!
"꾸준한 금단회 복용은 어떤 병이라도 치유해 낼 수 있는 인체의 자생력을 길러 주어 병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시켜 준다."

효능 당뇨병, 간장병, 부인과, 피부과, 변비, 치질, 다이어트용, 위장병, 정력, 장청소, 혈압, 치매, 관절염, 신경통, 혈액순환, 체질개선

상담문의 ☎ (02) 3437-8282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 FAX:(0343)470-3116

모든 것 한데 합쳐 돌아가니 '청정'

☞ 15면에서 계속

이니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그냥 놔두면 되는 것입니까? 나의 의지도 없이, 나의 욕망도 관계가 없이요? 외롭다고 느끼는 것도 그렇습니까? 스님,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 매사를 다 그 자리에 놓으라고 하니까 '그렇게 놓으면 난 어떻게 삽니까?' 이러는데 주인공과 내가 따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이 항상 함께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내 몸뚱이가 산다고만 한다면 주인공의 지혜가 나오지를 않죠. 그래서 모든 일을 일체 주인공 자리에 놓고, 맡기는 작업을 한다면 그게 바로 함이 없이 하는 것이 된다고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걸 반야심경에서는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다라고 한 겁니다.

사는 거나 죽는 거나, 하는 거나 보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일일이 작용하는 것이 전부 그 하나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작용이 들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나 하나에서 나오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있으니까 이 모든 것이 생겨났으므로 나로부터 알아야 된다, 나부터 믿어야 된다, 나부터 발견해야 된다, 발견했으면 그 작용이 바로 나한테서 나오는 거고, 그 작용이 나한테서 나온다면 일체가 다 주인공에서 나오는 거다, 이 몸뚱이는 주인의 시자일 뿐이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나한테 닥치는 어떠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근본인 나의 주인을 믿고, 주인의 뜻에 따라서 하는 것이 그대로 법 아닙니까? 주인의 생각이 따로 있고, 내 생각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내 근본과 둘 아니게 자문자답하면서 하루 하루를 보내신다면 외롭지도 않고 허전하지도 않을 겁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놓는 것이 아닙니다. 놓는다는 것은 그것을 더 지혜롭고 공부하게, 나와 남이 다 좋도록 이끌어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 정말로 놓으세요. 개별적인 나를 내세우는 마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근본과는 멀어집니다.

참되게 자리이타로 사는 방법

문 내 마음을 내가 알지 못할 때는 법당에 가서 부처님을 뵙고 있으면 모든 것이 구름같고,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알듯 알듯 하다가도 결국은 답을 얻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곤 합니다. 참되게 살고 남도 위하고 남을 위한 것이 곧 나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굳세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조직의 체계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때는 모든 것을 끝내고 조용히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하지만 가정이 있고 가정 속에서 아내와 자식이 있기 때문에 또 아니구나 하고 그 조직 속으로 가곤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모두를 위하여 현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른 길을 일러 주십시오.

답 모든 것은 개별적으로 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면의 생명들도 개별적으로 사는 게 하나도 없구요. 그래서 예전에 선지식들께서는 제자들이 "나는 시끄러워서 공부를 못하겠으니 토굴을 짓고 산으로 올라가겠습니다." 하면 "너 그러면 땅도 짚지 말고 옷도 입지 말고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아라. 토굴을 짓더라도 나무로 지어야 하는데 왜 남의 것을 꺾어다가 지으려고 하느냐." 는 말씀에 홀연히 깨우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공생·공심·공용·공체·공식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서로 주고 받고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나무들이 공기를 좋게 해서 우리에게 주고, 우리는 또 나무들이 먹게끔 내놔주고 하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청정하다는 것은 그냥 깨끗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체 중생들의 눈물이 강으로 모이고, 또 구정물·핏물·고름물·깨끗한 물 할 것 없이 모든 물이 한데 합쳐서 돌아가는 것을 청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조스님께서는 "내 어찌 청정함을 알았으리까?"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청정한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인공에 맡겨놔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맡겨놓지 않으면 한 곳에서 들고 나는 그 청정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면 청정함도 모르니까요.

내 한마음이 안으로 뭇 중생들을 다스리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대로 생활을 하면서,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해야지 몸뚱이로 생각으로 쫓아가려고 애쓰지도 말고 버리려고 애쓰지도 말고 그대로 생활 속에서 오는 것대로 마다하지 말고, 공부하는 데 재료로 삼는다면 스스로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까닭

문 화면으로나마 스님의 모습을 가끔 뵙는 불자입니다. 스님의 좋은 말씀 실천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잘 안됩니다. 언제쯤이면 이 책 저 책 뒤지지 않고도 부처님의 말씀을 몸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스님, 부처님께 공양을 왜 올리는지도 모르고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만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기물, 꽃 공양, 대중공양에 대해서도 저는 다기물은 깨끗한 마음, 대중공양은 자식,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스님께서 깊은 답 주시면 마음 속 깊이 새겨두겠습니다.

답 꽃은 사람의 마음,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꽃 공양입니다. 아름다운 마음은 나뿐만이 아니라, 우주만상이 서로 전달을 하고 찰나찰나 돌아가는데 어떻게 내 아름다움만 있겠습니까. 그래서 꽃 공양이라고 합니다.

향 공양은 우리가 아름다운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마음으로 생각을 잘하는 것이 우주법계에 마음과 마음을 전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의 마음의 양식이라고 하지요. 필연적으로 죽은 사람에게는 더욱더 향을 피우게 되죠. 마음의 양식이라고 해서 말입니다. 마음을 내지 않는다면 발전도 할 수 없고,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목석인데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마음의 향을 피울 줄 알아야 공향이 되지, 마음의 향을 못 피운다면 그냥 물질적인 향일 뿐입니다.

그리고 미(米) 공양은 우주 삼라만상 대천세계 만물만생이 시공을 초월해서 찰나찰나 전달을 하고 돌아가면서 서로 공생·공용을 하고 있고 공식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처님이 혼자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자기가 혼자 먹습니까. 혼자 먹어도 혼자 먹은 사이가 없지요. 내 몸 속에도 생명체가 수 십억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더 먹었니 덜 먹었니 할 것도 없이 더불어 함께 하는 공양이지요.

그리고 청수를 올리는데, 물을 올리는 건 사람의 마음,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의 공양입니다.

우리 몸뚱이 자체가 지·수·화·풍으로 바탕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물을 마시든, 꽃을 꽂든, 일을 하든, 어떤 걸 하든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어떤 물건을 만든다 하더라도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게 어디. 넓게 생각을 해보면 전체 공동으로 먹고 공동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것도 바로 공행이 되는 거고, 공양이 되는 겁니다.



그림 · 최주현

주인공에 놓고 맡기는 작업이 바로 함이 없이 하는 도리죠

과거 현재 한생각에 바꿀 수 있어

동호회 방에 이상한 글 올라와

문 저는 인연이라는 불교카페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계속 이상한 사람이 글을 올리고 있어요. 이유인즉슨, 그 사람은 자기의 견전하지 못한 사생활을 밝히면서,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으며 법우님들은 모두들 가식적이다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법우님들은 그분께 좋은 이야기, 나쁜 이야기 다 해주면서 각성을 요구하지만 모두들 가식만을 내놓고 있고 자기와 진검승부를 하지 않는다면서 비웃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깨달은 사람이고, 법우님들은 모두들 어리석은 중생들쯤으로 취급하더군요. 그 분 때문에 기분좋게 들어온 법우님들의 맘이 더욱 심란해지고 있습니다.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답 우리가 살아나가는 동안에 흐르는 물소리를 듣죠. 흐르는 물을 보죠. 또 그게 얼고 파도를 치다가 잔잔해지죠, 또 바람이 불면 온통 나무가 흔들리죠, 가을이 되면 낙엽이 져서 떨어지죠. 사계절을 볼 때 말입니다.

잔잔한 물을 보면 사람의 마음이 아주 숙연해지면서 잔잔해집니다. 파도가 치는 걸 보면 아주 산란해집니다. 그러니 이것도 스승이요, 저것도 스승이요, 낙엽이 져서 가을에 뚝뚝 떨어지는 걸 보면 구슬퍼지고 날이 추우면 아주 쓸쓸해지죠. 요렇게 간사해요. 그러고도 그것이 그대로 철칙인 것이죠.

그런데 저 나무들은 모두 나같이 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그냥 쫓아가면 안 되죠. 그게 좋으면 그것대로, 또 같이 살면서 넘어가고 넘어갑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이것 보고 저것 보고 하면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본 게 없느냐? 그 눈 가지고는 금방 보고 금방 넘어가고, 금방 보고 금방 넘어갔기 때문에 담아두질 않았어요. 담아진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려면, 가는 것 일부러 쫓아가서 잡지 말고, 오는 것 막지 말고, 하다 못해 부처가 온다 하더라도 꿀꺽 삼킬 수 있고, 또는 마구니가 온다 하더라도 꿀떡 삼킬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것은 자기가 마음의 실천을 해보지 않으면 이 도리를 납득하지 못합니다. 가는 것 잡지 않고, 오는 것 막지 않는다는 이 뜻을 말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거든지 걸림이 없이, 가는 것도 오는 것도 그대로 법인데 뭣 때문에 간다, 온다 야단법석을 하겠습니까? 공부하는 수행자라면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전체를 다 삼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엄마가 가르칠때 짜증이 나요

문 저는 초등학교 4학년에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 공부도 잘하고 싶은데, 엄마는 제가 답답할 정도로 이해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시나봐요. 특히 수학 공부시에는 자상하게 가르쳐 주는 엄마가 짜증스러워 제가 고집을 부리면 당연히 엄마도 큰소리가 나지요. 저는 공부하면서 운 적이 많아요.

큰스님, 예를 들어 엄마가 나를 혼내고 있다, 주인공에게 관했는데 안되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엄마나 저도 좋을까요? 저는 친구들에게 뒤지고 싶지 않고, 엄마가 가르치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답 그래,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이 상하지 않기를 바라는 네가 가상하구나. 그러나 이런 게 있어, 네가 꾸지람을 듣게 되고, 엄마의 마음이 상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잘해야지, 내가 열심히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다보면 그만큼 너의 마음이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게 돼, 그렇게 '내가 해야지' '내가 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건 그만큼 기대도 한다는 말인데 그러다 결과가 생각만큼 좋게 나오지 않으면 네 마음은 더 힘들어지지 않겠니?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밖에 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실망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 내가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안절부절 하지를 말고 네 마음의 뿌리이며 친구인 주인공 자리에다 모두 맡겨, '주인공, 당신만이 물리(物理)가 터지게 해서 선생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도 하고, 나를 너무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도 아프지 않게 할 수 있잖아.' 하고 맡겨봐.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조용히 앉아서 너의 영원한 친구인 주인공에게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너 뿐이야.' 하고 너의 고민을 다 맡겨놓고 편안히 쉴 수 있도록 해.

과거의 업 지우고 싶어요

문 현대불교신문의 신행생활을 읽어보니 큰스님 말씀 중에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더군요. "예를 들어 과거에 살았던 자기 이름에 빨간 줄이 쳐져 있으면 현재에 살면서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에 살 때에 그 빨간 줄 쳐진 것을 빼와야 됩니다. 지워져야 됩니다." 이 말씀은 과거로 돌아가 그 당시의 내 잘못을 지워 현재를 바꿀 수도 있다는 뜻인지요? 정말 그럴 수도 있나요? 주인공을 믿고 놓기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건가요?

답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기에 주인공이라고 하는데, 모든 것이 주인공에서 나오는 것이니 주인공에서 해결할 수 있고, 또 주인공 자리를 깨닫게 할 수 있는 것도 주인공이라는 걸 믿고 진실하게 구해야 체득할 수 있습니다. 괴롭다 하면 괴롭지 않는 것이 따르고 망상이다 하면 망상 아닌 것이 따라 붙으니, 수박을 놓고서 쪼개서 먹지 않고 아무리 이리 굴리고 저리 굴려 봐도 도무지 수박의 맛이 나오지 않듯이 말입니다.

늘 콩깍지 얘기를 합니다만, 콩씨를 심어서 콩나무로 화했는데도 과거의 콩씨를 찾는다면, 그래서 과거의 콩씨와 현실의 콩나무가 둘이 아닌데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자꾸 과거로만 돌아가려고 하면서 씨를 찾으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그 모든 게 한 생각에 몰락 벗어날 수 있으니 그 한생각 한 생각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극하게 믿고 돌려놓을 수만 있다면 내 안에 입력되어 있는 의식을 모두 조복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거다 미래다 현재다를 떠나서 '지금의 한생각 속에서 자유를 얻어라.'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량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실험을 해보고 체험을 해 보세요. 그래야 한생각에 과거도 지우고 현재도 바꿀 수 있는 이 마음공부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 무엇이든 벗어날 수 있는 공부라는 것을 알게 될 테니까요.

빛을 봤는데 흔적이 없으니…

문 스님, 저는 꽤 오래 전에 뻐꾸기 소리를 듣다가 문득 제 발 밑에서부터 빛이 순간적으로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빛이 눈앞까지 차는 순간 '아니, 이런 일이?' 하는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빛이 거짓말같이 사라져 버리더군요. 눈을 떠서 기억을 떠올려보니 그 빛이 너무나 밝고 밝아 그 어떤 것도 견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잠 속에서 생각 하나가 문득 끊어지면서 아래에서 불덩어리가 하나 올라오더니 제 이마에서 터지고는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때 느낌은 생시도 꿈도 아니라는 느낌만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똑같지는 않지만 이상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믿기가 너무 두렵고 주위에 물어보려고 해도 믿지 않을 것 같아서 제 혼자 속으로 끙끙 앓다가 처음으로 큰스님께 여쭈어 봅니다. 제 딴에는 두려움이 아직 남아 있어 그렇다고 생각해보지만 더 이상은 나아가기가 무척 힘이 들어서 이제는 거의 포기상태입니다. 저는 분명히 봤는데 흔적이 없으니 어찌해야 할까요.

답 우리는 잘하든 못하든, 알든 모르든, 내가 있기 때문에 책을 볼 수도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말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도 하는 거고, 천차만별의 작용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작용하는 나를 누가 형성시켰을까요. 바로 자기란 놈이 형성을 시켰습니다. 자기란 놈이 형성시켜 놨으니까, 형성시킨 그 놈이 바로 부(父)가 되는 겁니다. 참자기가 되고, 그래서 형성된 자(子)의 마음은 바로 부의 마음과 둘이 아닌 까닭에, 나무는 반드시 자기 뿌리를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형성시킨 자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자가 부로 하나가 되고, 또 생각을 냈다 하면 부가 자로 와서 하나가 되고, 그러니 부다 자다 할 것도 없는 자기 주인공을 진실히 믿는 데에 모든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도 전자의 내가 나오기 이전 부가 지금 현재의 자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낌없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볼 때에 바깥으로 이렇게 우쭐하지 말고, 그것조차도 거기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놔야죠. 또 그것도, 그러니까 빛이나 어떠한 것이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가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와 근본 사이에 막 아닌 막이 있는데 그 막이 조금 트여서 그렇게 보여 준 거니까 그것을 감사하게 놓고 다시 정진을 해야 막이라는 그 자체마저도 없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조금 트인 걸 붙들고 있다면 트인 그 자리가 다시 깜깜해져요. 내가 봤다, 내가 이만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 공부를 해 나가다 조금 보였다 할지라도 아는 건 알고 놓고 터득을 하는 건 터득을 하는 대로 놔야 합니다. 터득은 했을망정 깨달은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깨달았다' 고 모두들 얘기들을 하는데 그 용어는 좀더 귀중하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느꼈다' 또는 공부하는 과정에서 좀 '터득을 했다' 이런 말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앞에 부처가 누워있다 하더라도 그냥 집어삼키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정진력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거짓된 언덕을 넘고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43-470-3116)앞이나 인터넷 부다피아(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 · 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 · 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최소규격 및 가격

세로 5cm × 가로 4cm (1회 4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회이상 게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건강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관단식
안내책자 무료우송
⊙수련장: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93)834-1115~6
016)849-3858
012)1166-3858

天然地 氣 探知機
(땅의 기운이 영험해야 인물이 난다)
※ 전국의 명당 기 측정기
강화도 마니산 → 65회전
체인사 독성각 → 46회전
팔공산 갓바위 → 16회전
P대통령 생가 → 50회전
K대통령 생가 → 50회전
세계 최초로 공개
특별 보급가 35만원
(수맥탐지기 1세트 증정)
전화주시면 팜플렛 우송
TEL:053)982-4976/011)813-3679
靈動神氣와 神明自感이라

강좌

역학 수강생 모집
▶과목: 사주, 육효, 신수, 작명, 관상
▶과정: 정규반, 연구반, 자격증반, 창업반
▶시간: 오전10시~12시, 오후 3시~5시
(월~금, 주5일)
※ 매주 토요일 관상학 특강: 오후 6시
▶강사: 엄윤문 원장(명학비해 外 20여권 저술)
김회선 선생, 관상학의 달인
▶기타: 사주감정 의뢰하실 분(3만원 입금후 전화요)
제일은행(105-20-163426) 엄윤문
▶문의: 02)752-9013
청운역리학원

전통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불전의식
▶ 기본과정 : 도량석, 헛송, 예경, 불공시식 대령, 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다비의식, 제반의식 등
▶ 중급과정 : 천도의식, 바라무, 작법무, 특별의식 등
▣무료강좌
▶ 생활불교의식과정 : 예경, 통과의례, 고사, 불공 가정의례, 법회의식, 기도의식등
▶ 교육기간 : 3개월 ▶ 지방수강생 상담 환영
전통불교의식 연구원
02)481-4482

사주명리학
책임개인지도 완성까지
숙식제공 가능
※공양주 하면서 역학공부 하실 분 환영함
진주시내이면서 조용한 기도 도량
0591)755-6997/759-1514
016)612-9204

역학 강의합니다
▶ 과 목 : 서주 · 관상 · 육효
▶ 교 재 : 千江月(봉인저) 복서정종
▶ 과 정 : 4개월
▶ 장 소 : 관음사 포교원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 천년을 이어온 중국 정통역학
· 불교 도교도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 지방 출장도가능
02)396-6079/016)852-5255

사주 명리학 강의
★ 6개월 완성 ★
초보에서 완성까지(스님직강)
(사주, 택일, 궁합 작명등)
※스님 佛者 환영 ※
월 · 화 · 수 오후 2시부터
인천 032-504-1387
H.P 011-9046-9903

구인구직

입산 위승 수행을
원하는 사람은
노적사로 연락바랍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북한산 노적사
02)353-5016(종무소)
353-4924(주지실)

부전스님을
구합니다
051)264-9621
263-9623

공양주 보살 구함
신심이 돈독한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55세)
서울 노원구 상계4동
산152-1 수락산 도솔사
02)952-4204
952-9932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나이
55~65세사이
02)
888-3393

수양원

수양, 기도하실 분
공부할 학생
기도하시기 좋은
최적의 도량
합천호부근 **청강사**
· 가액 : 월30만원
(약간명 모집)
0599)932-5706

◆청학사 수양원◆
■수양 · 기도 · 공부 · 참선
■1인 1실-침구 일체 완비
■月 숙식비 : 30만원
■명퇴자, 실직자 환영
0595)883-2935
0595)883-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단체 불교수련대회 접수 받습니다.

불교용품

보리수불화공방
◆사찰탱화 및 각종 불화
◆재가불자를 위한 관음도 및 지장도
◆98년 전승공예대전 장려상 수상
02)442-3277
011)9904-3277

보이산차
40년생, 15년생 입하
칠지병차 소타차
고산 오룡차 철관음
※ 염가판매 ※
전화주시면 견본보내드립
02)911-6798
017)406-6682
茶道里

보 리 수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 주 불교악세사리 광 약 | 일 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0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핸드폰 : 017-231-5345

불자들을 위한 생활한복 염가판매
각종 중국차와 다구도 있습니다
茶 侶
서울 구반포 한신종합상가 1층 나열 15-2호
02)3477-5336

기타

도메인 서비스 홈페이지 제작
웹호스팅 각종 프로그램 개발
【CGI, PHP, ASP, JAVA】
http : //www.mapsi.net
E-mail : webmaster@Mapsi.net
상담전화 ☎ 02) 2246-2376

현 대 자 동 차
불법성 삼보님께 귀의합니다.
"스님 · 불자님의 자동차 구입에서 폐차까지 믿음으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대 구 진 천 점
원응 곽영순 합장
011)509-9456/053)639-1100
(부재시 메모주시면 즉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마늘의 약효
마 늘 커 피
100% 토종 구운마늘
◆심한 피로 · 정력강화
◆간기능 획기적 개선
◆혈압, 혈당치 낮추고 장 · 변비개선
◆손발냉증 · 피부 고와져
◆감기에 강한 체질로
▶가격: 분말(230g) : ₩39,000
환 (250g) : ₩45,000
동양물산(주) 02)832-0742

운명을 바꾸는 神秘의 벽조목
600년된 벼락 맞은 대추나무로
만든 행운의 벽조목길인
▶ 사업성공, 건강 ▶ 부부화합, 승진
▶ 취직 시험합격 〈 고등고시, 행정고시
▶ 결혼성공, 득남득녀 ▶ 매매, 증권투자
· 용도장특별보급가 7만원
· 행운의 벽조목 도장 5만원
전화주시면 팜플랫 안내서 보내드림.

053)982-4976/011)813-3679
(선착순 50명한하여 길인 새겨드립니다.)

사찰안내

사찰(급) 안내
◆위치 :서울시 은평구
◆대지 : 60평
◆건물 : 법당10평, 요사채10평
방2개
◆가액 : 1억 1천만원
※무속인도 가능함
02)354-3844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강원 경계지역
서울에서 1시간 40분 거리
◆ 부지 : 2만 7천평
◆ 건물 : 대웅전, 무량수전
지장전, 산신각, 용왕각, 선방
요사3동(전체 단청완료)
◆ 산세가 수려하며 맑은 계곡물이 흐름
◆ 가격 : 답사후 절충
(중간소개배재/직접당사자임)
017)373-5998

토굴 안내
◆ 위치 : 경남 울산시 울주군
광동면 대안리
바닷가에서 3Km 산중
◆ 대지 : 100평
◆ 건평 : 18평, 조립식 주택
051)508-6779

사찰 안내
◆ 위치 : 수원시내
◆ 대지 : 부지 250평
(법당, 요사채, 산신각)
◆ 특징 : 주차장 완비
사찰 25여년 동안 운영
◆ 가격 : 답사후 절충
011)785-5670

포교원 안내
◆ 위치: 산본신도시
◆ 평수: 53평 (방2개, 후원, 사무실 등) 건물 4층에 위치
◆ 가격 : 보증금 1천만원
월40만원 시설비 답사후 절충
※ 조계종 승적두신 스님 모십니다.
0343)393-9215
016)417-0013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금정구
구서시장 부근
◆ 건물: 2층 40평, 주방1개
방3개, 법당1개
◆ 삼존불 및 탱화 완비
◆ 가격 : 보증금 13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700만원
017)582-8077

전원주택지 · 암자터 안 내
◆ 위치 : 춘천시 사북면 지암리
◆ 평수 : 3500평(대지100평포함)
◆ 특징 : 물좋고, 계곡과 도로와 접해있고, 산세좋음. 남향
암자터나 전원주택지로 좋음 분할가능
◆ 가격 : 평당 3만 5천원
011)283-7766

사찰(급) 안내
◆ 위치 : 충남 서천군 마산면
210번지 영주암
서천에서 차로 5분거리
◆ 대지 : 100평
◆ 건물 : 5평짜리 방2개, 목욕실
주방, 태양열, 법당, 산신각4평,
요사채10평, 흥행화
◆ 가격 : 4천 5백만원
0459)953-3478/951-3308
011)9805-5315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시 중화동
◆ 평수 : 30평, 2층
◆ 가격 : 보증금 1천만원
월 55만원
권리금 1,500 ~ 2000만원
017)276-8020

포교원과 철학관 안 내
◆위치 : 대전 역전
◆법당 20평, 철학관 15평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세70만원
시설물, 가재도구 일체 1천만원
042)253-3545

사찰운영하실 분
◇위치 : 평 택
◇법당 : 10평
◇요사 : 40평
◇부지 : 130평
◇가액 : 1억 2천만원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 하실 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연결해 드립니다.
(서울)0502)713-5634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급) 안내
◆위치 : 충남 예산
◆부지 : 700평
◆건물 : 조립식45평
(법당15평 요사30평)
◆가액 : 6천 5백만원
0458)333-1163
018)407-1244

암자교환 원함
◆ 위치 : 익산시 신용동
원대뒤 700미터
◆ 부지 : 등기필130평, 국유지 40평, 총 180평
◆ 임법당 10평, 주방9평, 큰방1, 차량진입, 부지 넓은 산속 암자와 교환원합니다.
◆ 가격 : 전세3천, 양도7천
0653) 853-1666

사찰 안내
◆ 위치 : 울산 언양
◆ 평수 : 70평
◆ 건평 : 약 60평내
(임법당 20평+공방실 16평 + 방5개), 화장실2개, 욕실2개
◆ 가격 : 8천만원
(전세4천 5백)
052)254-1929/011-9315-1200

사찰 안내
◆ 위치 : 인천
◆ 평수 : 1500평이상(국유지)
◆ 건물 : 건평28평, 임법당
방1, 주방, 욕실
◆ 특징 : 인천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고, 산세 좋은 청정도량임.
◆ 가격 : 월세가능(답사후 결정)
※인연있는 스님이나 보살님을 찾습니다.
032)874-0194

사찰 안내
◆ 위치 : 강원도 영월군 하동면 내리 계곡 태백산 소백산 경계선 관광지
◆ 평수 : 6만평 도량내에 부지 1천 8백평 현재 천탑, 천불 조성중이며 기와, 단층 40평 창고 등등 (자금관계로 급매)
◆ 특징 : 산세와 계곡풍경이 아주 좋으며, 좌우백호가 뚜렷하고 봉황이 알을 품고 있는 형국, 대사찰 부지임
◆ 가격 : 답사후 절충
0373)378-1618/011)512-7155

사찰 및 포교원 안내
◆ 위치 : 군포시 당동
◆ 대지 : 120평
(25×10×8m) 코너
건평 120평(법당, 주택, 상가)
◆ 가격 : 5억 2천만원
전세 2천만원/ 월 40만원
(지하층) 융자 6천만원 포함
0343)454-1133
011)386-6467

포교당 운영하실분
◆ 위치 : 서울 송파구
◆ 평수 : 약40평, 법당20평이상 큰방2개, 주방
◆ 특징 : 불사시설 완비, 위탁최적
◆ 가격 : 보증금+시설비
3800만원 월세있음.
사정상 급매, 가격절충 가능
011)9928-5945

사찰 안내
◆ 위치 : 충남 온양시
◆ 부지 : 300평(년 28만원)
◆ 건물 : 법당 목조단청12평, 산신각 4평, 요사 13평(욕실2개)
◆ 가격 : 6000만원
017)705-6531

사찰 안내
◆위치 : 경북 경주시 선도산 무릉왕릉옆
◆대지 : 105평, 골기와33평 아래채10평
(현재사찰 운영중)
◆가격 :1억 2천만원
0561)743-5730

사찰 안내
◆위치 : 강원도 양양 남설악산 소재
◆토지평수 : 1종교육지 1000평 임야2,150평
◆건물 :법당25평 콘크리트석굴법당 요사60평 스라부집 선방60평 경량철골12간
◆특징 : 44국도변 진입도로8m×150m 사찰중심으로 계곡물 흐름, 약수물 100m 지하수 주거지600평 사용(무료)
◆사정상 공사금액의 50%에 양도하겠음. 가격은 답사후 조정 약 3억 5천
0396)672-2900/2911
011)352-7751(의원주지스님 찾으면됨)

토굴터 안내
◆ 선착순 1명 (찬스!)
◆ 양산 통도사 옆 계곡물 졸졸
◆ 부동산 거래사절(직접)
◆ 총 500평 등기 350평
◆ 가격 : 4500만원
011)508-1781
053)767-6705

사 찰 안 내
◆ 천혜의 명당 사찰 "터"
◆ 도심에 위치, 대단위 주거지 인접
◆ 임산 배수의 형(한강조망)
◆ 사회 복지시설 용도 최적
◆ 위치 : 동작구 흑석동
◆ 면적 : 377평(주거지역 대지)
◆ 평당/1,700,000원 정도(시세의 절반 가격)
◆ 융자 알선(2억 정도)
◆ 신심있는 불자 소유
현지답사 안내: 011-236-6918(소유자)
017-324-8689

암자 안내
◆ 위 치 : 광주에서 30분거리
◆ 대 지 : 200평
◆ 임법당 : 20평
◆ 요사채 : 20평
※ 주위에 녹차밭과 암반수가 있음
◆ 가격 : 8천만원
062)672-4388
011)606-1976

토굴(암자) 안내
◆ 위치 : 지리산 백운산등으로 둘러싸이고 앞으로 섬진강이 굽어 들어오며 흘러감
◆ 대지 : 130평, 법당1개
요사채1개, 방4개, 보일러식
◆ 가격 : 4천 5백만원
0664)781-4898

포교당 운영하실 분
◆ 위치 : 대구시 북구 노원 3가
◆ 건물 : 3층 임대건물 약50평, 법당30평, 거실 및 방20평
◆ 특징 : 법당 시설 완비 협의 가능
◆ 가격 : 전세 보증금 3천만원 운영중
018)576-6552

사찰운영 안내
◆ 위치 : 서울, 등산로 약수터 입구
◆ 대지 : 65평, 법당25평(2층) 요사 50평(1층), 지하실 20평
◆ 특징 : 산밑, 시내 아파트 인접 마을버스 절 안내 간판
◆ 조건 : 정법포교하는 스님
011) 241-0408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 평수 : 36평
◆ 가격 :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2천 5백만원
※ 전국의 사찰, 절터, 포교당 양도 양수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좋은인연됩시다 **동진불사**
02)326-1060
053)964-2060
018-334-9021

사찰 (급)안내
◆위치: 경기 이천 소재(장호원)
99년 행정수도권 서울 근린지역
◆대지 437평, 법당 27평(사무실포함) 법전 요사 15평(거실1 방3),요사 43평
◆가액 : 4억6천이나 급매로 절충하여 정함
◆교환가◆특징 : 1.취락시가지 확정 2개 대학과 약45만평 전자공단의 요충지
2.신고속도 건설중 서울50분대
3. 녹지푸른 청정도량(고시원운영)
0336)643-9051/017)430-9051

사찰 안내
◆ 위치 : 구리시 교문동 664번지 불광사
◆ 대지 : 151평
◆ 건평 : 약 30평, 방2개 및 법당 약 15평, 거실, 목욕탕
◆ 가격 : 3억 7천만원
0346)562-6904
016)464-6905

사찰 안내
◆ 위치 : 충남 예산군 덕산면
◆ 대지 : 430평 (등기필)
◆ 건물 : 1층 70평(법당20평) 2층 20평
◆ 특징 : 교통 편리하고, 포교 최적지, 덕산온천옆
◆ 가격 : 2억 3천만원(절충가능)
0458)337-6348

불자 세상보기

동강댐 건설계획 백지화

정부 '지속가능발전위' 구성…환경정책 진일보

불교는 땅 물 불 바람 등 모든 생명현상을 인간의 주관과 소유적 관단에 근거해 파악해서는 안된다는 '환경사상'을 밝혀왔다. 물론 개발논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범망경〉의 "모든 흙과 물은 다 나의 옛 몸이고 모든 불과 바람은 다 나의 본체이니 항상 방생을 행해야 한다"는 부처님 말씀을 보면 무분별한 자연훼손은 그것이 곧 우리 자신을 해치는 것임을 가르쳐 준다.

지난 5일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동강댐(영월댐) 건설 계획 백지화를 선언했다. 게다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약속까지 했다. 여기에 난(亂)개발 문제 해결을 위해 준농림지를 폐지하기로 한 것이나, 환경친화적 기업을 적극 우대하기로 한 것 등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특히 3년여 동안 지루한 논란을 야기시킨 동강댐 건설 백지화나 환경친화적 기업육성은 자연친화적인 발상이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등 환경·사회단체들이 설치를 촉구해왔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 약속은 환경정책의 진일보라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지속가능발전'이란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에서 처음 도입된 개념으로 '미래세대의 필요를 충족할 능력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이라는 의미를 띠고 있다. 이것은 〈법구경〉에 나오는 "사람은 자연을 이용할 때 자연의 풍요로움이나 아름다움을 오염시켜서도 안되며 자연에게서 회복력과 활력소를 빼앗아서도 안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여기에는 '자연이 곧 인간이고 인간이 곧 자연'이라는 신토불이(身土不二) 사상이 깃들어 있다. 이처럼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부처님 말씀은 〈법구경〉〈범망경〉〈니건자경〉〈유마경〉〈화엄경〉 등 대부분 경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인간과 자연의 연기(緣起)는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의 환경보호는 취약하기만 하다. 경찰청이 지난 4월말부터 5월말까지 한달간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등 4대강을 비롯한 주요상수원의 수질환경오염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2067건을 적발해냈다. 적발된 업체들은 염색공장, 폐유리공장, 건축회사 외에 병원, 호텔, 양식장 등이 포함돼 있어 업종을 가리지 않고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수질환경오염사범은 지난 1년 동안 경찰이 검거한 948건의 2배가 넘는다. 또한 일상환경에서의 환경경시 풍조나 소각장과 같은 환경시설들에 대한 지역이기주의의 개선은 아직도 요원하기만 하다.

다행히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날로 성숙해지고 있는 것은 희망적이다. 최근현대환경연구소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설문 대상자인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620명 중 '개발보다 환경보호가 중요하다'고 답변한 사람이 75.2%였고, '다소 비싸더라도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구입하겠다'는 응답은 79.4%로 높게 나타났다.

불교는 '허공에 뱉은 침은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평범한 진리를 가르친다. 환경을 해치는 것도 바로 허공을 향해 침을 뱉는 것과 같다. 침은 허공에 머무르지 않고 뱉은 얼굴에 떨어지기 마련이며, 바람을 거슬러 티끌을 뿌리면 도리어 자기가 뒤집어쓰게 되는 이치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매향리서 인간띠 잇기 100여개 시민단체와 주민 3000여명은 6일 경기 화성군 우정면 매향리 미공군 폭격 연습장인 '쿠니사격장'에서 인간띠 잇기 행사를 벌이고 사격장 폐쇄, 환경파괴 전면조사, 주민 피해에 대한 민관합동조사 등을 요구했다.

교육문화회관 장애인 행사 대관거부

"너무했다"

한국교원총연합 산하 교원공제회가 운영하는 문화시설인 서울 서초구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이 정신지체 장애인들의 장애인영화 시사회 행사를 거부해 물의를 빚었다.

영화전문 인터넷 사이트인 채티비(chatv)가 정신지체 장애인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마이러브 리키'의 개봉을 앞두고 교육문화회관에 극장 대관 신청을 했으나 특별한 이유없이 거절당했다는 것이다.

채티비 관계자는 당초 '좋은 취지'라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던 교육문화회관측이 긍정적 반응을 보인지 하루만에 "윗선에서 장애인들과 관련된 행사는 싫어한다"며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후 교육문화회관측은 극장장이 "장애인 시설도 없는데 받을 수 있겠느냐고 해서 안된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구비유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장로 비구가 위중한 병을 얻어 한 절에 누워 있었는데, 역한 냄새 때문에 아무도 돌보려 하지 않았다. 부처님은 손수 그의 몸을 씻어 주며 말씀하셨다. "여래가 세상에 온 것은 이와 같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다. 이들에게 공양하면 그 복은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될 것이다."

이번 영화 시사회에 초청된 장애학생들은 신체활동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정신지체아들이라고 한다. 이 사회 모두가 교원공제회 같다면 장애인들이 설 자리는 과연 어디일까. 교원공제회는 마땅히 장애인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한다.

8천겁 인연인데… 젊은 부부 협의이혼 급증

남녀가 만나서 부부의 인연을 맺는 것은 과거세에 맺은 8천겁 인연이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이런 부처님 말씀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전통은 부부의 인연을 소중하고도 아름다운 것으로 여겨왔다. 그런 깊은 인연을 단지 말 몇 마디로 쉽게 끊어버리는 젊은 부부들이 늘고 있다. 최근 대법원에 따르면 1995년 7만,여건에 이르던 협의이혼 건수가 지난해에는 12만 여건으로 5년새 5만건이 증가했으며, 올 4월까지만도 4만쌍 이상이 협의이혼으로 헤어졌다.

주로 20~30대 부부 사이에서 급증하고 있는 '협의이혼'은 까다롭고 복잡한 재판이혼과는 달리 부부가 이혼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판사 앞에 출석, 이혼 의사만 확인하면 몇 분 이내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눈물을 흘리거나 후회하는 부부들도 없다고 하니, 이들에게 이혼은 그저 조건이 맞지 않는 계약을 파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남편 출세도 좋지만… 내조 과외까지

'출세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한다'

한 사설교육기관이 소위 '잘 나가는' 남편의 부인들을 대상으로 남편을 더욱 출세시키는 '내조법 강좌'를 열기로 해 비난을 사고 있다. 이 강좌는 사회교육기관인 MBO전략연구소 부설 성공교육원이 다음달 4일부터 열기로 한 것으로, 이 강좌에는 인맥형성과 유지방법, 정보 수집 및 관리방법, 대중연설원고 작성법과 제스처 취하는 방법 등이 포함돼 있다. 자격도 5급 이상 공무원과 대기업 부장 이상의 부인들만 가능하며, 최근에는 국회의원 부인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한마디로 '정신나간 사람들의 행태'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 매사에 솔선수범해야 할 상류층 인사의 부인들에게 학연과 지연을 이용하는 방법을 가르친다니 도대체 무엇이 사람 사는 바른 도리인지, 더욱이 이 강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세만 하면 된다는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어리석은 사람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지 않고 반대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애쓴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은 하려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만을 열심히 한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사람처럼 행동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을 늘 본받아야 한다"

'높으신 남편' 부인들에게 수강문의에 앞서 〈증일아함경〉 읽기를 권한다.

시론

불평등한 SOFA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 SOFA)'은 1967년부터 발효된 것으로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다.

수사권 조차 없는 한국경찰

그런데 이 협정이 불평등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군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권의 제한, 미군 기지내 한국인 노등자들의 노동 3권 제약, 관세혜택, 미군이 사용하는 시설물의 환경오염에 대한 무책임등이다. 특히 미군 범죄자에 대한 우리나라의 재판권 행사문제는 미군 당국이 요청하면 한국이 재판권을 포기할 수 있고, 피의자가 미군 관할지역에 있는 경우 미군 당국이 구금하며, 한국에서 복역중인 미군 범죄자를 미당국이 미국에서 복역할 수 있도록 요청하면 한국측은 '호의적 고려(Sympathetic consideration)'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호의적 고려'라는 표현은 법적 기준으로는 막연한 것이다. 따라서 정치적으로, 주관적으로 운용하거나 해석할 수 밖에 없다.



황진수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얼마전에 술집 여종업원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매카시 피고인은 한국경찰이 손을 대지 못하고 미군으로 넘겨져 '불구속재판'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철저히 '인권을 보호'하다가 신병관리 소홀을 틈타 탈주했다. 나중에 잡히긴 했지만 우리나라가 중범죄 용의자를 일반 외국인처럼 처벌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SOFA가 규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SOFA규정에는 미군이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검거직후부터 신병은 미군헌병대가 인도해 가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 경찰은 사실상 수사권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 이외에 우리 나라 법원은 미군인, 미군속, 초청계약자 및 그 가족에 관한 범죄까지도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사실 1997년에는 미군 범죄수가 543건이었으나 재판권을 행사한 경우는 31건으로 5.7%에 불과하였으며, 1999년에는 956명중 34명만이 우리법원의 재판을 받아 전미군 범죄자 중 3.5%에 그쳤다는 건 우리 법상식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일본이나 나토에 주둔하는 미군의 경우에는 우리와 상당히 다르다. 일본의 경우 1960년 '일·미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 제 6조에 의거하여 미군피의자를 기소한 후에는 일본이 신병을 확보할 수 있고, 살인, 강도, 강간 등 중범죄의 경우에는 기소 전에도 신병인도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거기에 비해 우리 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난 후에야 신병을 인도받을 수 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이태리 등 12개국은 '주둔군 지위에 관한 북대서양조약기구 체결국간의 협정'을 맺었고, 이 협정에는 형사사건의 주둔국 관할은 물론, 출입국 관리, 과세 및 관세 면제 및 민사관할권까지 규정하고 있다. 말하자면 상호주의적 원칙을 준수한 평등조약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시민단체들은 이 외에도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땅이 약 9천만평이고 이를 공시지가로 환산한다면 12조원에 이른다는데 미군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소파 개정 요구 움직임에 대한 미군의 견해는 "소파협정은 지금 잘 운용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협상재개 필요성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미국 측은 또 협상이 재개 되더라도 의제를 형사재판 관할권 문제에 국한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 미온적 태도로 일관

여기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태도는 어떠한가! 정부는 국민감정과 직결된 문제만 다루어서 일단 여론의 비난을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매우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노근리, 매향리 사건과 더불어 소파문제가 반미감정으로 비화되지 않을까 매우 조바심하는 태도이다. 정부는 '개혁 100대 과제' 안에 들어있는 SOFA개정문제를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 또 미국측도 조그마한 것을 얻으려다 큰 것을 잃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대체의학 의사 자격증
대체의학(침구, 기공) 강사모집
라이베리아 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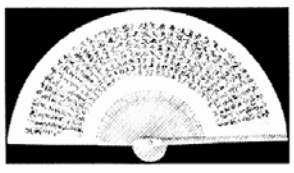
라이베리아 정부 보건복지부에서는 대체의학 의사 자격증을 취득할 사람들을 연수시킬 스님 또는 법사를 제주도 경상도 전라도 경기도 충청도에서 모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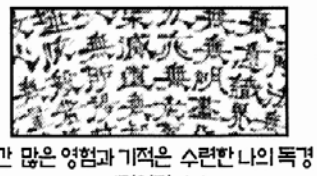
※ 침술을 할 수 있는자
※ 기공을 할 수 있는자
※ 약초 치료를 할 수 있는 자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사진
▶제출처 :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Welfare
Republic of Liberia
1000 Monrovia 10, Liberia
TEL 231-226317
Deputy Minister John Fania
▶임시전화 연락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72
(영프라자 빌딩 705호)
▶문의전화 : 주야간 (0417)583-9179
주 간 (0344)970-6980

관세음보살님께 전수받은
팍 엽 체

수십년간 작품을 모시고 영험을 본 기적!!
나의 작품을 모시고 재수가 있고 취직이 되고 입시등 시험 합격 가정이 화합하고 투쟁시비가 없고 부부간이나 가족이 마음이 안정해짐





수십년간 많은 영험과 기적은 수련한 나의 독경 위신의 기력인것이다.
나의 친필 작품을 모셔보지 않은 사람이 이런 영험과 기적은 모를것이다

▶입금계좌
농협 801814-51-031377
예금주: 김 춘 길

선천기간중 보급가
· 합죽반야선 친필 13만원
· 법화경 수랑품 친필 20만원 10폭
· 佛字나 기타 액자 친필 3만원

연락처 : 0591) 746-7350 017) 552-7350

우 리 가 정 에 꼭 있 어 야 할 책 들 입 니 다



남산스님의 숨겨진
민간요법과 놀라운 치료법

화제의 신간



첨단 의학의 틈새를 파고드는 놀라운 민간 요법. 수천 년 전의 민간비방의 비밀이 담긴 책. 사상 체질을 쉽게 알아내는 법과 건강을 지키는 호흡법, 가정에 있어야 하는 상비요법 7가지 등 다채로운 내용을 쉽게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남산 스님 지음/ 신국판/12,000원

내 병은 왜 낫지 않을까?

좋은 인연 맺는 법



현대인의 마음을 열어주는 남산스님의 산중 에세이!
골리지도 말고 물러서지도 말고, 좋은 인연을 맺는다는 것은 중도의 길을 걷는 것과 같다. 이 책 속에는 세상사 분별과 갈등이 없는 대자유인의 마음이 담겨있다
남산 스님 지음/ 신국판/7,500원

오다가다 만난 인연 모두가 부처라네



'파스요법'의 남산스님이 쓴 죽비같은 에세이!
한 스님의 좌충우돌로 맺어지는 인연의 야단법석. 이곳에 참된 진리가 있다. 교만과 독선, 이기적인 사고방식으로 물든 현대사회에서 진실한 자아를 찾아주는 삶의 지침서가 될 것이다.
남산 스님 지음/ 신국판/7,500원

남산스님의 파스요법 비디오



파스 한 장으로 만병을 다스린다!
파스를 이용하여 자기 몸 속의 질병을 다스리는 21세기 대체의학. 각종 호흡기질환에서 부인과 질환까지 파스 한 장이면 뚝! 각종 '남산스님의 파스요법'이 드디어 비디오로 출시되었다.
판매공급처 : 도서출판 아카데미북 / 값 20,000원

※ 관절염, 류머티스, 신경통, 위장병으로 고생하시는 스님들에게는 남산스님께 연락 주시면 무료로 약을 보내드립니다. -방문사절, 전화상담- 0502)988-6565

도서출판 아카데미북 대표전화 3471-5008 팩스 :3471-6575 ※ 지금 서점에 있습니다.



◇불교를 비롯해 가톨릭, 원불교, 기독교 등 4개 종교 대학생들이 모여 '한국 종교 대학생 연대'를 만들었다.

"젊음앞엔 종교벽 없죠"

4대종교 '대학생 연대' 발족

종교화합 · 사회활동등 앞장

3일 동국대 학술문화회관에서 발족식을 가진 '한국종교 대학생 연대'는 △고통받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회참여 운동 활성화 △종교간 화합 도모하는 실천운동 전개 △건강한 대학문화 육성 △연대를 통한 사회문제 공동 대처 등의 사업 기조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부터 세차례에 걸친 4개 종교 회장단 연석회의 끝에 발족된 '한국 종교…'는 앞으로 봉사활동과 평화캠프 등 종교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펼칠 계획이다.



◇방수 · 방화 효과가 뛰어난 '파이어스톱'을 도색한 과천 보광사.

우리인드라 도색방염재 '파이어 스톱' 개발

사찰 화재 예방효과 탁월

목재 보호용 도색 방염재인 '파이어 스톱(fire stop)'이 시판돼 목조 건축물이 대부분인 전국 사찰의 스님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독일서 개발된 이 제품은 방염 기능이 뛰어나 방범 체계가 허술한 산속의 사찰 방화를 막아 준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또한 '파이어 스톱'은 약품 성분이 목재 내부 깊숙히 스며들어 내외부에 특수한 무기질 보호막과 소화성 방어막을 형성해 목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한다. 특히 방충 · 방부 · 방균 · 방습 효과도 좋은 이 제품은 사찰 불사 이외에도 불교 문화재를 비롯해 통나무로 만든 목조 전원주택, 선박, 인테리어 목제품 등에 이용되고 있다. 독일과 제휴해 '파이어 스톱'을 각 사찰 불사에 이용하고 있는 불자기업 '우리 인드라'는 '파이어 스톱' 외에도 기와의 동파 방지와 지붕의 잡초 및 이끼 제거에 효과가 있는 '크린타스'도 도색해 준다. 또 야외 불상 및 석조 문화재의 부식 방지와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되는 '크리스톤'도 판매하고 있다. 이 제품들은 목재면의 이물질을 제거한 뒤 세척 건조해 스프레이와 붓으로 도색하는 등 시공 방법도 간단하다. 가격은 평수에 따라 결정된다.

강정기사장은 "불교의 장엄물 들은 주로 목재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자칫 관리가 소홀하면 소실될 우려가 많다"며 "이 제품들은 목재 보호의 기능이 뛰어나 불교 문화 유산을 관리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02)739-1156

음식 끓여먹고 바람 잘통하게

올여름 장마는 예년보다 이른 6월 중순에 시작돼 7월 초순에 끝난다는 것이 중앙 기상대의 예보다. 장마가 시작되면 30도를 웃도는 기온과 70%에 육박하는 습도 때문에 생활 환경은 곰팡이와 병원균 등 불청객들이 판을 치게 된다. 또 사람들은 불쾌지수가 높아져 평상시의 신체리듬을 잃기 쉽다. 장마철을 쾌적하게 보내기 위해 '유비무환'의 자세로 발병하기 쉬운 질병들과 대처방법, 주요 세균들의 감염경로, 집안 관리법 등을 미리 챙겨봐야 할 때다.

장마철 질병예방 · 쾌적환경 유지법

◆주의 해야할 질병

△콜레라=콜레라균은 주로 오염된 식수나 음식물, 과일, 채소, 어패류 등과 장례식과 같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경우 제공되는 오염된 음식물을 통해 감염된다. 6시간에서 길게는 5일까지 잠복기를 거치며, 대개는 24시간 이내에 발병한다. 전형적인 증세는 잠복기가 지난 후 묽은 설사가 시작되며 심하면 구토, 발열, 복부통이 일어난다.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은 부패한 음식물이나 식수의 섭취를 금하는 것이다. 백신에 의한 예방은 비용에 비해 효과가 낮아 비효율적이다.

△비브리오 패혈증=6월~10월사이 서남해안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저항력이 약한 허약자들이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피부에 상처를 입으면 발생할 수 있다. 보통 1~2일의 잠복기를 거쳐 오한 발열과 함께 복통 구토 등이 동반되면서 수포 등 다양한 피부병변이 발생한다. 보건원 발표에 따르면 섭씨 56도 이상 열을 가하면 균이 파괴되거나 수돗물에서도 쉽게 씻기기 때문에 그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한다.

△기관지천식=기관지천식을 앓고 있는 사람은 추위나 기압의 변화에 민감하다. 갑자기 기온이 내려갈 때는 발작이 일어나기 쉬우며 지금까지 발작이 일어나지 않았던 사람도 장마철에는 위험하다. 특히 장마철에는 습도가 70%를 넘으면 곰팡이가 활발하게 번식하기 때문에 에어컨과 습기제 등으로 습기를 자주 제거해 주는 것이 좋다.

△만성관절류마티스=기압이 낮거나 습도가 높아지면 증상이 악화돼 통증이 심해진다. 대책으로는 냉방이 잘되는 사무실 등에서는 관절이 차지 않도록 옷이나 수건으로 감싸 주는 것이 좋다. 또 방독의 가장 일반적인 원인이 된다. 주로 요리하는 사람의 상처를 통해 번식하다가 음식물로 전해진다. 이 균은 끓여도 없어지지 않으므로 음식물이 부패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상책이다.

△레지오넬라균=냉방병의 원인이 되는 균이다. 주로 25~42℃ 정도의 따뜻한 물을 좋아해 인공적인 급수시설에서 나타난다. 고열, 오한 등의 증상을 보이므로 에어컨의 냉각수를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쾌적한 집안 관리

△부엌 · 주방=싱크대 하수구에서 악취가 날때는 식초를 섞은 뜨거운 물을 흘려 보낸다. 또 조리대와 찬장은 알코올로 닦은 뒤 문을 열어 통풍이 잘되게 한다. 행주는 매일 삶는 것이 좋고, 도마와 칼은 2일에 한 번씩 뜨거운 물에 소독해야 한다.

△옷 · 이불=눅눅해진 옷장 안에

어패류 생식 비브리오 패혈증 초래

행주 매일 삶고 옷장 신문지 넣도록

의 습기를 자주 빼주고 매일 미지근한 목욕탕에 들어가 관절을 많이 움직여 주는 것이 예방에 효과적이다.

◆주요 세균들의 감염경로

△살모넬라균=대장균과 함께 장염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세균이다. 상한 계란, 돼지고기, 마요네즈 등을 먹었을 때 나타난다. 2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치며 음식을 끓여 먹는 것이 절대적인 예방책이다.

△황색포도상구균=장마철 식중독의 가장 일반적인 원인이 된다. 주로 요리하는 사람의 상처를 통해 번식하다가 음식물로 전해진다. 이 균은 끓여도 없어지지 않으므로 음식물이 부패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상책이다.

△가구 · 가전용품=습기에 민감한 목조가구는 벽에서 10㎝정도 떼어 두는 것이 효과적이고 오디오나 컴퓨터는 바닥에 스티로폼을 깔아 습기를 차단하는 것이 좋다. 갑작스런 번개에 대비해 장시간 집을 비울 때 가전제품의 전원 코드는 빼두어야 한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고려의 명장 강감찬 장군이 태어난 '낙성대' 안내판을 유심히 보고 있는 서울 역사 순례단.

"국보 남대문 처음 올랐어요"

서울 역사현장 순례 중고생 6백명 참가

"이곳에 있는 탑들은 국보급 문화재들인데 보존에 어려움이 있어 방치되다가 이곳 박물관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문화재 보호 인식이 높아진다면 언젠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겠지요." 6일 파라미타 청소년 연합회 주관으로 '서울 역사 현장 순례'가 펼쳐지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정원. 경천사 10층 석탑(국보 제86호), 갈항사 3층 석탑(국보 제99호) 등 국보급 문화재들이 즐비한 이곳에서 50여명의 청소년들은 인솔 교사의 설명을 자료집에 열심히 옮기고 있다.

경복궁, 행주산성, 풍납토성 등 서울시내 역사 현장을 6개권역으로 나눠 실시된 이날 행사에서 6백명의 청소년들은 조계사를 비롯해 암사동선사유적지, 사육신묘, 덕수궁 등을 방문해 문화유산들을 손으로 만지며 현장 체험의 소중한 경험을 배낭에 하나 가득 담았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동대부고 김우진군은 "우리나라 국보 1호인 남대문을 차를 타고 지나치며 여러번 봤지만 직접 올라가 보기는 처음"이라며 "보통의 현판과는 달리 '숭례문'이라고 씌여진 남대문의 현판은 세로로 놓여져 있는 것을 보고 신기했다"고 즐거워했다.

김주일 기자

사찰 편액을 찾아서

⑧ 해사의 대둔사 · 불영사 편액

해사 김성근(海士 金聲根/1835~1919)은 1862년 정시문과에 급제해, 성균관대사성, 전라도관찰사, 규장각직제학, 홍문관제학, 이조판서, 예조참판 등의 벼슬을 지냈다. 또한 그는 1894년 동학혁명이 일어나자 다시 전라도관찰사가 되었으며, 대한제국 수립 후에는 법부대신, 탁지부대신 등을 지냈다. 해사는 특히 청렴 결백한 성품과 함께 당대 명필로 이름이 높았는데 필법이 매우 유려하고 웅건했고 대자(大字)에 능했다. 또한 송(宋) 미남궁체(米南宮體)의 글씨를 즐겨 썼다.

불법에 심취해 포교당을 직접 세울 만큼 불교를 가까이 했던 해사는 전국 여러 사찰을 순례하면서 글씨를 남겼다. 서울 개운사 대각루 〈분다리향〉, 남양주 불암사 〈불암사〉, 고양 흥국사 〈흥국사〉, 해남 대둔사 〈두륜산대흥사〉, 〈백설당〉, 영암 도갑사 〈세진당〉, 순천 송광사 〈해청당〉, 부산 범어사 〈금정산범어사〉, 〈선찰대본산〉, 고성 옥천사 〈칠성각〉, 〈옥천각〉, 진주 의곡사 〈대웅전〉, 합천 해인사 〈장경각〉, 대구 동화사 〈영산전〉, 울진 불영사 〈극락전〉 편액 등이 대표적인 그의 글씨이다.

해남 대둔사 해탈문 앞쪽에 걸려있는 〈두륜산 대흥사〉 편액에는 특이하게도 '해사(海士)', '김성근인(金聲根印)'이라는 2과의 방인 도서를 액판 좌, 우측에 나누어 찍었다. 해사는 두 번에 걸쳐 전라도관찰사를 역임했는데 이 편액의 글씨는 동학혁명이 일어나기 이전 관찰사로 부임했을 때쯤에 쓴 것으로 보인다. 편액



◇대둔사 일주문 편액



◇불영사 극락전 편액

두륜산 대흥사 관찰사 시절 쓴 준일한 필치

극 락 전 일제 침탈 암울한 심경 피력

의 글씨는 준일(俊逸)한 필치의 행서로 점획의 비수(肥瘦)와 경중(輕重)을 조화롭게 썼다.

울진 불영사 〈극락전〉 편액은 액판 좌측에 붉은 글씨로 '임자윤추(壬子閏秋) 칠칠옹(七七翁) 해사(海士)'라는 관지가 있어, 그가 77세 되던 해인 1912년에 쓴 글씨임을 알 수 있다. 일제의 주권 침탈과 함께 관직에서 물러나 암울한 심경을 달래고자 명산대찰을 순례하던 중에 쓴 글씨로 추정된다. 편액의 글씨는 대부분 미불의 글씨를 익혀 쓴 준일(俊逸)한 행서이다.

안병인 〈대한불교진흥원〉

교리 · 찬불가 · 놀이등 프로 다채

여름불교학교 지도자 연수

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는 17일부터 1박2일간 삼성동 봉은사에서 '제25회 여름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연수회'를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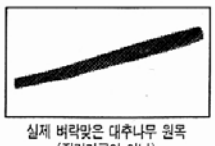
'부처님은 내 친구'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불교교리의 전달'이란 주제로 정호스님이 강의한다. 또 찬불등요 작곡가 정유탁씨는 지도자들이 어린이 포교현장에서 창작 찬불등요와 율동을 통해 새싹불자 지도방법을 제시하는 '신나는 찬불등요와 율동'을 교육한다. 이외에도 '신나는 놀이실습', '선물포장법', '캠프파이어 실습', '비상 구급법' 등의 교육이 진행된다. 02)738-78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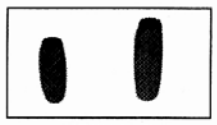
인재(印材) 벽조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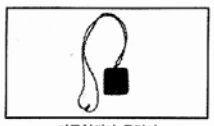
▶벽조목의 본래의 의미는
벼락 맞은 대추나무를 의미합니다. 민속에서는 이 벽조목을 가지면 악귀를 쫓는 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현대적 의미에서 인재(印材) 벽조목은 가공 압축된 대추나무를 가르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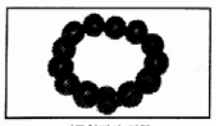


이번 「능혜사」에서는 「진품」인 벼락맞은 대추나무를 가공 염주와 벽조목 부적 등 소량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악귀를 쫓고 가정에 평화를 이루며 자신에 건강을 지켜주는 벽조목을 인연있는 몇분께 인연을 지을까 합니다.
능혜사로 연락주시면 진품 벽조목과 가짜 벽조목을 직접 확인 작업과 아울러 진품 벽조목을 가릴 수 있는 방법도 알려 드립니다. 진품 벽조목의 작은불사에 뜻있는 여러분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실제 벼락맞은 대추나무 원목 (전기가공이 아님)


가공형태의 도장


가공형태의 목걸이


가공형태의 단주

▶문의처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고능리 63-1
0355)832-4122 019)377-3788

능 혜 사 주지 이 법조 합장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님!

4월은
잔잔한 바람
그림움 되어

하늘 끝
님 오시는 길 따라
연꽃등 밝혀들고

다시 태어나
고해의 바다건너
어린 중생 품어주시려

억겁의 세월은
온누리 자비광명
피안의 언덕으로 …


원장 이 영 숙

■大卒,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 대 결 혼 연 구 원
원장 이 영 숙 (법명: 無生子)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7-2호 현대 골든텔(오피스텔) 8층 811호
강남역 (2호선) 3번출구
☎ 대표전화 : 02) 522-5121
핸 드 폰 : 018) 277-5592

사찰 내 암반굴착 공사 전문

당사는 암반굴착 전문 기술 업체로 사찰내의 석굴불사 축조 및 기타 불사에서 암반제거 작업을 전문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석굴축조작업과 같은 터널작업에 많은 기술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맡겨주시면 성심껏 작업하겠습니다.

▶ 시공방법
① 다르다, HRS 등에 의한 무진동 굴착 공법
② 플라즈마, 제어발파 등에 의한 미진동 굴착 공법… 그 외 여러 가지 공법 중 주변 환경과 작업여건에 따라 공인기술 자격을 보유한 본사의 기술진들이 적절한 공법을 적용, 원하시는 대로 실현해 드립니다.

▶문의전화 : 02)719-5371/2
02)719-7614(FAX)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36-1 한신 1511호

"현재 상주시 연수암 내 석굴 불사 축조 작업 중"

(주) 세헌 ENG 기술사사무소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한 '용린佛字체'

"오복을 가져오는 새천년시대 용의 꿈을 꾸세요~"





꼭 소장하여 할 가장 고귀한 진품 명품
⊙ 신기 · 영기 발하는 佛자 달마(달마대사)그림, 龍자 그림(수맥파 차단) 특별보시!

정통으로 배우는 서예 사군자 달마 佛字, 龍字그림 전수자 수시모집!!

한국 수맥파 방지 총연합회 인증 100% 효과

복사품 및 유사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대한민국 미술작품 화랑방 (korea art gallery)
http://www.korea-art-gallery.org
http://www.mahamal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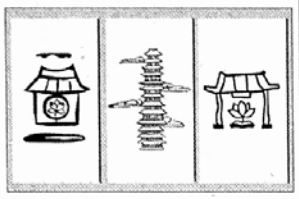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 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 생명의 전화 : (02)2242-0331, FAX (02)2242-0255
E-mail :unjang21@ kornet21. net

●주문 신청방법 서울은행 28707-0452510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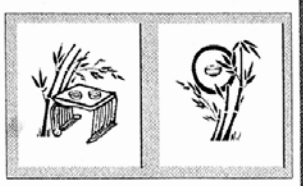
韓國佛教藝術文化院
韓國佛教禪墨家協會

기도포



기장 84cm×폭 39cm/ 재질- 면 가격:₩1,600

다 포



기장 50cm×폭 29cm/ 재질- 면
가격:₩800

산업자원부 추천 우수사이버몰

마 하 몰

(http://www.mahamall.co.kr)

현대불교신문 인터넷 불교백화점 마하몰은 불교인의 정서에 맞는 불교 관련 제품을 다양하게 준비하여 고객 제일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쇼핑, 저렴한 가격, 마음껏 즐기는 불교문화 공간을 마하몰에서 만나십시오.

인터넷 마하몰에 오시면 더욱 많은 불교상품과 작품들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 주문전화 02-732-1522 (직통) 02-737-8881 (대표)



농장직판 -
신비의 버섯
동충하초

150g
1개월 복용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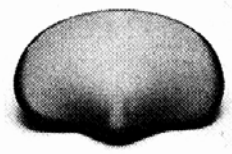
가격 70,000원

관음분청자기



가격:₩495,000

참선명상방석



일 반 ₩30,000
솜기반 ₩35,000
황토반 ₩35,000

· 실용신안1998-025009
· 의장등록14387
· 인체공학적 설계로 척추보호

■규격: 39×43cm

백의 관음입상 도자기



감로수와 함께 하는 백의 관음 입상 도자기

가격 : 150,000원

정사각틀 에밀레종



신비한 걸작품,
사이버 사운드,
완벽한 종소리의 재현!

규격: 20×31cm
재질 - 청동

가격:₩210,000

수암 만다라 옥침



■가격 : 30,000원
■자질 : 천연옥, 무독성ABS수지, 황동, 24K순금도금테, 쉐라이트 반영구자석 1200가우스 X 4개

걸 망



색상: 밤색 · 베이지 · 회색

가격:₩15,000

백화향 선물셋트

백화+신자단+천연목향+향꽃이



천연향방
악향 복주머니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격:
₩50,000

한방향 선물셋트

향등+한방향+향꽃이



2셋트 구입시
천연향방
악향 복주머니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격:
₩25,000

보원향 선물셋트

보원+만복침향+한방향+향꽃이



천연향방
악향 복주머니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격:
₩60,000

옥베게



편안한 수면은 어떤 보약도 필요 없습니다.
가격: 1개 ₩30,000(셋트₩56,000)

석씨향방 오분향, 생기향세트



규격 4개 1세트

효능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열가지효능이 있음

용도
- 불보살께 예불 기도 할 때
- 제사를 지낼 때
- 불결한 장소를 깨끗이 하고 싶을때
- 공포를 느낄 때
- 조상의 명복을 빌때

가격 : ₩60,000

황토로 만든 수행자의 그릇
와 발 우



가격: 4합 ₩60,000 / 무게 : 2.7kg
2합 ₩30,000 / 무게 : 1kg

눈안마기



눈의 피로 감소! 가격:₩49,000

황토 냉온 찜질팩



용도
- 냉온 찜질용
- 노인성 통증완화이 찜질
- 아간 근무자나 추운곳에서 근무시 보온용
- 건강과 미용에 좋다

가격 : ₩28,000

신세대 불자들의 신행수첩



- 지갑기능도 겸해 휴대가 간편
- 예불, 헌공, 법회, 의례, 참불가까지
- 신행생활과 성지참배기를 요약기록
- 개인이 원하는 내용만 selective 구성

가격
고급형(천연가죽) ₩38,000
일반형(인조피혁) ₩2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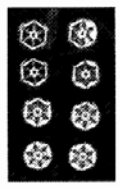
오동나무 목침



크기
가로 30cm
폭 13.5cm
높이 9.5cm

가격
개 제 형 ₩20,000원
무개제형 ₩15,000

조상묘지용 동 히란야



▸종도및효능
산소수맥차단 氣에너지장을 변화시켜 명당이 됨
▸형태
원형, 자수정 부착
히란야 8개 (1set)
▸크기
원형, 지름30mm

가격 :₩24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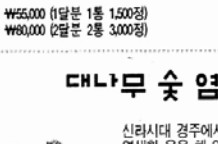
순금도금 은 히란야메달



▸종도및효능 남녀공용 프로지형 배란
▸재질 : 천연자수정大부작 은배달순금도금, 루비 세팅
▸효능 : 정화치유에너지가 발생, 가슴(차크라) 심장에 에너지를 공급

지름 : 4.5cm 가격 :₩4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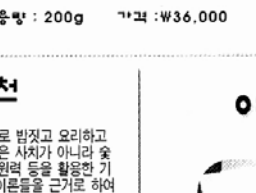
경 상



전통적 경상을 현실에 맞게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 규격: 72×34×32cm · 재질: 느름원목
■가격:₩85,000

수암옥 염주세트



재질 : 옥 (원산지- 중국)
가격:₩98,000

마하몰 미니정보

마하몰에서는 불교상품의 선택폭을 넓히기 위해 「마하몰 미니 정보란」을 운영합니다..

죽 염

1. 죽염이란 ?

죽염은 쉽게 말해서 소금을 대나무에 넣어서 불에 태워 만든 것이다. 인간의 식생활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 이라 할 수 있는 소금은 그가 가지고 있는 독소로 인하여 비만, 고혈압, 뇌졸증, 당뇨병등 모든 성인병을 유발시키고 모든 병에 해를 주는 강한 산성식품이다. 먼 옛날 부터 지혜로운 이들은 소금의 해를 줄이고자 소금을 굽거나 볶아서 섭취해왔고 심산 승가에서는 죽염을 제조하여 섭취해 옴으로 오늘에 이르렀으며 이 죽염의 신비한 효과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건강염이다.

2. 죽염의 제조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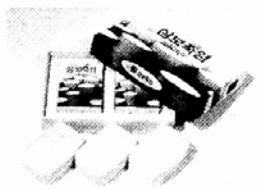
간민의 차가 크므로 그만큼 광석물질의 함유율이 높은 서해안의 천일염을 전남 담양, 장성에서 3년이상된 왕 대나무를 구입하여 1~2마디씩 절단하여 다지넣는다. 소금을 다져넣은 대나무 위에 부분을 조선 솔잎과 황토(나무뿌리가 침범하지 않고 잡도가 섞이지 않은 땅속 깊은 곳의 순수황토)를 이겨 막고 조선소나무 장작장작과 함께 가마(철판과 황토벽돌로 지음)에 재인다. 밀의 아궁이에 소나무 장작으로 48~72시간 불(훈熏)을 땐 다음 소금넣은 대나무에 불을 붙여 800~1000도의 고온으로 태운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소금의 독소는 제거되고 대나무, 황토, 소나무에서 유황성분과 철분, 각종 필수 미네랄이 생성 융합되어 강 알카리성 식품으로탄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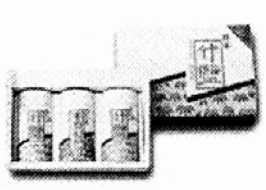
3. 죽염의 효능

본초강목에 대나무를 활용한 처방(34종류)과 신농본초경에 해소와 상기 종양, 해열산충, 구토와 곽란, 거담, 종풍, 당뇨병, 고혈압, 신경쇠약, 간질, 임신빈혈, 소아전염병 질환, 불면증, 과다음주, 피로회복, 안구통증에 효능이 있다고 기술되어 있고 1995년 9월 미국 하버드 의과 대학 암연구센터 암약물학부 마리안나 스과다 박사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죽염은 매일 30g씩 섭취해도 USPDA(미국인 1일 소금 섭취량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하는 연구결과를 발표한바 있다. 죽염은 일종의 건강보조 식품으로 다른약과 병행해도 부작용이 없으며 과다복용해도 고갈이 생기지 않는다.



삼보죽염





삼보죽염 세트

응량 : 600g
가격 :₩10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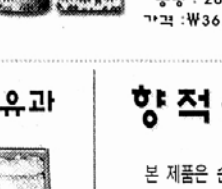
삼보죽염비누

응량 : 110g 2개
가격 :₩12,000

장군죽염선물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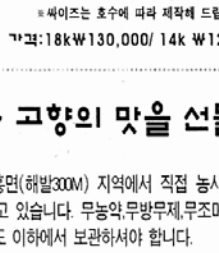
응량 : 600g(분말 알갱이 동화씨판)
가격 :₩108,000

불 성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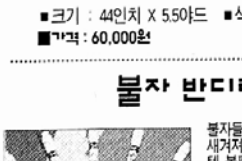
가격 : 우전 ₩90,000 / 세작 ₩50,000
중작 ₩30,000 / 대작 ₩20,000

날개 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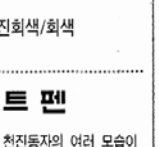
가격:
₩10,000

무비스님 특강테잎



금강경강의/ 지장경강의/ 진심직설강의
가격: 각 ₩45,000

삼보죽염순소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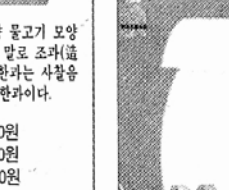


천일염에 불순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금을 볶아 먹었던 조상의 슬기로 꿈해에 서말리는 현대인의 필요한 식생활 솔관

전통죽염 제조장이시며, 인간문화재이신 효산스님께서 기술고문으로 제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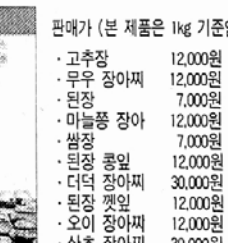
용량 : 500g 가격 :₩6,500

반야심경 향로



(가정용) 규격: 4(높이)×7cm(지름)
가격:₩25,000

영인스님 예불천수경 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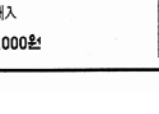
가격:₩9,500

문구암스님 범음범패 비디오테잎

· 1부 제대령
· 2부 관욕
· 상영시간 : 각 68분

■ 가격:
각 ₩25,000

삼보미용죽염



피부에 기생하는 진상균류나 방선균등의 세포표면을 감싸서 세균들이 번식하는 것을 억제해 줍니다.

전통죽염 제조장이시며, 인간문화재이신 효산스님께서 기술고문으로 제조합니다.

용량 : 250g 가격 :₩6,500

음식조미용 장군죽염

인공조미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음식맛을 낼수 있는 제품

용량 : 300g
가격 :₩4,000

불교전통창살문양손수건

· 재질 : 면/ 인쇄: 나염 가격:₩5,000
· 문양: 용문사 대웅전 창살

쑥 환

₩55,000 (1달분 1통 1,500정)
₩80,000 (2달분 2통 3,000정)

삼보죽염 낱개 1통

황토가마에서 아홉번 구워낸 삼보죽염 !!

전통죽염 제조장이시며, 인간문화재이신 효산스님께서 기술고문으로 제조합니다.

용량 : 200g 가격 :₩36,000

장군죽염분말

다른 음식과 함께 섭취가 용이하도록 가루형태로 만든 제품

용량 : 200g
가격 :₩36,000

불자반지

재질 : 금 · 큐빅(1.5돈)
※씨이즈는 호수에 따라 제작해 드립니다.
가격:18k₩130,000/ 14k ₩120,000

대나무 숯 염색천

신라시대 경주에서 숯불로 빙짓고 요리하고 염색한 옷을 해 입은 것은 사치가 아니라 숯의 원적외선, 음이온, 환원력 등을 활용한 기막힌 과학입니다. 이런 이론들을 근거로 하여 조금이나마 현대인들에게 대나무숯을 가까이 하끔 착안한 것이 숯 염색천 입니다. 숯 염색 옷의 치료 예방효과가 특히 도시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이 천은 지리산 창학동에서 직접 만든 100% 수제품입니다.

■크기 : 44인치 X 5.5야드 ■색상 : 진회색/회색
■가격 : 60,000원

불자 반디라이트 펜

불자들을 위한 천진동자의 여러 모습이 새겨져 있는 반디라이트 펜입니다. 텅스텐 볼펜 심이 LED램프의 중앙을 통과하도록 특수 설계되어 일반 산업체의 야간 근무현장, 영상 교육 중 메모, 경찰이나 군인의 야간 경계근무 혹은 작전시 등 일반 비즈니스맨이나 학생, 운전자 모두에게 필요한 제품으로 개인용도는 물론 판촉용, 선물용으로 탁월한 선택이 되실 것입니다.

■1세트 : 10개入
■가격 : 25,000원

여름용 연꽃 순면티셔츠

▶ 자비소리 ▶ 자비연꽃

자비 법음이 온누리에 울려퍼져
희망찬 미래를 영원합니다.

■재질 : 순면 100%(20수) ■색상 : 순백색
■칼라 : 9도칼라 나염인쇄 ■크기 : XXL, XL, L
■20장이상 구매시 10%로 할인
■100장이상 구매시 20%로 할인 단체명 인쇄
■가격 : 6,000원

산촌유과 … 한국정통의 유과

한과는 곡물 가루에 꿀, 엿, 참기름, 설탕 등을 넣고 반죽하여 꽃 모양 물고기 모양 같은 판에 박아 낸 다음 기름에 지져거나 조려서 만든 과자이다. 다른 말로 조과(造果)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천연물에 더하여서 만들었다는 뜻이다. 산촌한과는 사찰음식의 전문가인 김연식씨가 불교사원 요리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정통 한과이다.

산촌 들깨유과	90,000원	산촌 콩유과	30,000원
산촌 김유과	90,000원	산촌 쑥유과	30,000원
산촌 잣유과	100,000원	산촌 호박유과	30,000원
산촌 대추유과	100,000원	산촌 김치유과	90,000원
산촌 땅콩유과	100,000원	산촌 된장유과	90,000원
산촌 흑임자유과	100,000원	산촌 고추장유과	90,000원
산촌 파래유과	90,000원	산촌 감자튀김	54,000원
산촌 찹쌀유과	30,000원	산촌 감자유과	54,000원

※ 1BOX : 4kg 공통

향적원 … 고향의 맛을 선물로

본 제품은 순창군 복흥면(해발300M) 지역에서 직접 농사지은 우리 농산물로만 제조하고 있습니다. 무농약,무방무제,무조미료 이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15도 이하에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판매가 (본 제품은 1kg 기준임)

· 고추장	12,000원
· 무우 장아찌	12,000원
· 된장	7,000원
· 마늘쫑 장아	12,000원
· 쌈장	7,000원
· 된장 콩잎	12,000원
· 더덕 장아찌	30,000원
· 된장 깻잎	12,000원
· 오이 장아찌	12,000원
· 산초 장아찌	30,000원
· 감 장아찌	12,000원
· 울외 장아찌(마나스키)	12,000원
· 간장(1.8L)	8,000원

이렇게 들었다 — 화해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이 12일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가졌다. 같은 민족이 반토막 나 불구의 삶을 살아온 지 55년만에 외세의 개입없이 이뤄낸 역사적인 성취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민은 분단으로 인한 고초를 겪을 만큼 겪었다.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이제 반목과 대결을 뒤로 하고 새로운 화해와 평화의 길을 향해 첫 발을 떼어 놓아야 한다. 뜨거운 동포애를 나누며 함께 살아갈 그날을 기다리며 이와 관련된 부처님 말씀을 듣는다.

〈편집자〉

동포끼리 화합하고 도우라

▨비구들이여, 정당한 비구는 화합하고 환희하며 쟁론치 않고 유수(乳水)와 같으니라. 서로 친어의 눈으로 바로 보며 살면 이를 화합중(和合衆)이라 설하느니라. 〈증지부경전〉

▨만일 사람들이 자주 모임을 열어 많이 모인다면, 만일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일을 함께 한다면 그 나라는 반드시 흥하고 쇠하지 않으리라. 〈중아함경 우바새경〉

▨부처님께서 코삼비국의 코시타 동산에 계실 때였다. 그 때 구심이란 비구는 항상 싸우기를 좋아해서 악행을 범하고 남을 앞에 두고 욕설을 하며 칼이나 몽둥이를 잘 휘둘렀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아침 구심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비구들은 싸우지 말고 서로 시비하지 말라. 너희들은 한 스승 밑에서 배웠으니 서로 화합하기를 우유와 물이 잘 섞이듯 하라." 부처님께서는 옛 인연담을 이끌어 말씀하시면서, '남의 잘하는 것도 보지 말고, 잘못하는 것도 보지 말라'고 하시면서 계송으로 말씀하셨다. "서로 치고 싸우지도 말고 말로 다투지도 말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가엾이 여겨 모든 생명에게 근심 걱정을 끼치지 않는 것 내가 항상 칭찬하는 것이로다." 〈증일아함경〉

▨만일 맺힌 원한이 이미 다했거든 마땅히 다시 방편으로써 그 마음을 막아 다시 일어나게 하지 말라. 〈중집경〉

▨곧은 것을 남에게 양보하고 잘못을 이끌어 자기에게 향하게 하면, 다툴 것이 없어진다. 〈열반경〉

▨인내는 자타(自他)의 평화를 낳는다. 자신이 노여움의 과실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으면 자기를 평화롭게 함이요, 이미 분해하고 원망하지만 않는다면 남을 괴롭히지 않는 것이 될 것이니, 이는 바로 남을 평화롭게 함이다. 〈섭대승론〉

▨국왕은 마땅히 법에 따라 정사를 행하고 악한 일은 덜어야 한다. 국민들에게 보시 애어(愛語) 이행(利行) 동사(同事)의 사섭법으로 은혜를 베풀면 국가가 편안하고 흥할 것이다. 〈방등경〉

▨집을 위해서는 한 사람을 버리고, 마을을 위해서는 한 집을 버리며, 나라를 위해서는 한 마을을 버리고, 몸을 위해서는 대지를 버리느니라. 〈근본설일체유부 비나야잡사〉

▨부자·형제·부부·친족간에 항상 서로 공경하고 사랑하여 질시하거나 증오하지 말라. 안색은 항상 화평하게 하고 서로 멀리 있어도 걱정해 주어야 한다. 〈무량수경〉

▨많은 사람이 한데 모여 살아도 서로 잘 이해하고 동정하는 마음이 없으면 진정한 우정이 생기지 않는다. 진정한 생활 공동체에는 그 자체를 밝혀주는 신념과 지혜가 있어서 사람들이 서로 믿고 화합한다. 진실로 화합이야말로 진정한 생활공동체나 한 조직체의 생명이다. 〈대반열반경〉

▨만일 어떤 왕이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왕의 국토안에 많은 안락이 있게 되기를 원하거든 국토 안에 사는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모두 다 쾌락을 성취하게 하고 원하는 바를 만족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금광명경〉

▨승리하면 저쪽이 죽고 패하면 이편이 죽는데, 저쪽 군사나 이편 백성이 다 하늘이 낳아서 기른 것이라 몸이 중하고 목숨이 아까운 것은 누군들 그렇지 않겠느냐. 〈육도집경〉

▨국왕의 신묘한 계획이 어긋나지 않고 전략이 원만하여 아직 항복하지 않은 자는 항복시키고 이미 항복한 자는 거두어 보호하니, 이것을 일러 왕이 지혜와 용맹을 갖추었다고 한다. 〈불설우전왕법론경〉

▨친족끼리 서로 가까이 지내고 공경하면서 서로 돕고 고락을 함께 하면 이것으로 북방(北方)이 안온할 것이니, 이것이 북방에 대한 예배니라. 〈육방예경〉

신행 캘린더

6월14일 (수)

■ **호암아트홀 최승희 사진전**=보살춤으로 널리 알려진 근세 최고의 무용가 최승희 사진전이 다음달 2일까지 호암아트홀에서 열린다. 02)790-5564

■ **지리산살리기 범불교대책위 모임**=지리산살리기 범불교대책위는 오후2시 조계사 2층 강의실에서 준비위원회 1차 모임을 갖는다. 02)737-1884

■ **보문사 용왕대재 회향 철야기도**=강화 보문사는 저녁7시부터 다음날 새벽3시까지 용왕대제 기도 회향 철야정진법회를 봉행한다. 032)933-8271

■ **목아박물관 목조각장 전승전**=중요무형문화재 제108호 목조각장 전승전이 7월9일까지 여주 목아박물관 전시실에서 열린다. 0337)885-9953

■ **초기경전읽기**=경불련은 14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7~9시 종단협 강의실에서 '초지경전 읽기' 모임을 운영한다. 누구나 참여할수 있다. 강사는 전재성 한국빠알리성전협회장, 교재는 〈쌍윳따 니까야〉. 02)3147-2600

6월15일 (목)

■ **강북복지관 밝은 세상나들이**=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재가 중증장애인들과 함께 강원도 춘천 소양댐으로 나들이를 떠난다. 소양호 유람선 관광, 레크리에이션, '즐거운 우리 목욕' 이용 관련 교육등이 있을 예정이다. 02)989-4215

6월17일 (토)

■ **실상사 불교귀농학교 졸업식**=실상사 귀농전문학교는 오후3시 포교원 지하 강의실에서 제4기 이론과정 졸업식을 갖는다. (0671)636-3776

■ **금탑사, 소록도공원 답사**=여래지답사회는 1박2일(18일까지)의 일정으로 고흥, 나로도 해상국립공원, 덕양서원, 금탑사, 소록도공원, 등을 둘러보는 답사여행을 떠난다. 02)3445-0202

■ **상고암 순례**=현대불교신문 안산지국은 오후 9시 안산라성호텔 앞에서 출발하는 버스를 타고 속리산 상고암으로 무박2일 성지순례를 떠난다. 011-9912-8859

6월18일 (일)

■ **터사랑 엄마와 함께하는 역사공부**=답사여행의 길잡이 터사랑은 한달에 두 번 바닷길이 열리는 무창포 갯벌 체험과 석탄박물관, 성주사지를 자녀들과 함께 현장체험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02)725-1284

■ **운불련 전국 체육대회**=전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는 오전9시 대전 상업정보고등학교 운동장에서 대전지역회 주관으로 전국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042)626-6463

■ **불자련 강원 산불지역 풀씨 파종**=불교자원봉사연합회는 강원도 산불피해지역의 잠마대비를 위해 풀씨 파종을 실시한다. 교통편은 조계사 앞에서 버스로 이동하고 참가자들에게는 녹색보리수 뺏지를 증정한다. 자원봉사자와 토종풀씨를 지원해 줄 후원자의 동참이 기대된다. 02)723-6258



◇맑고향기롭게는 18일 '아나바다 운동'의 일환으로 알뜰시장을 개최한다. 이날 수익금은 불우이웃돕기에 쓰여진다.

■ **법정스님 대중법회 및 알뜰시장**=맑고향기롭게와 길상사는 회주 법정스님의 정기 대중법회를 오전10시 길상사 극락전에서 봉행한다. 또 오후3시까지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 쓰는 알뜰시장'을 개최한다. 알뜰시장에는 재활용 의류 및 도서류, 무공해 먹거리, 환경세제 등이 판매된다. 수익금은 전액 불우이웃을 위해 사용된다. 02)3672-5945

6월20일 (화)

■ **법왕사 백고좌 회향법회**=법왕사는 오전 11시 대구 실내체육관에서 백고좌 회향 대법회를 봉행한다. 지난 3월13일 입재식을 가진 이래 꼭 100일만에 마련되는 이날 행사는 오전11시 보살계 수계법회, 오후2시30분 문화공연으로 진행된다. 053)766-3747

■ **열린불교 강연법회**=한국불교연구원 대전구도회는 오후 7시30분 구도법당에서 정기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에서는 신원사 묘봉스님(선원)이 '법성게'에 대해 법문한다. 042)527-0559

법회안내

보문사 용왕재 법문



정대 조계종 총무원장은 15일 강화 보문사에서 법문한다. 032)933-8271

'보살의 수행' 설법



암도 전 조계종 교육원장은 17일 대전 보현불교대학에서 '보살의 수행과 실천'이라는 주제로 법문한다. 042)624-6555

'선사상' 특강

인환 동국대 명예교수 스님은 17일 한국불교연구원 서울구도법당에서 '선사상'에 대해 법문한다. 02)3411-6167

'현대인과 선' 특강



종호 동국대 교수 스님은 14일 불교방송에서 '현대인의 삶에 있어서의 참선'이라는 주제로 법문한다. 02)703-0108

서초 주민대상 특강



장휘옥 동국대 강사는 16일 봉은사 법왕루에서 서초구 주민을 대상으로 법문한다. 02)517-0149

게시판

알림

▲**승려정기분한신고 연장**=조계종은 제방 선원에서 수행하는 관계로 분한신고 실시 공고를 접하지 못하였거나 일신상의 사정으로 신고의무를 기간내에 이행하지 못한 스님들을 위해 오는 10월31일까지 승려 분한신고 기간을 연장한다. 02)735-5862

▲**남북평화통일기원 백두산순례법회**=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총동창회는 8월16~20일 남북평화통일기원 백두산순례법회를 떠난다. 선착순 90명에 한하고, 동문 및 동문가족, 불자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02)737-1054

▲**장애인차량 무상점검**=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은 20일 오전10시 장애인 등록 차량을 대상으로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02)652-0900

▲**무료탁아방 운영**=능인종합사회복지관은 맞벌이 및 저소득 가정의 자녀 중 24개월~7세를 대상으로 매주 월~금요일 오전 30분~오후5시30분 무료로 탁아방을 개방한다. 셔틀버스도 운행한다. 02)571-2988

▲**취업정보센터 운영**=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실직자 및 지역주민의 구직, 구인 상담 및 취업알선을 위해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상담시간은 매주 월~금요일 오전9시30분~오후5시30분. 02)852-0525

▲**무료직업소개소**=자양사회복지관은 무료직업소개소를 열고, 건축현장, 파출, 식당, 건물관리, 경비, 운전, 간병, 산후조리 부문 구인처 및 구직자의 연락을 기다린다. 02)458-1664

▲**죽비캐릭터 이름 공모**=진각종은 죽비 캐릭터의 이름을 공모한다. 응모자격은 제한이 없으며, 공모내용은 캐릭터 종류별 이름(기본형, 아빠, 엄마, 아들, 딸)과 가족 이름이다. 02)913-0753

모집

▲**스포츠·발 마사지 자원봉사자**=연꽃마을·노인주간보호센터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주1회 진행되는 스포츠마사지와 발마사지 프로그램을 맡아 줄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2)365-3677

▲**귀농전문학교**=실상사 귀농전문학교는 오는 8월28일부터 11월27일까지 진행되는 제5기 귀농전문학교 신입생을 모집한다.(0671)636-3776

▲**합창단원**=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누리 합창단원을 모집한다. 희망자는 복지관에 구비된 신청서를 작성한 후 매주 토요일 오후3시 복지관 3층 강당에서 실시되는 오디션을 통과하면 된다. 02)852-0525.

▲**자원봉사자**=자양사회복지관은 이·미용봉사, 차량봉사, 무료급식 봉사, 결식학생 중식조리, 밑반찬 배달, 사무보조, 학습지도 등 일을 도와 줄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2)458-1664

▲**자원봉사자**=낙동종합사회복지관은 차량지원, 방문학습지도, 밑반찬배달 자원봉사자 각2명씩을 모집한다. 051)271-0560

▲**후원품**=부처님마을 자광원은 어르신들을 보살피는데 필요한 쌀, 고추장, 육류 등과 같은 먹거리와 의약품, 전자제품 등을 후원받는다. 0342)759-5320

강좌

▲**중국어 회화반**=서울불광산사는 중국어 회화 강좌를 마련했다. 강의는 기초반(매주 토요일 오후2시, 매주 화·목요일 오후7시) 초급반(매주 목요일 오전10시, 토요일 오후3시40분) 중급반(매주 수요일 오전10시30분) 아동반(매주 토요일 오후2시30분) 등 4개 반으로 나눠 운영된다. 02)2276-0993

▲**봉선사 통신강원 수강생**=봉선사 불교전문 통신강원은 전문반과 교양반 수강생을 모집한다. 전문반은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의전과로 교양반은 교리강좌, 경전강독, 교양의식, 교양불교사 등 각 4개 과정으로 진행된다. 0346)527-1957

▲**기초교리**=대구 보현사 평생교육대학은 매주 수요일 오후2시와 7시 제5기 기초교리 강좌를 실시한다. 053)254-6966

▲**생활영어**=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생활영어 초급자반을 매주 화·목요일 오전9시10분에 강의한다. 교재는 〈side by side〉. 중급자반은 오전10시30분, 교재는 〈Survival English(EBS 방송교재)〉 02)2282-1100

선무도 여름 수련회

禪武道 大金剛門에서는 청소년과 일반인을 위한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기 간: 2000년 7월 1일부터 2개월간 (수시접수)
▶대 상: 초등학생 이상 개인별 및 단체 (불교학생회, 신행단체, 사회 체육단체 위탁연수)
▶동참금: 학생 (1日 2만원, 1月 45만원) 일반 (1日 2만 5천원, 1月 60만원)
▶수련내용: 참선, 선요가, 선기공, 선무술, 태극권
▶접수문의: TEL 0561)744-1689 FAX 0561)746-0172 (외국인 단체연수가 많으므로, 미리 예약해야 됩니다.)
▶준비물: 개인 세면도구, 운동복, 운동화

전국에서 모인 청소년들이 대자연 속에서 불교와 선무도를 배우며 심신을 단련하고 호연지기를 기른다.
선기공 수련으로 정서불안과 각종 성인병, 만성병을 치료하고 가정과 학교에서 소홀한 인성교육의 효과를 얻는다.

▣ 일 과 표

4시	기상, 예불 (불참시에는 3천배 참회 및 전대중이 1일 금식함)	14시	오후수련(학생)
		15시30분	운 력 (농장채소가꾸기, 청소등)
5시	좌 선	17시	휴식 및 학습
6시	조깅, 등산	18시	저녁공양
7시	아침공양(바루공양)	19시	예불후 학생은 자율학습
8시	오전수련	19시30분	저녁수련(일반인)
11시	108배 참회기도	21시	취침 및 명상
12시	점심공양		

※ 임산후 개인 외출이 불가하며 술, 담배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11교구 골굴사
세계 선무도 협회 대금강문 선무도 대학

빅-뉴스

피로?
나에게는 없다!

■ LIHIS 건강양말
· 건피부(특히 발이 갈라 지는 분)
· 피부노화 방지
· 숙취 해소

건 강 양 말
특허출원번호
0043150
LIHIS

■ LIHIS 건강 숯 양말
· 당뇨에는 더 이상 당이 안 오름
· 원적외선 차단

건강숯양말
실용신안번호
0165970
LIHIS

상 담 문 의

(주) 화 동 섬 유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321-116
053)582-1245
전남북 특판점 062)956-7676~7

현대자동차 매매상사

품 질 보 증 불자님의 안전운행과 고장없는 차량이 판매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 김 정숙

"내것 네것을 나누기 때문에 오히려 내것이 줄어든다."
- 대행큰스님 법어中에서 -

파시는분
전화 한 통화로 전문 딜러의차량 도/소매 가격 정보제공 및 방문후 정당한판매가를 보장하며, 계약 당일 이전 등록을 책임지겠습니다.

사시는분
품질 최우선의 신념 아래 고객이 원하는 자동차를 전문딜러가 감정선별하여 믿을 수 있는 자동차를 직거래 판매합니다.

※ 중고차 전차종 즉시 고가매입

※ 신용카드 할부
· 가맹점(6~18개월)
· 기혼자 무보증 할부(300만원/24개월)
· 전차종 매매/위탁/알선함
· 당일 현금 지급

이제 인터넷으로도 중고차를 사고 팔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 yso8783.hihome.com
⊙ 인터넷종합쇼핑몰: www.yso.co.kr
연락처 : 김 정 숙
062)374-7771 / 016)622-9082
현대차 신차상담 : 박 종 필
062)223-1121 /011)640-8383

금해스님의 여 래 선 식



많은 분들께서 여래 선식의 뛰어남에 입에서 입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감탄하시고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순금 만큼 값진 죽염 쥐눈이 콩간장, 콩메주를 발효시켜 한번구운 죽염으로 간장을 뜨고, 숙성시킨 간장에 진짜 자수정 죽염을 넣고, 자수정 죽염 1 : 쥐눈이 콩 간장 5 느릅나무 엑기스 1의 비율과 나머지 약재를 넣고 간장 1 말이 2되 되게 졸인 진 죽염 간장…
바르고, 넣고, 마시는 그 신비한 진 죽염간장
모든 암에 결정적 영향, 소화기 장질환에 급속 해결

▶▶ 숙취 해소, 가정의 비상약 ◀◀
· 진죽염간장 1L : 200,000원
· 원동 토종매실로 발효시킨 엑기스 1.5L : 60,000원
· 쥐 눈이 콩 메주 1kg 당 : 15,000원
· 쥐 눈이 된 장 1kg 당 : 10,000원

▶건강음료 및 장류 사업 동참하실 불자님을 모십니다
▶자본 3억 이상 출자 가능하신분 . 경영전문가

상담문의 0523)372-1221 / 011)564-1217
■입 금 : 우체국 611715-02-016346 예금주 : 지덕용
■주 소 :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리 754 약사사

가야산 관통로 강행

"해인사 환경훼손"…조계종 조사단 파견

국립공원 가야산을 관통하도록 설계되어 해인사와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에 부딪쳤던 국가지원지방도로 59호선이 지난 3월22일 착공된 것으로 밝혀져, 조계종 중앙종회가 8일 59호선 축조공사 반대를 결의하고 현장조사반을 파견하는등 종단차원의 대책마련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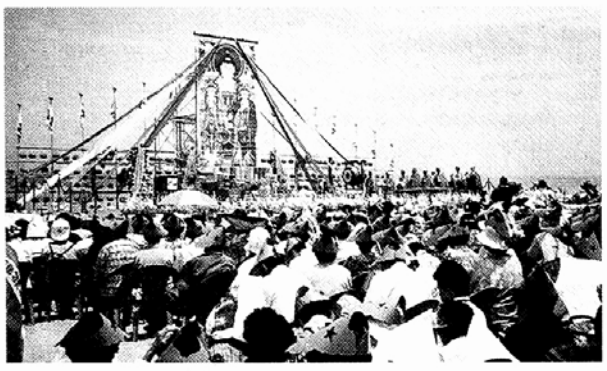
경남도는 가야면 성기리에서 가야면 치인리까지의 총연장 11.48㎞(노폭9m)의 59호선 공사구간중 국립공원 바깥구간(제1구간)인 가야면 성기리에서 가야면 죽전리까지의 5.18㎞ 구간을 180억원을 들여 오는 2003년 3월 완공예정으로 공사에 착수하기로 하고, 토지보상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같은 공사추진은 환경파괴를 우려한 낙동강환경관리청의 노선재검토 요청을 외면한 것이어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국립공원 바깥구간에 대해서만 공사를 실시한다"며 문제될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도로의 성질상 1구간이 완공되면 2구간은 1구간의 연장선상에서 설계될것이 분명해 결국 국립공원을 통과하는 기존노선을 강행하려는 의도로 비쳐지고 있다. 기존노선대로 건설될 경우 터널과 교량건설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도로를 따라 상권이 형성되어 사찰수행환경이 훼손될것이 명약관화하다. 특히 59호선은 장차 가야산 국립공원을 순환하는 관광도로로 건설과 연계되는 것이어서 더욱 심각하다.

이에 대해 대구환경운동연합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협의를 해준것에 의문이 간다"며 "환경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윤호 기자



새천년 평화 기원제

강원사암련…7천명 참가

강원도와 도내 불교계가 공동 주관한 '새천년 자유·평화와 민족화합 기원제'가 4일 강릉 경포해수욕장 백사장에서 조계종 월정사 주지 현해 스님, 태고종 강원종무원장 백운스님, 천태종 삼개사 주지 안산스님, 김진선 강원도지사 등 각계 인사들과 사부대중 7,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사진〉

이 날 기원제에서는 환경선언문 낭독과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인 영산재 공연 등에 이어 5만 마리의 넙치 치어를 방생하고 산불 이재민 돕기 성금 모금 운동도 벌였다.

전유진 강릉지사장

"불교동산 세워 불심 심어요"

이배영 은평구청장 고창 '일붕동산' 22년간 불사

지장상·탑·정자 등 건립

휴식공간·교육장 활용

현직 구청장이 5만평 대지에 불교동산을 조성,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면서 자연스럽게 불교를 접할 수 있도록 해 화제다.

서울 은평구 이배영 구청장은 22년간 불교와 고향의 발전을 기원하며 고향인 전북 고창군 대산면 장자산에 사재를 털어 지장보살상과 석가모니불 좌상, 선시비, 정자, 야외 법회장, 사리탑, 통일기원탑, 호국기원탑, 일붕상, 장승 등을 조성했다. 또 인근 사찰인 몽불사까지 산책로도 연결하여 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법당에 참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곳은 현재 고창의 대표적인 공원이 되어 지역주민들은 물론 인근 17개 초·중·고교 학생들의 정진, 휴식, 정신교육장소로 활용되는등 매년 찾는 인파가 늘고 있다.

불교동산은 68년 이배영씨가 일붕 서경보스님으로부터 '호암'이라는 법명을 받으면서 고향을 가꾸겠다고 발원한 것이 시작이다. 78년 선친이 물려준 1백만원과 그간 모아온 적금을 털어 당시 민둥산이었던 장자산을 구입하여 지역주민의 휴식처인 정자를 건립했다. 일붕스님은 이런 이구청장에게 고창지역 번영과 호국 및 통일을 기원하는 글을 써주며 격려했다. 이에 감화받은 이구청장은 곧바로 고창발전 기념비를 건립한 이후 22년간 불심으로 손수 일붕동산을 일궜다.

"젊은 시절 정치에 뜻을 뒀지만 좌절의 연속이었다"며 "선배의 소개로 일붕스님을 찾아가 법문을 들으며 불교적 가치관에 입각한 애국·애족·호국·통일사상 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히는 이배영 구청장은 한달에 한번씩 주말을 이용하여 일붕동산을 찾아 은평구민들의 안녕을 기원하며 기도정진한다. 또 구청불자들의 모임인 불심회의 매달 관내사찰 순례법회에 한번도 빠진 적이 없을 정도로 불심이 돈독하다.



◇이배영 은평구청장이 고향인 고창에 5만평 불교동산을 조성해 지역민들에게 불심의 씨앗을 심어주고 있다. 불교동산에 몽안돼 있는 지장보살상. 원내는 이배영 구청장.

언제나 불자임을 자랑스럽게 밝히는 이배영 구청장은 "불교포교와 효 사상을 실천하기 위해 양로원 건립 및 청소년수련원을 갖춰 나가겠다"며 "일붕스님 열반 4주기를 맞이하여 6월말 일붕동산에서 추모법회및 불교사상강연회를 개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법주사 청동대불 개금불사

10억들여 2년 작업

조계종 5교구 본사 속리산 법주사(주지 지명)는 청동미륵대불 표면에 부식현상이 부분적으로 발생해 오는 10월 중 불상에 금분을 입히는 개금불사(改金佛事)를 벌이기로 했다.

이번 개금불사 과정은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미세한 구멍을 메꾸는 과정부터 옻칠→금분칠→금박입히기 등의 8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최소한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소요예상비용은 10억원 정도로 사찰측은 신도들의 불사 동참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1990년 법주사 경내에 4년간의 불사 끝에 세워진 청동 미륵대불은 높이가 33m로 아파트 12층과 비슷하며 청동의 무게만도 1백60t으로 점보비행기와 맞먹는 등 청동불 입상(立像)으로는 세계최대 규모다. 그러나 일부 용접부위에 부식이 진행되면서 얼룩진 외관 때문에 불상으로서의 품위 유지가 갈수록 어려워졌다.

김재경 기자

결식아동돕기 쌀수집

선각종 7월~12월



선각종은 7월부터 12월까지 결식아동돕기 쌀 한되 모으기 운동을 전개한다.

선각종 총무원장 정암, 사무총장 진천스님 등 종단 관계자들은 5일 대한적십자사 광주지사(지사장 신채우)를 방문〈사진〉, IMF사태이후 늘어난 결손가정 아이들을 돕기 위해 종단 사찰과 신도들을 중심으로 이같은 운동을 벌여 적십자사에 기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 보성군 문덕면에 소재한 선각종 천봉사 천봉선원(조실 도륜)은 16일 오전 10시 부처님 개금불사 회향법회를 봉행한다. (0694)853-9979

주용직 광주지사장

통일기원 호국법회

경남불교련 도청서

경상남도불교협의회(회장 해인사 주지 보광)가 주최하고 마산·창원불교연합회(회장 마산정법사 주지 지태)가 주관하는 '경남불교지도자 호국 기원법회'가 11일 도청 도민홀에서 열렸다.

도내 3개본사 및 시군사암연합회 소속 스님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법회는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와 더불어 남북화해와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고, 경남불교지도자들의 결속과 유대강화로 한국불교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

제1부 통일 기원한마당, 제2부 기원법회로 진행된 이날 법회는 해인사 주지 보광스님의 대회사, 전조계종 총무원장 고산 스님의 법어, 김혁규지사의 축사 등으로 진행됐다.

김재경 기자

바닷물로 화마 다스린다

해인사 매화산 정상에 소금단지 묻어

바닷물 소금기운으로 화재를 예방하려는 이색적인 행사가 매화산(1,010m)에서 거행됐다.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보광)는 단오날인 6일 사부대중150여명을 동원, 매화산 정상에 올라가 동서남북중 5방향에 소금단지를 묻었다. 해인사에서는 1695년부터 1871년사이에 대형화재가 7번이나 발생했으며, 해인사 대적광전 남향 3km 지점에 솟아있는 매화산의 산세가 활화산형인데다 대적광전을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풍수지리학적 속설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해인사는 6번째 화재후 대적광전을 정남향이 아닌 왼쪽방향으로 틀어 중창했으며 1년중 염도가 가장 강한 5월 단오를 기해 매화산 정상에 소금단지를 묻는 행사를 벌여 왔다. 바닷물의 수기(水氣)로 매화산의 화기(火氣)를 제압한다는 것. 그 이후 129년간 해인사에는 한번도 큰 불이 발행하지 않았다고 해인사측은 주장하고 있다.

이윤호 기자

종단소식

조계종

백중맞아 천불천탑 봉안

제7교구 본사인 예산 수덕사(주지 법장)는 25일 오전 10시 백중 기도 입재식을 갖는다. 오는 8월 14일 회향되는 이번 백중기도에서는 부처님 진신 사리를 모실 예정인 천불 천탑 봉안법회도 함께 봉행된다.

불국사 문화회관 상량

제11교구본사 불국사 부설 불교문화회관 상량식이 7일 경주시 성건동 620-346번지 불사현장에서 봉행됐다.

총41억3천만원을 들여 지난해 4월 착공돼 올10월 완공예정인 불교문화회관은 지하1층 지상4층 연건평1500평 규모로 건설되고 있다. 同회관에는 불국사유치원과 신행단체사무실 다목적홀 법당등이 들어서며 지역불교의 새로운 요람이 될 전망이다.

상량식에는 불국사주지 성타스님을 비롯 법달 종상 종광 자성스님 이원식경주시장 최규철 동국대부총장 등 사부대중 1백여명이 참석했다.

진각종

순국선열 추모불사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5~11일 서울 탑주심인당을 비롯 전국 각 심인당, LA 불광심인당 등 해외 심인당에서 오전 10~12시 한 자성(일주간) 월초불공기간동안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을 추모하는 진호국가불사를 봉행했다. 특히 이번 월초불공기간동안에는 남북정상회담 원만성취를 기원하는 특별불사도 함께 봉행했다.

창교절 기념불사

53주년 창교절 기념불사가 14일 오전 10시 서울 탑주심인당을 비롯 전국의 심인당에서 봉행된다.

'21세기 포교방향' 세미나

통리원(원장 성초)과 위덕대밀교문화연구원(원장 경정 대정사)은 23일 오전 10시부터 한국일보 12층 송현클럽에서 53주년 창교절 기념 '21세기 포교현실과 새로운 방향모색'을 주제로 공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경정 대정사의 기조발표에 이어 △서구에서의 불교수용과 포교방향(위덕대 최종남) △개방 후 중국 내 불교의 사회적 위상변화와 그 역할(동국대 차차석) △현대 국내포교의 현황과 전망(진각대 김경집 교수) △진각종의 초기 교화이념(위덕대 권영택 교수) △진각종 포교 현대화에 관한 문제(진각종 무외 포교부장) 등 5편의 논문 발표와 동국대 김용표 교수, 연세대 신규탁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관음종

호국영령 추모대법회

총무원(원장 홍파)은 6.25 발발 50주년을 맞아 20일 오후 1시 대전 현충원에서 호국영령 추모대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법회에는 혜웅 종정스님을 비롯 종단 스님들과 신도 등 5천여명이 동참할 예정이다. (02)763-5851

여래종

천불사서 6.25기념 천도재

성남 약사사(주지 혜암)는 25일 한국전쟁 발발 50돌을 맞아 육군 제15사단 군법당 천불사에서 종정 인왕스님을 증명법사로 제10회 호국영령 천도재 및 국군장병 위문법회를 개최한다. (0342)734-3205

자비종

룸비니서 평화기원 법회

총무원장 삼중스님은 108명의 불자들과 함께 21일 네팔로 출국해 룸비니동산에서 부처님 탄생 기념 및 세계평화와 남북통일 기원 연등대법회를 봉행한다.

당신은 본래 청정하고 신성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멋진 길이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코스

밝은길 아바타센터

◐ 아바타 코스는 7-9일 결리며, 비용은 160만원입니다.
◐ 전화주시는 분께는 앤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교통편 : 서울역, 시청앞, 조계사앞 3호선 경복궁역에서 135, 135-1, 2, 3번 버스로 약 20분 거리

마스터 / 위저드 김회균 합장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TEL : (02)396-2736 H.P : 016-228-2358

혜초여행개발(주)
HYECHO ADVENTURE TOURS
대표☎ 733-3900 6263-3900
담당☎(직) 6263-3921-22,28 fax 733-3780
www.hyecho.co.kr E-Mail:hyecho@hyecho.co.kr

佛子世界
걸망메고 대륙의 중앙으로....

Tibet
금단의 大地 티벳 걸망여행 인기 ₩990,000
평균고도 4,000를 넘나드는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티벳고원...
스스로 불교 땅임을 자처하는 티벳인들의 삶.....그리고 히말리아!
時호를 넘나드는 티벳으로의 순례를 시작 하십시오.
· 일 정 : 서울 - 네팔,카트만두 - 히말라야를 넘어 티벳 평원으로 (자유일정)...
· 포함사항 : 국제선항공료(아시아나항공+네팔항공 : 1年 항공권) 중국 및 티벳여행허가서,카트만두 1박
· 출 발 일 : 매주 화,목,토 개별출발

JEEP 타고 티벳평원을 횡단 ₩1,990,000
· 일 정 : 카트만두-라사-장쩌-시가체-시가-장무-카트만두(11박 12일)
· 포함사항 : 항공료,숙박(조식포함),Zeep(4인탑승),중국비자,티벳여행허가서, 사원입장료,영어가이드,보험
· 출 발 일 : 매주 목요일(4명 이상 - 최소규모 출발합니다)
※영국,독일,프랑스,한국 연합상품으로 Zeep 이용조건

스포츠 조선과 함께 하는
중국 실크로드 문화탐방 여행 8日 ₩1,490,000
· 일 정 : 서울 - 서안- 돈황 - 유원 - 투루판 - 우루무치 - 서안 - 서울
· 포함사항 : 국제선항공료, 국내선항공료, 비자비용, 공항세, 보험, 특급호텔 안내원, 전용차량, 일정상의 전식
· 출 발 일 : 6/30, 7/14, 23, 8/11, 25

실크로드 (Silkroad)
長安에서... 쿤자랍까지 ₩1,690,000
불교전승지인 실크로드에서
佛,서양을 넘나들던 구법스님들을 생각하며.....
· 일 정 : 【21박 22일】서안-난주-가욕관-돈황-유원-투루판-카슈가르-탁스쿠르간-쿤자랍고개(버스)-우루무치(열차)-서안
· 포함사항 : 항공료, 비자, 숙소(조식포함), 안내인, 도시간의 이동, 보험
· 출 발 일 : 6/12, 26 7/24, 7/31, 8/7 (10명이상 출발)

인도전문 여행사 혜초에서 선보이는
새천년 인도, 네팔 자유여행(28日) ₩1,990,000
◈ 인도 대도시 : 델리, 아그라, 자이푸르, 바라나시, 카주라호
◈ 불교 성지 : 룸비니, 쿠시나가르, 녹야원
◈ 북인도 : 다람살라, 레, 스리나가르, 잠무
◈ 네팔 : 카트만두 여행등 다양한 장소, 충분한 여행 스케줄
· 일 정 : 서울 - 델리 - 다람살라 - 마날리- 사추 - 레 - 사스풀 - 카르길 스리나가르 - 잠무 - 델리 - 자이푸르 - 아그라 - 카주라호 바라나시 - 쿠시나가르 - 룸비니 - 카트만두 - 서울
· 포함사항 : 국제선 항공, 열차, 차량, 숙소(조식포함), 보험, 안내
· 불포함사항 : 비자비용, 여권발급비, 서울 공항세
· 출 발 일 : 7/2,16, 8/13 (10명이상 출발)

전통의 성지순례전문 혜초에서 선보이는
인도 · 네팔 불교성지순례 ₩990,000
부처님의 4대성지인 탄생지, 성도지, 초전법륜지, 열반지 순례및 8대성지 순례.
※ 순례후 카트만두에서 개별적으로 귀국 가능합니다.
(아시아나항공+네팔항공 : 1年 항공권)
· 일 정 : 델리-바라나시(녹야원)-부다가야(성도지)-나란다 불교대학-라즈기르(영축산,왕사성,죽림정사)-파트나-바이샬리(대림정사,아쇼카석주)-쿠시나가르(열반사,다비터)-사헤트 마헤트(사윗성, 기원정사)-룸비니-카트만두-방콕-서울(10일간)
· 포함사항 : 1년 항공권,숙소(조식포함),한국안내원,전용차량
· 출 발 일 : 7/2,16 목,일(15명이상 출발)

※ 10년 전통의 혜초 여행사는 불자와 함께하는 국내 최대의 불교전문 여행사입니다. 후원 : 현대불교신문, 스포츠조선

십시일반의 자비행

새생각실천회 1백여회원 '인간방생불사'
매달 성남 자광원 방문 어르신 생일잔치

하루 한 숟가락의 쌀을 모아 한 달에 한번 노년을 외롭게 사는 할머니·할아버지의 생신상을 차려 드리는 모임이 있어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다.

99년 7월 '인간방생불사'를 목적으로 창립된 새생각실천회(지도법사 권경술) 회원들은 매일 삼시 세끼 밥을 짓기 전에 한 숟가락씩의 쌀을 따로 덜어내 모아 두었다가 매월 셋째주 금요일 성남 노인요양시설 자광원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생신축하 잔치를 열어 드리고 있다. 새생각실천회의 쌀 한 숟가락 모으기 자비행은 쌀 한 숟가락이 남을 돕는다는 상을 내지 않고도 소외된 이웃을 위해 마음을 낼 수 있는 작은 양이라는 데서 출발됐다. 미처 쌀을 모으지 못한 회원들은 직접 미역국을 끓여오거나 케이크, 과일, 밑반찬을 마련해 오는 등 회원 한사람 한사람이 작은 정성을 보태 잔칫상은 조촐하면서도 풍성하다. .

생일잔치는 상만을 차리는데 그치지 않는다. 할머니·할아버지들이 자식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원망을 삭히고 내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권경술 법사가 즉석 야단법석을 마련한다.

운영위원 대자운 보살은 "어르신들이 손을 움켜잡고 '나 같은 사람도 다 챙겨주는 사람이 있구려. 고맙소'라며 눈시울 붉히실 때면 오히려 그 분들에게 더 큰 힘이 되어드리지 못해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새생각실천회의 이같은 자비행은 98년 12월 권경술 법사에게 〈금강경〉을 배우던 20여 명의 불자로부터 시작됐다. 99년 7월 불자들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모임이 결성됐고, 2년째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함께 하는 일을 꾸준히 벌여오고 있다. 지금은 동참 회원이 1백여 명에 달한다.

15년 동안 창원기능대학에서 노동법과 직업윤리를 강의하다가 불교포교를 위해 교수직을 그만 두고 새생각실천회를 이끌고 있는 권경술 법사는 "스스로 깨쳐 부처되는 일, 이웃을 깨쳐 부처되게 하는 일이 참다운 의미의 불사(佛事)"라며 "불교가 부처님 가르침대로 중생지향적이려면 인간 방생에 먼저 눈을 떠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생각실천회는 인간방생불사를 위한 이론적 연구활동은 물론 그 실천을 위해 매월 첫째, 셋째주 목요일 '중·고교 선생님을 위한 불교강좌', 매주 수요일 '일반인을 위한 금강경 강의', '불교교양강좌'를 무료로 열고 있다. 02)313-7028



◇생일잔칫상을 받은 자광원 어르신들이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종교편향 백서' 주요단체 배포

종교편향대책위

종교편향대책위원회(위원장 원혜·상운스님)는 5월 27일 '종교편향백서'를 발간하여 교계단체 및 주요정부기관에 배포했다.

이번에 발간된 종교편향백서는 1998년 종교편향대책위 발족이후 약 2년간의 활동을 중심으로 방화 및 훼불, 군, 교육·공직, 국제·이웃종교, 방송·언론분야의 종교편향 사례와 법률자료, 종교편향대책위 설립이전 훼불자료 등을 모아 발간한 것이다.

특히 백서내용에는 종교편향사례가 극심했던 군부대의 경우 역대 3명의 국방부장관이 사과공문을 보낸 것이 이채롭다.

원혜스님은 "종교간 조화를 통한 사회평화를 정착시키고 정부당국 및 공공기관의 올바른 정책수립과 집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백서를 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정토긴급구조단원들이 구호장비 앞에서 '구조단 선서문'을 낭독하고 있다.

정토 긴급구조단 발족

3백명 규모…각종 재난 구호체계 구축

일과 수행의 공동체인 정토회(지도법사 법륜스님)는 신도와 자원봉사자 300명으로 구성된 재난구조단을 구성하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정토회는 4일 서울 서초동 정토불교회관에서 정토회 소속 스님과 신자들로 구성된 정토긴급구조단 발족식을 갖고 산불이나 홍수, 삼풍참사와 같은 재해와 재난발생시 구조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정토회가 긴급구조단을 발족시킨 것은 산하단체인 한국JTS를 중심으로 인도 몽골 등 국제적 구호활동을 계속해 왔지만, 정작 국내에서 산불이나 홍수 등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적극 나서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시작됐다.

발족식에서 구조단 단장에 선출된 정토법당 원장 유수스님은 "초기단계인 만큼 재난발생지역에서의 취사지원과 파손된 건물을 보수하고 끊긴 도로를 잇는 활동부터 시작하면서 119 구조대 등 공식적인 구조대의 활동을 측면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토회는 신도와 대학생 및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300명 규모의 지역별(경기·강동·강남·서초·강서·강북 등 8개 지역) 구조단을 결성하고 재난구호에 필요한 굴삭기, 1톤 트럭, 지프 등 차량 11대와 의료장비, 생필품 및 작업도구 등도 마련했다. 특히 간호사 5명, 안전관리사 1명, 응급처치사 1명, 영양사·조리사 각 1명, 수지침사 5명, 전문산악인 2명 등 전문인력도 구성했다.

긴급구조단은 앞으로 재난 지역에서 긴급 물품지원, 복구·의료·취사활동 등을 펼치게 된다. 긴급구조단=(02)587-8993.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종교NGO 네트워크 추진

재가연대, 21일 포럼

불교바로세우기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서)가 타종교 NGO들의 활동경험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고 종교NGO네트워크도 추진한다.

재가연대는 오는 21일 오후 6시 30분 박문수 우리신학연구소 책임연구원(서강대 종교학과 강사)을 초청, '교단개혁을 위한 천주교 NGO의 경험과 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천주교 NGO단체인 우리신학연구소는 교회조직 및 운영에 관한 지속적인 대안제시 및 적용을 위한 활동, 교단내 성직자들(신부)에 대한 의식개혁 활동, 교단의 사회참여활동 등을 통해 성공적인 고단개혁활동을 추진해온 단체.

재가연대는 우리신학연구소의 경험이 건강한 교단(사찰)을 만드는 불교활동에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가연대는 이번 포럼의 답방형식으로 천주교 NGO들의 모임에서 불교교단 개혁활동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며, 이를 계기로 (가칭)'관용과 변화를 위한 종교NGO 네트워크'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재경 기자

케어코리아 허위서류 제출

서울시, 복지관 수탁체 감사

강북노인복지관 위탁체로 선정된 케어코리아가 서울시에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에 대해 시가 감사에 들어갔다.〈본지 273호 23면 참조〉

서울시는 5일 케어코리아가 제출한 서류가운데 자산으로 명기된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소재 건물이 등기부 등본 확인 결과 허위인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케어코리아 뿐만 아니라 이번에 위탁체로 선정된 다른 3개 법인에 대해서 자체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는 허위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시정조치만을 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진각종 복지재단 지현정사는 "서울시가 입찰공고에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해 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전면 재심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뉴스 & 뉴스

종교계 복지정보화 대회

종교사회복지연구소(소장 이혜숙)는 각 종교단체들의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용을 비교, 그 기능과 역할 향상을 목적으로 한 '종교계 사회복지정보화 대회'를 19일 오후 2시 동국대 문화관 덕암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세미나 형식으로 열리는 이날 대회에서는 조계종, 대한성공회, 구세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사회복지정보센터 관계자들이 각 종파별 사회복지정보지원센터 운용현황에 대해 설명한다. 한명우 기자

산불지역서 '풀씨파종' 행사

불교자원봉사연합회(회장 성덕)는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었던 강원도 강릉 사천면 산지 일대에서 지난 6일 장마에 대비한 '풀씨 파종'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관계자와 자원봉사자 등 70여명이 참가했다.

이번 풀씨 파종 행사는 장마철 산사태와 토양유실 및 수질혼탁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18일 또 한차례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한명우 기자

실상사 귀농학교 4기졸업

실상사 귀농전문학교(교장 도법스님)는 12일 실상사 화엄학림에서 3개월 과정의 제4기 졸업식(27명 졸업)을 개최했다. 귀농전문학교는 오는 8월 28일-11월 27일간 진행되는 제5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마감은 8월17일. (0671)636-3776 김재경 기자

한강 토종어류 방생

한강관리사업소는 8일 한강시민공원 반포지구에서 '싱싱한 한강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토종어류인 황쏘가리와 참게 방생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종단협의회 사무국장 법현스님과 이항규 해양수산부장관, 고건 서울시장, 김홍영 은누리녹색환경운동협의회장 등 3백여명이 참석했다. 정성운 기자

산악인련 3주년 법회·등반

대한불교전국산악인연합회(총재 손현수)는 창립 3주년을 맞아 18일 김천 직지사에서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기념법회에서는 연합회가 지금까지 해왔던 사찰문화재 보호, 청정국토 수호 등의 활동을 점검한다. 또 창립 1주년 때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한라에서 백두까지 연등 대장정'의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강지연 기자

반야심경 해설 강연회 열어

구미시청 불자회(회장 신영근)는 2일 시청 회의실에서 정병조 교수(동국대)를 초청해 '반야심경 해설 강연회'를 개최했다.

창립 1주년 기념으로 개최한 강연회에는 법등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정우스님(구미사암연합회장)을 비롯 12개 신행단체에서 400여명의 불자들이 참석했다. 강지연 기자

목탁소리

환경정책 없다

김 재 경 〈취재1부 기자〉

정부는 5일 제28회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환경의날 행사를 갖고 새천년 국가 환경비전을 선포했다. 등강댐 건설계획을 공식적으로 취소하기도 한 이날 기념식에서는 성타 불국사 주지스님이 대통령포장을 수상하고, 법륜 불교환경교육원 원장스님이 한국환경사회단체회의 상임공동대표 자격으로 '민간환경선언문'을 낭독해 관심을 고았다.

그런데 이날 불교환경교육원의 주도아래 작성·발표된 '민간환경선언 2000'의 문안은 정부 비판적인 문구를 삭제해 달라는 당국의 압력 때문에 수 차례의 우여곡절 끝에 작성되었다는 후문이다. 역대 정권중 가장 민주적이라는 국민의 정부가 환경정책에 있어서는 낙제점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정부는 그린벨트제도를 해제하는 등 가장 반환경적인 정책을 추진해온 정부라는 오명을 듣고 있다.

이같은 무차별적인 환경파괴를 막기 위해서는 모든 정책을 생태적 관점으로 평가하고 결정하는 국가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서둘러 가동해야 한다는 것이 환경전문가들의 목소리다. 그동안 개발의 면죄부 역할을 해온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바꾸어서 구상단계부터 환경영향을 평가하는 실질적인 제도로 개선되어야 하고 사후대책에서 사전예방정책으로, 공급위주의 정책에서 수요관리중심의 정책으로 바뀌어져야 한다.

아울러 공식적인 환경의날 행사조차 마련하지 않을 정도로 환경운동에 무관심한 불교계도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법보종찰 해인사가 있는 가야산이 59호 국도로 두 동강이 나고,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이 댐으로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을 안이하게 지켜보아서는 안된다. 지리산 양수댐 건설계획과 관련해서는 뒤늦게 '지리산 살리기 범불교대책위'가 출범을 서두르고 있지만, 가야산 관통도로 공사는 해인사 스님들의 무관심으로 불구경하는 처지에 놓여 종단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彌勒眞人 金剛道德法立 聖誕節에 즈음하여

백종(白鍾)의 천음(天音)이 온누리에 울리어 태극민족을 오천년 잠에서 깨우고 팔방으로 흩어진 단군 자손들을 찾아 미륵부처님께 귀일(歸一)케하고,
황고(黃鼓)의 지성(地聲)이 시방법계에 울리어 고해만겁에 헤매도는 억조중생을 일월도덕(日月道德)진리로 제민구세(濟民救世)함이라.
그리하여 미륵진인의 도량에서 금강도덕법립성탄절을 만인류에게 알리오니, 한 생각 돌리어 한 마음으로 인연을 짓기 바라는 바입니다.

⊙후원 : (재)대도문화재단
(사)미륵사상연구협의회
心天不二會(심천불이 바로 세우면 신토불이 스스로 된다)

하늘뿌리종교, 태극민족종교, 사회도덕종교
彌勒大道 金剛蓮華宗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산 84의 3
TEL(032)832-0626 FAX(032)831-8967
http://www.miruckdaedo.or.kr
E-mail : miruck@unitel.co.kr

주부신행담 내곁에 오신 부처님

두번이나 유산후 또 임신 관음보살 뵙고 염송한뒤 둘째아이 낳고 불교 귀의



그림 · 이준석

나는 전라남도 강진에서 태어났다. 친정어머니는 해방전에 기독교계통인 학교를 다녔을 정도로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지금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다. 기독교를 믿는 어머니 밑에서 자란 우리 형제들은 어렸을 때부터 불교와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친정어머니의 독실한 신앙심과는 달리 나는 1년에 한두 번 교회에 가볼까, 그나마도 언젠가부터는 발길을 끊은 상태였다.

고등학교 때의 일이었다. 어느 일요일 시골에 사는 친구의 집에 놀러 갔다가 친구와 둥에 뛰어 멀리 떨어져 있는 어느 암자에 들렀다. 그 암자에서 비구니 스님이 나를 유심히 보더니 "학생은 앞으로 절에 다닐 상이구만"하는 것이 아닌가. 같이 갔던 친구에게는 "학생은 교회에 다니고 있네"라며 뜬지도 않은 말을 하는 것이었다. 스물 네 살 되던 해에 친구 하나와 속리산으로 여행을 갔을 때였다. 법주사를 구경하던 중 어떤 스님에게 경내의 생소하고 신기한 것들에 관하여 여쭈었다. 스님께서는 친절하게 여러가지 답변을 해주셨고 〈반야심경 해설〉이라는 책까지 주셨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은 당시 법주사 주지 장이두스님이셨다. 지금도 나는 그 책을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다. 나에게 있어 불교는 그렇게 다가왔다.

나는 서른이 다 되어 결혼을 했다. 결혼생활을 하면서 지금 생각해면 뜨거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불교와의 인연을 만나게 된다. 남편은 대학 다닐 때까지 다른 종교를 믿고 있었는데, 아무리 그 종교에 몰두하려 해도 '도대체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과학적인 진리가 뒷받침되지 않는 진리라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었다는 것이다. 그런 회의 때문에 몇년 간 주춤하고 있던 남편이 시골의 어느 고등학교로 발령을 받았다. 마침 그 학교 불교학생회의 지도교사가 다른 곳으로 발령을 받아 떠나게 되어, 다른 지도교사를 물색 중이었는데 불교라고는 완전히 까막눈인 우리 남편이 이상하게도 그 자리가 맡고 싶어 지더란다. 그렇게 불교와 첫 인연을 맺은 남편은 30여명 밖에 안되던 회원들을 3개월만에 80여명으로 늘리는등 수완을 발휘했다. 멀리 떨어진 영암의 도갑사까지 찾아가 스님을 모셔와 학생들에게 법문도 듣게 하였다. 초파일이면 그 많은 학생들을 데리고 강진의 백련사, 유치면의 보림사 등 이곳저곳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방학이면 학생들과 수련회도 다니는등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했다. 그때는 우리가 결혼하여 신접살림을 차린지 얼마 안되었을 때라 나도 시간이 나면 남편을 따라 다녔는데, 고즈넉한 절의 풍경과 바람결에 흔들리듯 들리는 목탁소리가 참으로 좋았다.

인연은 필연으로, 그러나 우연처럼 찾아오는 법인 모양이다. 원래 몸이 약했던 나는 큰 아이를 모진 고생 끝에 낳았고, 그 이후로 두 번이나 유산했다. 얼마 후 또 임신을 했는데, 병원에서는 산모가 몸이 약해 아이를 낳기 어려우니 유산을 권유했다.

집으로 돌아오다가 초파일 때 함께 절에도 가고 늘 친정엄마같이 마음을 자상하게 써 주시던 이웃 할머니를 만났다. 정식 출약방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할아버지가 한약을 잘 지어 알음알음으로 제법 소문이 난 분이었다. 내 말을 듣고 크게 놀라며 걱정을 하던 할머니는 '우리 영감'한테 물러보라고 했다. 저녁 때 남편 등에 업혀 할머니 댁으로 갔다. 할아버지는 얼굴을 이리저리 살펴보고 한참 진맥을 하시더니 약을 지어주셨다.

할머니 댁을 나올 때 벽에 걸려있는 관세음보살이 희미하게 웃음을 짓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날 저녁부터 약을 다려먹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무슨 암시였을까. 아까 보았던 관세음보살이 자꾸만 떠올라 머리 속으로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며 약을 먹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몸을 일으키는데 확실히 배의 통증이 어제 저녁보다 줄어 있었다. 급기야는 거짓말같이 딱, 3일만에 일어나서, 빨래도 하며 집안 일을 경소처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몰래 아이를 낳고 얼마 후 인사차 찾아간 할머니 댁에서 다시 본 관세음보살은 환하게 웃고 계셨다. 마치 "그 아이는 내가 보냈느니라"하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는데 나는 그 앞에서 수도 없이 합장을 했다. 그런데 신통하게도 작은 녀석은 자라서 스님이 보는 것이 금이란다. 마치 자기의 출생비밀(?)을 아는 것처럼 말이다.

사람의 마음은 어떤 계기가 있어야 가치관의 전환이 오는 모양이다. 그전까지 나는 불교를 그저 심신수양의 측면 내지는 윤리나 도덕적인 면에서 필요한 정도쯤으로 보는 게 솔직한 심정이었지만, 이때 이후로 나는 불교를 내 생생의 업으로, 내 전부로 받아들이게 됐다. 그때부터 여지껏 예사로이 넘겼던 교리공부도 하기 시작했다. 89년 수원을 거쳐 93년에 남권이 현재의 경기도 연천으로 발령을 받았다. 수원에 살 때 용주사 포교원에 다니며 불교의 기초교리를 배웠는데, 정식으로 불교에 입문한 것도 그 때다.

연천으로 온 후 가까운 군부대에서 일요일과 수요일마다 체계적인 법회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번 참석해보니 젊은 사병들을 상대로 하는 법회는 상당히 만족할 만한 것이었다. 사실 나는 이렇게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법하는 법회를 본적이 없었다. 어느 내용을 들어도 막힘없이 대답하시는 법사님들의 모습에서 큰 감동을 받았고 저절로 존경스러운 마음이 우러나왔다.

군법당에 다니면서 '자비회'라는 신행단체를 조직하게 되었다. 이때 우리 회원들은 군부대의 어려움과 종교성을 깊이 느끼게 되었다. 이것은 스님들만의 몫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십시일반으로 손을 모아 신병교육대 등 가까운 군부대로 찾아가 법회에 참석하는 군인들에게 간식을 넣어주는 등, 작은 일부터 시작했다.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갓난 수봉 때 대비하기 법당 건립에 관한 일이다. 그때 우리 자비회는 여기저기 시주를 받으러 다니기 바쁠 정도로 모두들 열심히 동참하였다.

우리는 가장 손쉬운 일로 가까운 군부대 법회에 간식을 넣는 일부터 시작했다. 그리고 수봉 때는 회장의 지휘아래 거의 모든 회원이 나서서 이곳 연천지역은 물론 동두천까지 돌아다니며 복구작업에 고생을 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화채, 음료수, 간식 등을 나눠줬다.

내게는 아직도 몇가지 소망이 있다. 내가 믿고 봉들어 이 육신이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 부처님의 뜻을 펴며 살고 싶은 것이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어미로서의 도리를 다한 다음에는 스님들의 수행을 돗바라지 해 드리면서 조용히 정진하는 삶으로 여생을 보내고 싶다.

박미영(경기도 연천)



작은키 포기 하지마세요

《성·장·발·육!》
성장기에 필요한 필수영양소의 적절한 손실이 중요합니다.

키가 쑥쑥! 1m80 다리 시대!

키가 유전이라고요?
영양31% 유전23%

서울대학교천연물 과학연구소는 동·서를 가로지르며 천연자원 발굴 등 유용한 물질을 개발하기 위하여 1998년 강남차병원과 합작투자하여 설립한 연구소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는 연구소입니다. 우물이 깊어야 물이 많이 나오듯 이곳은 성장의 원리를 연구합니다.

연구개발 서울대학교 천연물 과학연구소

엄마가 날은 작은키 키돌이가 키웁니다.

제조원 (株) 開豊洋行 판매원 (주) 성장원

許可番號 : 京畿 利川 衛 第13號



키돌이 성장원
KEYDORI SUNGJANGWON

사원모집 · 대리점
(02)563-1533

제품구입 : 소비자상담(무료전화) 080-011-8777

현세(現世)의 불자들이 대대손손 집안의 가보(家寶)로서 후손들에게 물려줄수 있는 이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값진 성품(聖品)

법화삼부경(一名, 법화경) 금니 8폭 조각 병풍



〈규격〉 높이 : 152cm 길이 : 366cm 무게 : 70kg

특 징

- 법화삼부경 8만4천여 자가 8폭 금속판 위에 한자 한자 양각으로 입체 조각되어 99.9% 순금으로 도금된 후 영구적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표면에 특수코팅 처리를 하여 때가 묻거나 변색되지 않습니다.
- 병풍은 한폭마다 연꽃, 구름, 법종, 하늘, 바다 등 모든 구성요인이 생생하게 입체적으로 조각되어 있기 때문에 생동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 대대손손 집안의 가보로 전해질 수 있도록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형이 가지 않는 목재와 특수재질을 혼합하여 조성되었습니다.
- 본 병풍 소장자는 부부이름이 금속판에 조각, 순금으로 도금한 후 병풍 뒷면에 부착되므로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선조님으로 길이 남게 됩니다.
- 본 병풍은 실용신안 및 의장등록특허를 출원하였으며 한폭 한폭 조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됨으로 신청 후 받으시는데 1~ 2주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 인도방법은 손상의 우려가 없어 한폭 한폭을 원하시는 장소까지 본회에서 직접 모셔다 드립니다.

■ 본 병풍을 모신 스님과 불자들의 놀라운 신통묘력의 사례

① 집안의 공기가 병풍에서 풍아져 나오는 법기(法氣)의 영향으로 맑아지면서 집안에 생기가 가득하고 살으로 6개월만에 못난다는 중환자가 건강이 몰라 호전되어 낳아지고 있는 기적이 일어났다.

② 도산 직전에 있던 회사가 사장이 이 병풍을 모신 후부터 매출이 몇배 신장되고 주위에서 말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일이 생기고 하여 이제는 완전히 회생하였다.

③ 자손이 없어 고민하던 사람이 병풍을 모시고 그 앞에서 3개월 정도 기도후 아기를 갖게 되었다.

④ 집안에 도적이 들어 온 집안을 뒤졌으나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다고 한다. 집안에 현금과 보석이 가득한데 그것을 못찾고 간 것은 병풍의 법기(法氣)가 재산을 가려주었다고 본다.

⑤ 사법시험에 육년동안 실패했던 고시생이 집안에 병풍을 모신 뒤 합격하는 영광을 얻었다.

⑥ 수험생을 둔 학부모 7명이 모두 병풍을 모신 뒤 원하는 대학에 무리로 합격하는 영광을 얻었다.

⑦ 가족고를 앓고 있던 사위가 병풍을 모신 뒤 바로 불교로 귀의하면서 매일같이 병풍앞에서 3배의 절을 하고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불경을 공부하고 있다고 한다.

⑧ 30세의 노처녀가 병풍을 모신 뒤 2개월 만에 좋각 한의사를 만나 결혼하였다.

상기 효험사례 외에 병풍을 모신 사람마다 크고작은 집안의 경사가 자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가족들이 모두 병이 없어지고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하고 있으며, 집안이 화목해지고 어떤 일을 하던 보이지 않는 알 수 없는 어떤 힘(力)이 도와주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하는 신비스러운 작용들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 연락주시면 카다로그 및 설명서 보내드립니다

『아래 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담문의 및 신청

성지관음회
전화 : (0335)334-9490, (0335)334-9491
야간 : (0342)706-3060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